

# 2021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16권

## 요약보고서

- 16-1 자체연구 요약보고서
- 16-2 현장연구회 연구 요약보고서
- 16-3 학습연구년 연구 요약보고서

2021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16권

**요약보고서**

2021. 교육정책 자체연구보고서

# 지역사회 연계 작은학교 지원 정책 방향 연구

: 지자체 협력 중점 지원 2개교를 중심으로

## 연구자

### 연구책임자

위미나 경남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자

공상호 대흥초등학교 교사

정현철 하일초등학교 교사

차형률 신등초등학교 교사

### 연구협력관

고희점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관

김성미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관

오용주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사

강인수 경상남도청 통합교육추진단 장학관

구민희 경상남도청 통합교육추진단 장학사

오재숙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 자문위원

강 정 대흥초등학교 교장

김동욱 진성초등학교 교장

## 기타 기여자

### 심 의 위 원

김준식 지수중학교 교장

조윤주 창남초등학교 교사

### 도움 주신 분

강상우 상주초등학교 교사

김영희 영오초등학교 교장

노경진 영오초등학교 교사

박순걸 밀주초등학교 교감

손정은 진해신항초등학교 교사

안영학 상주초등학교 교장

여태전 상주중학교 교장

오정훈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장학사

육세진 경상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 단장

이동림 예하초등학교 교장

이문향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파견교사

이상용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이순자 사회적 협동조합 한들산들 대표

하미영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주무관

허남혁 경상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 주무관

황우영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장학사

# 지역사회 연계 작은학교 지원 정책 방향 연구

## : 지자체 협력 중점 지원 2개교를 중심으로

### I. 서론

『경상남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2020년부터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지자체가 학교 당 각 5억씩(총 15억)을 지원하여 지역(마을) 연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2020년은 고성군 영오초등학교와 남해군 상주초등학교가 1기 사업 대상교로 선정되었다. 선정학교는 이 예산으로 이주민을 위하여 학교 주변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 학교 공간혁신, 교육과정 운영 등을 하게 된다. 영오초와 상주초는 사업 대상교로 선정된 후 지자체와 사업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빈집정비, 임대주택 건설 등도 실시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학부모, 관련자 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을 담은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여 2021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오초와 상주초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 과정과 그 성과 분석을 통해 지역소멸, 지역 공동체 붕괴, 폐교를 막을 수 있는 지역 연계 작은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II. 『경상남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현황

#### 1. 고성군 영오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종합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사 수준 교육과정</b>: 특별한 이유나 목표도 없이 시행되는 재구성은 오히려 교사들에게 피로감만 키울 뿐임. 영오초는 작은학교 살리기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 학년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각 선생님마다 특색있는 교사수준교육과정이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음.</li> </ul>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자발성</b>: 작은학교 살리기는 공교육을 살려보자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바뀌어야 함. 교사들의 자발적 동력을 유지하고, 효능감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 필요</li> </ul>

<p><b>개선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업무경감:</b> 업무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 업무경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영오초처럼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한 명의 교사가 맡고 있는 업무가 과중한 상태임. 교육청 차원에서 업무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학교 성과를 부각하기 위해 단위 학교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평가 및 사례 연구, 발표회 등은 지양해야 함.</li> <li>• <b>학부모 및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b> 학부모 및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육공동체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 필요. 학부모나 마을교육과정 운영을 단순히 교사 한 사람의 업무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해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는 방안 고려 필요. 타학교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학부모나 지역사회관련 업무에 학교 관리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 얻을 수 있음.</li> </ul>
-------------------	---

## 2. 남해군 상주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분석 결과

<p><b>강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해군에는 5개의 행복학교가 있음. 행복학교 네트워크 행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지역 특성상 서로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공유가 되는 장점이 있음. 이를 통해 각 학교의 장점을 받아들여 학교 운영에 적용하기 쉬움.</li> <li>• 학부모, 지역민, 인근 학교 교직원, 마을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학교 밖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마을교육과 관련된 초청 강연, 독서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사-학부모-지역민이 함께 마을교육을 고민하고, 그 가치에 공감하며, 협력하여 마을교육에 관한 인식 확대됨.</li> <li>• ‘너나들이’라는 학생다모임이 운영되면서 학생들 스스로 학교행사와 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 되어 자율적 민주시민이 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음.</li> </ul>
<p><b>분석 결과 종합</b></p> <p><b>약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복학교로 주체 간 소통을 중시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학부모 및 학생의 만족도가 높음. 하지만 기초 기본교육에 대한 시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어 학교에서 고민하고 있음.</li> <li>•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학년별 프로젝트 학습활동이 이루어졌으나 좀 더 심화된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역량 함양 필요함.</li> </ul>
<p><b>개선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 교육과정에서는 프로젝트와 기초기본교육이 모두 중요시 되는 교육과정을 계획할 예정. 특히 새 교육과정에서는 프로젝트 활동에 읽기와 쓰기 활동을 유의미하게 연계하여 타 교과 및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할 예정</li> <li>• 학부모 및 지역전문가와 함께하는 새 교육과정을 위한 워크숍 활동으로 학교 철학에 대하여 공유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녹여내기 위한 협의회 필요</li> </ul>

### III. 영오초상주초 학교 구성원 및 업무 담당자들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경험

#### 1.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한 학교 구성원 인식 및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지자체 협력 중점학교 1기의 구성원들의 사업 경험과 인식, 요구, 어려움, 개선점 등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 형식의 의견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지자체 협력 중점학교 1기인 영오초등학교, 상주초등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영오초등학교 교사 9명, 학부모는 24명이며, 상주초등학교는 교사 12명, 학부모 44명이 응답하였다.

##### 1) 교사 응답 분석

사업 초기라 교사들의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고, 학생 수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어 교사들이 사업에서 업무 효능감,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고 열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와의 협조 관계에서 대다수의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의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과정의 차별화’, ‘마을교육과정 운영’, ‘지역 연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작은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도 함께 살아야 하며, 상생 관계이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교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마을교육과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지역 연계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그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 2) 학부모 응답 분석

영오초와 상주초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학부모 모두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만족도 또한 66.6%로 꽤 높은 편이었다. 이 사업추진의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교사의 헌신과 열정’(41.7%)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이 ‘지자체와 지역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33.3%)이었다.

교육활동 및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학생 학습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96.6%), 절대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에 만족하고 있었다(긍정응답: 91.6%). 또한, 학교의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83.4%), ‘교내 외 체험 학습이 학생들의 다양한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된다’(긍정응답: 75.0%)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교사 및 학교에는 사업 관련하여 보다 많은 소통과 공유’, ‘사업의 내실화’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자체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학부모들과의 소통도 더욱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 2.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한 학교 구성원 및 사업 담당자의 경험 및 의견에 관한 면담 조사 결과

본 연구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관련 학교 구성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담당자, 마을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본 사업으로 인한 학교와 마을, 지역의 변화와 사업 운영의 어려움, 개선점 등 경험 전반에 대한 내용과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대상자는 영오초와 상주초의 관리자(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장, 학부모, 학생 그리고 고성군과 남해 교육지원청 장학사, 지자체(고성군청, 상주면사무소) 담당자, 마을공동체(마을협동조합 대표)였고, 총 25명이 면담에 참여하였다.

면담문항은 대상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1)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2) 마을교육공동체·이주민 적응 3)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수행과 전망이 그것이다. 각 영역은 2~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항목별로 1~2개의 질문을 만들어 대상에 따라 4개에서 20개의 질문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조사 결과를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교 관리자들은 우리 학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이루려는데 많은 애를 썼으며, 교사들의 업무 피로도를 낮추고 학교공동체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모임 등 교직원 전체 협의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이 사업을 통해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고, 풍부한 예산 지원으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나, 사업 진행에 있어서 업무 부담이 많이 되었으며, ‘교사 본연의 업무보다 사업 관련하여 부가적인 행정적인 업무가 많아 교사로서 내적 갈등이 많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사업으로 인하여 교사들의 업무가 많아졌음에도 보상은 거의 없어서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행정실장의 경우, 기존 예산 항목이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생겨나는 항목들이 있어 예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사업으로 인하여 업무가 늘어난 데 비하여 행정실의 인력은 부족하고 교직원 복지 혜택이 미흡한 점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이주 학부모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수업이 가능하고 다양한 학교의 혜택으로 전학을 결정하였으며, 학교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주로 인한 일자리,



임대주택 입주, 마을 구성원으로서 적응 등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 학생들은 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가 많아졌고, 학생 수가 늘어나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마을공동체의 경우, '이주민 및 전학생 가정에 대한 혜택 중심의 사업 방향에서 마을과 지역이 모두 혜택을 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지원청 장학사의 경우, 이 사업에서 '교육지원청의 지원이 현재로서는 미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역에 사업교육 이외에도 '지역의 대부분이 작은학교이기 때문에 특정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의 모든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과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학교와 교육청과 함께 하는 사업 협력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기존에 지자체가 하고 있던 사업과의 연계,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에 관해 관심이 높았다.

#### IV. 『경상남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방향

초점집단토론은 『경상남도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의 성과와 한계, 학교와 지역 상생 측면에서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지역 연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원 방안, 이 세 영역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경상남도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해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가 형성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 학교와 지역의 연계,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도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는 그 한계도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지역의 여건이 열악할 경우, 학교에서 일자리 마련과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이주나 전학을 통한 학생 수 증가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위적인 사업인 경우 한시적인 재정 투입으로 인하여 그 지속성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비전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과 사업으로 인하여 작은학교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가치가 공유되고 있으며, 마을과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교와 지역 상생 차원에서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학교를 마을교육공동체 형성의 지원 체제로 만들고, 이렇게 형성된 마을교육공동체가 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의 어

올림과 연대가 될 수있도록 지역의 교육, 돌봄 기능, 마을교육과정 운영, 마을 경제에도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연계에는 중·장기적인 목표가 필요하며, 공동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학교에서 마을교육과정이 활성화 되어 마을교육공동체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역연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의 삶의 형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작은학교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가진 학부모들이 부담을 덜 가지고 전학을 오고,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의 방향이 이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위주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혜택을 보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교는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수업의 질 향상, 교육의 내실화 등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에서의 학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좀 더 공감하고, 교육과 생활 전반적인 영역에서 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마을은 교육의 장으로서 학교와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로 성장한다면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 사업은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학교는 지역의 여건과 학교가 가용할 수 있는 지역, 마을, 학부모 자원을 잘 활용하고, 수업 혁신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을 하고, 이를 마을과 지역의 공동체가 함께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여 교육공동체가 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마을의 정주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작은학교는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작은학교에 있어 지역 연계는 그 존립에 핵심적인 요인이며, 각 학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역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보여진다.

## V. 결론 및 제언

### 1. ‘작은학교’는 삶을 위한 공적 영역이다

과거 교실을 교사의 사적 영역으로 보아 외부의 관섭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사의 수업 독립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교육이 폐쇄적 독단적으로 흐를 위험이 컸었다. 최근에는 교실을 교사의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바라보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하는 사람들만의 사적 영역일 수 없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참여해야 하듯,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공적 영역이어야 한다. 특히, 작은 학교가 위치하는 마을은 학교가 마을이 더 이상 분리되어서 운영될 수 없다. 과거의 교육에서

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배우기만 하고 학교를 떠나 배운 것을 실천해야 했다면, 지금부터의 교육에서는 학교와 마을이 하나로 어울어진 배움의 공간에서 삶과 삶이 하나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작은학교는 더 이상 마을과 단절된 사적 영역일 수 없고 마을과 하나된 공적 영역이 되어야 한다. 작은학교에서는 학교와 마을이 학습으로 하나되는 마을교육과정이 실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학습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청은 마을에서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마을교육자원과 마을교사 인력풀을 구축해야 하고 학교, 지자체, 학부모, 학생이 함께 하는 가칭 “면단위 교육과정운영 지원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2. 작은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미래교육을 예측하는 다양한 전망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의 하나는 ‘지역’이다. 따라서 최근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부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보인다. 김용련(2020)은 마을교육공동체를 ‘지역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지역사회를 아이들의 배움터로 만들고, 지역의 시민적 역량을 선순환시키는 지역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경남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을 분석한 뒤 내린 결론은 작은학교들이 지속가능성을 가지려면 결국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이 하나의 교육공동체가 되어 ‘학생과 학부모, 모든 주민의 배움의 공간이자 삶의 장’이 되면서 동시에 ‘학습과 사회적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 3. 작은학교, 다양한 유형의 마을교사가 필요하다.

미래사회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과어의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버리고 ‘뉴노멀’이라는 새로운 가치체계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가르침은 더 이상 교사의 전유물일 수 없다. 가르침에 있어서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가르침이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삶과 삶이 하나되는 교육을 위해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마을교육과정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마을교육과정이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마을교사들이 필요하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교교사와 마을에 대한 이해가 깊은 마을교사가 서로 협력하여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른바 협력의 교육과정, 상생의 교육과정이다. 그리고 어느 한 지역의 학교 교사와 마을교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교육과정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마을교사 인력풀을 확충하고 학교 교사들과 협력의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수과정도 개설해서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마을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 4. 작은학교 살리기에서 작은학교 교사의 역할과 지원의 체계화

작은학교가 활성화되고 그 학교만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리 학교 학생들 맞춤형의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이다. 아무리 좋은 자료와 시설 설비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사의 열정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핵심은 교육과정의 혁신과 수업의 질 제고일 것이고 이는 모두 교사가 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작은학교 살리기의 성패는 '작은학교 교사들의 동기와 자발성 그리고 열정을 유지 시켜줄 수 있는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며, 이것이 본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는데 필수 조건일 것이다.

#### 5. 목표로서의 작은학교 살리기 필요성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목표는 인구감소로 인해 사라져가는 작은학교를 살리는 것이다. 즉, 작은학교 살리기는 하나의 목표이다. 그런데 현재 본 사업이 학교 살리기가 목표가 아닌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 작은학교를 살려서 지역 소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면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는 학교가 할 수 있는 범위 너머의 일일 수 있다. 이는 현재 본 사업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교육청 및 학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학교가 감당해야 몫은 교육과정의 혁신과 변화이다. 지역의 실정과 작은학교만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구성이 학교와 교사의 고유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지역으로 이주한 학부모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주해 온 학부모의 일 자리, 주거, 각종 민원상황을 지역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학교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업무의 세분화와 구조화가 필요하다. 학교와 교사는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2021. 교육정책 자체연구보고서

---

# 기후위기 대응 교육체제 구축과 환경학습권 보장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이희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파견교사

### 공동연구자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미래교육연구팀장

정용주 서울 탐산초등학교 교사

주영 대구환경교육센터 상임활동가

### 연구협력관

김경화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윤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장학사

### 자문위원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 기후위기 대응 교육체제 구축과 환경학습권 보장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의 기후위기는 누구를 돕거나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행성 지구와 동·식물을 포함하여 인간 스스로의 영속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분기점이다. 일부의 수정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전 사회적이고 체제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 역시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체제의 전환은 생태적인 전환인 동시에 학생으로 하여금 사회에 더 많이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는 이제까지 교육계가 추구해 온 학교 민주주의 강화를 계승하고, 청소년시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체제로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재영(2017)은 환경권과 학습권을 합친 ‘환경학습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의 언어를 제안한다. 환경학습권 개념은 빠르게 수용되어 2021년 1월 5일 기존 법률을 전부개정하여 만들어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이 명시되었다.

그러나 학습환경권이라는 용어는 학술적, 개념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거의 논의가 된 적이 없다(이재영, 2020). ‘환경학습권’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구체화되기보다 환경권을 슬로건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다. 환경학습권은 이미 법 제도상에서 권리로 선언되었으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의 실제적 보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후위기 시대의 중요한 권리로서 환경학습권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환경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법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체제 구축의 기초 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체제란 무엇인가?

둘째, 환경학습권의 개념과 성격은 무엇인가?

셋째, 교육주체들이 삶에서 환경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 법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문헌연구

문헌조사를 활용하여 환경학습권과 관련된 정책 및 법령, 논문, 보고서 등을 검토함으로써 현재 환경학습권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과 논의의 현황 및 근거를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후위기는 지구공동체 전체의 지속가능성이 좌우되는 위기인 만큼, 문명사적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우리 사회와 교육을 구성해온 근대적 인식론과 근대 체제, 환경 교육에 대하여 근대적 이분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하였다.

### 나. 면담

환경학습권은 새롭게 등장한 권리인 바, 현재의 학교 교육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법 체계에서 포괄되지 못하고 있는 권리의 공백을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녹음 및 텍스트 전사 과정을 거쳤으며 해당 파일은 희망하는 참여자에게 공유되어 검토 과정을 거쳤다. 면담 자료의 분석은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해 개방코딩→범주화→범주 확인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 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면담 등의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결과의 공개와 사용, 연구 관련 자료의 보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 후 연구 참여 의사를 자율적으로 밝힌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거나 갈등되는 부분이 있다면 연구자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에 연구 참여에 동의했다라도 진행 과정에서 참여를 원하지 않을 시 철회가 가능함을 사전 안내하였다. 또한 면담을 진행할 때에는 참여자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와 방법을 통해 진행했다. 자료의 분석과 결과 서술에서 참여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며, 참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기호화하여 사용하고 연구 참여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서술하



지 않았다. 연구 자료 보관에 있어서도 파일을 암호화하는 등 비밀 보장에 유의하였으며, 연구 종료 후에는 참여자들의 인터뷰 음성 파일과 전사 파일, 출력문서 등은 파기하고 개방코딩 분석 자료들만 보관할 예정이다.

### 3. 연구 결과

#### 가. 체제 전환의 필요성

리오타르는 모종의 대설화, 그리고 대설화에 정당성을 호소하는 담론을 ‘근대주의’로 규정했다(장 프랑수와 리오타르, 2018). 여기에서 ‘대설화’는 주인설화, 즉 자연의 정복에서 그 목적을 찾는 인간의 설화이다. 자연을 분석하여 얻어진 법칙들이 진리로 인정되고 그 진리를 재현하여 기술을 확산함으로써 인간의 삶은 크게 편리해졌다. 그러나 삶의 편익은 인간만이 경험하는 세계의 진보였다. 오히려 돼지나 닭, 꽃과 나무 그리고 물과 대기는 힘들어졌다. 속도와 대량화를 추구하는 것, 인간의 노동을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 인간의 부담을 비인간계로 떠넘기는 것, 그 자체가 자기정당성을 가진 근대의 대설화가 된 것이다.

이는 교육에서도 나타났다. Houser는 교육학 및 각 교과 영역의 큰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육은 본질적으로, 확실히 인간중심적이라고 평가하며(Houser, 2009: 205), 교육에서 인간과 세계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경향이 존재하고 환경이슈를 다룰 때에도 인간에게 독점적 역할을 부여해왔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는 모든 생명체 또는 통합된 전체로서의 지구사회가 아니라 인간 생활의 개선에 교육의 목표를 두게 하며, 학생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구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방식과 신념을 통해 행동하게 한다.

근대성에서 발현되는 분리와 관계성의 단절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대적으로 일찍이 깨닫고 환경교육에서는 변화를 시도했다. 낙동강 폐놀 사건 등의 심각한 환경 사고 문제가 주는 충격은 기존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 된다는 관리주의적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 나아가 한국 사회에 등장한 ‘녹색성장’ 담론은 변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다시 경제성장 위주로 퇴행시켰고,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기술적, 과학적,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자리잡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기후위기가 가시화된 지금, 환경교육은 주목받고 있다. 이는 학계 및 환경교육운동계가 환경교육의 제도화·의무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오랜 기간 노력해온 결과인 동시에, 코로나19의 유행과 심각해져 가는 기후위기·환경재난을 계기로 급격히 확산된 사회적 위기감이 이루어낸 결과다. 하지만 근본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레타 툰베리와 청소년들의 결

석 시위가 기후위기는 물론 근대 학교 체제를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는 점 역시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 대신 현재의 사회와 환경 문제에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보다 새로운 학생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사회, 학교/삶을 분리시킨다.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행사라 하더라도 환경을 주제로 하고 있다면 지지받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환경 그리고 환경교육이라는 말은 그 스스로가 정당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대설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부분적인 변주는 계속해서 미끄러진다. 환경교육이 새로운 대설화가 되어 근대 교육 체제를 유지시키는 또다른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성찰과 체제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 나. 기후위기 대응하는 교육체제의 의미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은 기후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여 새로운 삶의 형태를 구성해내고 동시에 기후환경이 더 이상 변화하지 않거나 또는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과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감축하거나 없애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체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체화하였다.

### 1) 민주주의 강화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전환’

그간 교육계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실제로 학생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거나 수업의 주도성을 교사가 독점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문제의식이 가지고 가르치는 자 또는 교육 서비스의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 특히 학생들과 나누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 또한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차별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장시켜 왔다. 이러한 역사를 계승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 과정에서도 민주주의와 소수자의 권리 확대가 요청된다. 더불어 최근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정의로운 전환’의 흐름은 청소년 노동인권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계의 기후위기 대응은 민주주의의 실현, 평등과 비차별의 가치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계의 혁신이 추구해온 학생 중심 그리고 소수자의 권리 증대와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전환에서 요구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교육적으로 실현하고 그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정책의 영향을 받지만 그 정책에 개입할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제도적 차원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조효제, 2020).

### 2) 현실을 변화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교육계의 기후위기 대응 중 많은 부분이 교육을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교육이라는 공적 시스템이 기후위기 대응에 실제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여전히 부족하다. 탄소중립학교, 자원순환센터로서의 학교, 마을 숲으로서의 학교, 생태적인 냉난방 시설,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의 책무로 분명히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학교가 생태적인 기관이 된다는 의미는 학교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공서비스이자 독점제공 서비스인 교육은 개인 차원에서의 배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학교가 생태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학교 사회의 구성원들은 기후위기에 부정적인 기여를 공동으로 하게 된다. 이처럼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학습자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비윤리를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태적인 학교의 물리적·행정적·제도적 구축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책무다.

### 3) 탈성장교육으로의 전환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의 질서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받는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적 전환에서 교육의 중요성 역시 여기에 있다(Orr, 1991). 교육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적응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의 질서를 전복할 수 있는 잠재성의 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순적 속성을 가진다(남미자, 2021.6.10). 가장 느리게 변화하고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공교육이 또한 해방의 공간이기도 한 이유가 이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 사회의 성장중심주의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 사회적 전환을 제안하는 주장이 탈성장 담론이라 할 수 있다. 탈성장을 제안한 라투슈는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전환이 요청되는 시대에 학교 교육이 마주하고 있는 딜레마를 묘사하며 자본주의 경제제도가 교육제도를 타락시켰고 그래서 지금의 교육제도가 경제성장과 진보라는 신념을 전파하는 톱니바퀴가 되었다고 분석한다(라투슈 세르주, 2014). 성장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이상, 지속가능발전이 이야기하는 성장과 환경 보전의 조화조차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탈성장주의, 탈성장 교육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말에 동의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성장중심주의가 기후위기의 배경과 본질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탈성장 담론은 기후위기 대응 교육체제 구축의 철학이자 실천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환경학습권의 의미와 성격

### 1) 환경권으로서의 환경학습권

환경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바탕으로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기본권이다. 이와 더불어 비인간계와 보다 진전된 관계를 누릴 권리, 구체적으로는 ▲보다 생태적인 법의 적용을 받을 권리, ▲비인간 존재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관계맺을 권리-비인간 존재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비인간 존재와 우애를 나눌 수 있을 권리-비인간 존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학습권은 이러한 환경권을 교육의 영역에서 향유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즉 환경학습권은 ▲교육에서 다루는 사회의 범위를 비인간계까지 확장하고 보다 넓은 사회에서의 시민으로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요청한다.

더불어 환경학습권은 학습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알 권리’가 중심이 된다. 알 권리는 정치적 권리의 바탕이 되는 권리로,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양과 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권리와 자유롭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권리, 그 판단을 존중받고 실천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학습권은 기후변화가 사회 및 자연계에 대한 여타 위협을 악화시켜 빈민과 취약 계층에게 추가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기후변화가 전 인류 공통의 관심사임을 인지하도록 하는 앎을 포함한다.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이의 참여가 없이는 기후변화가 가하는 지구적 지역적 과제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실질적이며 포괄적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실천하게 하는 적극적 환경권의 행사를 환경학습권은 포괄하는 것이다.

### 2) 교육권으로서의 환경학습권

교육권은 학습권이라는 말과 혼용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 및 법 제도상에서 논의가 정리되지 않는 개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 관련 법들은 대부분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한 행정적 수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적 권리를 향유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교육은 권리적 측면과 의무적 측면이라는 양면이 존재하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은 교육 법제에서 부각되지 못했다.

한편, 한국의 근·현대사는 제국주의와 독재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스스로 주권을 쟁취한 역사다. 진냥은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과 같은 주권(국민의 권리, 시민의 권리)이 교육법제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진냥, 2021). 그래서 학생 즉 배우는 사람의 권리를 처음으로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에 대한 최초의 권리적 접근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개

정되어 시행 예정 중인 두 법률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환경학습권’이라는 권리를 명시하여 이 법이 보호하고 있는 법익을 구체적인 권리로 명시한 것이다.

교육을 권리로써 접근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교육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소양 및 기본 역량을 갖추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다 안전하게 사회를 경험하고 실험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보장 장치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학교는 작은 사회로 불리며 동시에 학교 교육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안내받으면서 학습자로 하여금 사회에서 적용되는 시민권 모두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학습권은 확장적이고 복합적인 권리로 환경에 관한 수업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환경권과 시민권을 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할 교육권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생태소양의 보장

학교 교육에서 기초·기본 학력의 보장이 학습자의 권리이자 학교의 책무인 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연 생태계와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본 소양, 즉 생태소양의 보장 역시 환경학습권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해왔던 기존의 교육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기본 교양 교육으로서 생태소양교육은 제안되었다. 소양이라는 개념이 개인과 사회, 자아와 세계 사이의 다양한 관계와 갈등을 전제로 하며, 이와 같은 관계 안에서의 개인의 성장, 사회화 등을 총칭하는 용어인 만큼 학교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생태소양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비인간계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그에 기반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또한 생태소양교육의 관점에서 모든 교육은 환경에 대한 교육이며 머리-손-마음의 연결, 즉 생태적으로 생각하고, 인간과 자연 시스템의 상호연결성을 이해하며 행동할 수 있는 의지, 능력, 용기를 가져 실제로 실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한다.

### 4) 탈성장 교육으로의 전환

진보 또는 보수라는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은 긍정되어 왔다. 개발담론에 대한 비판이 시작된 2000년대 초반에도 자본주의적 개발 담론에 대한 비판만 제기되었을 뿐, 성장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Kissling & Bell(2020)은 교육에서 기후위기의 위기 인식, 개인적 신념으로서 환경문제와 경제 성장 사이의 지향, 그리고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지역성, 시사성, 자본주의 및 불평등이 환경문제와 가지는 관련성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관련성’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탈성장론이 경제 성장을 비판하거나



혹은 성장이 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탈성장은 말 그대로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성장과 상관없는 좋은 삶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다(남미자·박복선, 2021). 이러한 맥락에서 탈성장은 ‘다른 사회’로 가기 위한 슬로건이며, 라투슈는 “탈성장은 하나의 대안 모델이기 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대안의 모태”라고 설명했다(라투슈 세르주, 2014). 협동조합, 도시농원, 지역화폐, 마을공동체, 전환마을 운동 등이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성장중심주의의 믿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역시 교육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기후위기는 더이상 성장할 수 없는 인간 문명의 위기이며, 따라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권으로서의 환경학습권은 성장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삶의 다양한 경로와 목적을 탐색할 권리를 포함한다. 하나의 대설화에 집착하여 대량 체제로 이윤을 남기는 근대 체제를 허물고, 모두의 좋은 삶을 상상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쫓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교육이 모든 학습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5) 교육주체들의 경험과 요구의 반영

새로운 권리의 호명은 기존의 권리 개념과 권리 보장 체계가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때 필요해진다. 환경학습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권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현실 속에서 개인과 개인 그리고 사회 공동의 경험과 요구가 결집되어 만들어진 권리의 이름일 때, 그 권리는 구체화될 수 있고 실제로 요구하거나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사, 학생 및 청소년, 환경 및 환경교육 단체 활동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환경학습권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요구를 살펴보고, 환경학습권의 의미로 구체화하였다.

#### • 기후불안으로부터 벗어날 권리

면담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에 기반하여 환경학습권의 의미를 구체화한 내용을 헤드라인화 해서 표현한다면, “기후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변화하고 있는 기후 상황 속에서 환경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유는 당위성보다는 당면한 위기감인 경우를 면담 과정에서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인식은 학교 교육보다는 일상의 변화와 미디어의 영향으로, 점층적 변화보다는 단절적이고 급격한 인식 전환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TV 같은 광고를 보면 그 북극곰이 위협합니다. 도와주세요. 막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 어릴 때는 물론 이걸 보면서 나 살 때까지 괜찮지 않을까 이려고 넘겼는데 약간 나이가 약간 머리가. 아 더 커지면서라고 해야 되나. 나이가 들면서 막. 이번에 보니까 일단 미세먼지 그것도 그렇고 적도에서 막 눈이 내리고 저기 캐나다 쪽에서. 일사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런 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청소년 M)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에서 살았었는데 저희 오빠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를 온 집이라서 진짜 30년이 넘는 연식을 가진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일이 없어도 벽이 무너지는 일 외벽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계속 보면서 집이 너무 약하다, 이 집이 우리를 안 지켜 줄 수도 있겠다는 것을 계속 느끼는 상황에도 2018년 폭염을 맞이했을 때 집에 에어컨이 없고 근데 뉴스에는 누가 뇌가 익어서 죽었다. 라는 게 나오고 있고. 그게 어떤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이런 좁은 판자촌의 일이 아니라 일반 집에서도 자다가 너무 더우니깐 뇌가 (열기가) 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뇌가 익어서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런 기사들. 막 경비원 분이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 일들. 근데 너무 저희 같은 거예요. (활동가 A)

한편, 교사들은 청소년이나 활동가들에 비해 기후위기 인식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경험보다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달받고 있었고 분절적인 모습을 보였다.

제가 한 6, 7년 전부터 우리나라 동남아 아열대 되어서 이제는 대학교도 우리가 농경제학과 이런 데 가야 된다. 재배되는 시금치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애들이 막 아무도 안 들었던 말이 지. 근데 이제 요즘은 애들이 선생님 전남에서 망고가 난대요. 이런 얘기를 애들이 스스로 하면서 이 변화가 점점 애들로부터 입에서 나올 때 그런 다양한 사례를 애들 입을 통해 들을 때 이게 빨리 왔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교사 B)

하루에 한 번은 하늘을 보자 이런 말 있잖아요. 전 그 말에 엄청 공감했거든요. 내가 하늘을 정말 안 보는구나. 내가 자연이랑 정말 상관없이 사는구나. 그런데 학생들은 하늘을 진짜 자주 봐요. 옆에 산도 되게 자주 보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보면서 선생님 미세먼지 나빠졌나봐요. 산이 안 보여요. 오늘은 하늘이 뿌예요. 지금 미세먼지 어때요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해요. 사실 저는 아니 제 주변에 쌤들은 미세먼지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엄청 물어요. 감각이 다른 거 같아요. (교사 D)

글로벌 캠페인 네트워크 ‘아바즈’는 10개국에서 10,000명의 청소년(16-25세)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1년 9월 “기후 불안이란 무엇인가?”라는 제

목의 브리핑으로 공개했다. ‘아바즈’는 기후불안은 기후위기, 그리고 각국 정부가 긴박한 대응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현실에 따른 우려, 좌절감, 슬픔, 또는 분노의 감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며 모든 나라에서 전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아바즈, 2021.9.7.).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한 교육 주체들도 기후위기에 대한 공포감, 자기자신에 대한 배신감,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 이르도록 한 기성세대 혹은 실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를 표현했다.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도 존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면담자들 중 몇몇은 ‘연대’ 그리고 실천을 통한 ‘효능감’으로 무기력의 기후불안에서 벗어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는 각 개인의 고민과 실천이 각각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관계적으로 엮이고 역동을 만들어낼 때 기후불안으로부터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대가 주는 효능감은 교육에서 강조되어 오던 공동체 교육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동체 교육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기후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에서의 연대는 서로 모여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확장하고 더불어 실천을 함께 하는 공동체, ‘공공’의 조직, ‘공공’의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를 의미한다. 개인 대 개인들의 연대체, 사회 대 개인들의 연대체 간의 관계성을 체감하고 서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공공성을 지각하고 향유하는 사회적 실천이다.

### • 삶과 연결되는 환경교육을 누릴 권리

전통적인 환경교육은 생태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동·식물을 가까이 하고 자연생태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들은 지금도 꾸준히 행해진다. 애정을 가진 만큼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보호하게 하는 목적의 활동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생태감수성 향상에 집중되는 교육이 학생들의 실제 삶을 포괄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청소년 L은 폭우와 벌레가 많아지고 기온의 급작스러운 변화가 자신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힘들다’고 표현했다. 쉬고 자고 생활하는 것에 기후의 변화가 끼치는 영향과 관계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 면담자의 인식은 자연생태를 자주 접하며 만들어진 생태 감수성과는 구별된다. 전통적인 환경교육에서의 가정, 즉 자연생태계와 학생들의 삶이 점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가정이 맞지 않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폭력적인 방식이지만 관계성은 만들어졌다.

일부 면담자들은 개인적 실천이나 점층적으로 쌓아가는 감수성, 주변부터 확장되어 가는 활동 등 기존의 환경교육이 해오던 단계적 접근에 대해 오히려 거부감을 표현했다. 이는 기후위기의 위기 인식에 비해 교육계의 대응이 실제적이지 않다는 학습자로서의 비판이다. 동시에 “오감을 활용하여 자연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던 세대가 던지는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즉 기존의 생태교육이 아닌, 전 생애를 기후위기



를 겪으며 살아가는 현 세대의 경험을 토대로 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

#### •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알 권리,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

알 권리 그리고 참여하고 결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권리는 교육 주체들로부터 제기되는, 대표적인 권리 인식이다. 알 권리는 기후위기와 같이 현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않고 정보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 현실은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한다.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받아왔고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지만 지구의 온도가 4도 올라가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청소년 I의 경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에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때 절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4도 오르면은 사람도 열 나면은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사람은 해열제 먹으면 괜찮잖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4도 오른다고 큰일이 나. 3도 오른다고 큰일이 나나 뭐 이런 식으로만. (청소년 I)

이 경험을 청소년 I는 ‘배신감’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좀 더 일찍 알지 못해 더 일찍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혹은 증대된 기후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정보의 부족은 학습자로 하여금 겪지 않아도 될 죄책감과 실패감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또한 면담 참여자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보가 쉽게 가공되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더 쉽게 가공된 형태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동권리 협약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며 사회에 존재하는 정보들이 연령, 계층, 출신 지역 및 문화 등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형태로 제공되고 그를 통해 실천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교육의 기능이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알 권리의 중요성은 보다 강화될 것이며 그동안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사람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취약하여 기후위기로부터의 피해에 더 취약한 사람들의 정치권은 더 절실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다양한 지원 조치들을 보장해야 환경학습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배우는 사람으로 존엄할 권리

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사람으로서 존엄할 권리는 학생인권의 법제화에서 계속 주장되어 왔던 내용으로 새로운 권리는 아니다. 특히 다음의 두 가지 맥락에서 학생인권, 즉 배우는 사람으로서 존엄할 권리는 중요하다. 첫째, 모든 배우는 사람은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의 결정자이자 행위자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둘째, 배우는 사람으로서 존엄할 권리는 다른 권리의 바탕이 된다. 학생들과의 어떠한 소통과 합의도 없이 작물들이 수확되어 버린 청소년 P의 경험은,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에서 학생이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아. 우리 텃밭 가꾸기 하는데 그 텃밭에 심는 것도 우리 꺼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하루는 갑자기 학교에서 이미 다 수확을 해버린 거예요. 직원분들이. 애들이 다. 좀 놀랐어요. (청소년 P)

한편 청소년 I는 환경교육이 청소년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청소년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만 환경교육이 향하고 있어 학생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환경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권리의 침해가, 학생들에게는 함부로 대해지는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다고 청소년 I는 분석했다.

환경교육이 청소년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 환경 교육이 왜 청소년을 향하는지 생각해 봤을 때 학교 안 청소년한테만 향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묶어놓을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라는 공간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냥 창체 시간에 한 시간 빼 가지고 갑자기 뭘 한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향하고, 뭔가 그래서 조금 더. 그게 뭐라 할까 그 한쪽에만 집중되지 않고 더 퍼져 나가야 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묶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청소년 I)

조영선(2020)은 학생인권 담론을 소개하며 “어떤 성취를 이루든 인간적으로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자신이 그 수업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인간적 존엄과 알 권리, 교육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촉진받고 장려받을 권리 그리고 자력화(empowerment)의 권리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환경학습권에서도 이러한 권리들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 공간과 거버넌스의 변화

권리는 각각의 고유성을 가지지만 동시에 서로 의존되고 연관되어 나누어지지 않는 ‘통합성’을 가진다(조효제, 2007). 특정한 권리만을 분할하여 보장하기 어렵고 그렇게 추구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학습권 역시 마찬가지다. 환경학습권에는 학교 사회내 다른 기본권들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환경학습권에 대한 요구는 전반적인 권리 의식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테면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생태 감수성이 높아지면 학교의 시설이 만들어지고 공사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서 보다 생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더 커질 것이다. 환경학습권의 확대는 환경교육의 확대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학교의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의 과정에 생태적 관점이 반영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점이 기후위기 대응 교육체제 구축과 환경학습권의 보장이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도시를 중심에 두고 환경학습권의 보장을 고민한다면 생태환경을 자주,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환경학습권과 관련된 것으로 ‘생태 접근성’의 요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이 자연 생태계와의 관계성을 촉진하고 장려하게 된다는 것은 곧 환경에 대해 사회 구성원이 보다 많이 고민하고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환경학습권은 지역 사회로 확장된다.

일부 면담 참여자들은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전문가, 학교의 거버넌스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그리고 교직 사회에게 보다 협업적 태도를 요청하였다. 이는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이나 교사의 새로운 전문성 담론과도 연결된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전문가 협의체, 지역사회 조직 간의 네트워크와 동맹을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 실천의 기반이 될 것이며, 교사는 지속적인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양한 실천 공동체 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Geoff Whitty(2006)는 새로운 교사 전문성 상(image)을 제시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실제 현실과 교육의 관계성을 회복하여 교육 그 자체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환경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집단적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라.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환경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2021년 「교육기본법」의 개정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있었다. 법의 생태학적 전환에 터한 개헌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환경교육법」의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 방향이 학교에서의 환경학습권 보

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환경 학습권의 보장은 환경교육의 확대, 환경교육의 체계화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환경교육은 지식 중심 교육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학생들의 권리 담론의 대두 이전에도 환경교육에서는 생태소양을 함양을 위해 지식과 기능, 경험과 감정의 공유, 개인의 실천과 정치적 역량까지 포함하여 논의를 진전시켜 왔다. 또한 환경은 개인이 조심하고 보호한다고 보전되고 회복될 수 없으며, 기후위기 시대에서 연대와 협력은 어느 시대보다 더 크게 요청된다. 환경교육의 확대에서 법 제·개정 논의가 벗어나 실제로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권리의 침해 가능성을 축소하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교육에 요청되는 공동체적 실천과 연대적 역량의 강화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학생 자치, 학생인권, 학교 공동체, 학교 민주주의 등을 추구해온 법 및 제도와의 관계가 밀접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한 한 축인, 학교 사회 내 환경권의 보장 역시 법 제도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환경교육의 확대와 체계화에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법 제·개정 논의는 학교 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환경권 증진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에너지 전환 및 학교내 생태공간의 확대 등과 더불어 학교 시설과 건축 기준에 대한 질을 높여 구체적 삶에서 환경권의 보장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안을 ‘교육 법제 구성 목적의 전환: 행정 규정에서 권리 보장으로’, ‘참여의 확장: 학교와 사회의 경계를 넘어’, ‘생태교육으로의 법 제도적 전환: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먼저 현재 행정법적 성격이 강한 교육법제를 권리 보장을 위한 관점으로 선회하는 법 철학적 전환을 제안하였다. 둘째, 학내 정책 논의 및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사회 참여를 교육이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학교정보공시제도에 학교의 탄소배출량 등을 포함하고 학생에게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되는 학교의 정보 및 정보해설을 의무화하는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등 더 많은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하여 생태적 법 전환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2021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의 한계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 4. 결론

이재영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은 “환경문제가 없더라도 언제나 환경교육은 필요한 것”이며,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맥락 속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환경, 공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함께 묶어 좋은 삶을 설계하게 하는 환경교육을 이야기한다(그린포스트코리아, 2020.3.4). 즉 더 잘 살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에 교육이 필요한 것이며, 지금이 위기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 환경교육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의 삶과 성장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행위인 바, 좋은 삶을 설계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와 다른 존재 그리고 환경을 통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교육은 시대의 요청인 동시에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전환이다.

이에, 인간중심주의와 성장주의를 종식하고 자연과의 조화에 의한 좋은 삶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인간존재의 권리성을 확대하고 오히려 생태계와의 조화를 위한 국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적극적 의무와 책임을 법 제도에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은 교육법 제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환경학습권은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대두된 새로운 교육받을 권리이다. 환경학습권의 보장을 통해 모든 사람의 ‘기후불안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지향하는 교육계의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남미자, 박복선. (2021). 탈성장주의 교육의 의미와 가능성. 이슈페이퍼 2021-04. 경기도교육연구원.
- 라투슈, 세르주. (2014). 탈성장 사회 - 소비사회로부터의 탈출. 양상모 역. 서울: 오래된생각.
- 이재영. (2017).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환경부-(사)한국환경교육학회.
- 이재영. (2020). 환경학습권과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 2020 교육의 생태적 전환 포럼: 생태문명을 향한 교육 혁신. 생태전환 교육과정 레퍼런스 자료집. 교육공동체 벗
- 장 프랑수와 리오타르. (2018). 포스트모던의 조건. 유정완 역. 서울: 민음사.
- 조영선. (2020).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서울: 교육공동체 벗.
-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서울: 후마니타스.
- 조효제. (2020).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와 팬데믹을 읽다 - 탄소 사회의 종말. 경기도 파주: 21세기북스.
- 진냥. (2021). 학생인권조례는 무엇에 저항해 왔는가 - 학생인권조례로 본 인권 제도화의 역사. 오늘의교육, 62, 149-158.
- Geoff Whitty. (2006). Teacher professionalism in a new era. Paper presented at the first General Teaching Council for Northern Ireland Annual Lecture, Belfast, March 2006.
- Houser, N. O. (2009). Ecological democracy: An environmental approach to citizenship education.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7, 192-214.
- Mark T. Kissling & Jonathan T. Bell. (2020). Teaching social studies amid ecological crisis.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48(1), 1-31.
- Orr, D. W. (1991). Ecological literacy: Education and the transition to a postmodern world. New York: S.U.N.Y., Press.
- 남미자. (2021.6.10.). 학교에서 탈성장을 가르칠 수 있을까?. 생태적 지혜 미디어. 매거진 오피니언. <https://ecosophialab.com/학교에서-탈성장을-가르칠-수-있을까.> (2021.10.23. 인출)
- 그린포스트코리아. (2020.3.4.). 좋은 삶 설계하려면 환경교육이 중요하죠.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956> (2021.10.1. 인출)
- avaaz. (2021.9.7.). 브리핑: 기후불안이란 무엇인가?: 더딘 기후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https://secure.avaaz.org/campaign/kr/climate\\_anxiety\\_briefing\\_2021/?copy](https://secure.avaaz.org/campaign/kr/climate_anxiety_briefing_2021/?copy) (2021.10.7. 인출)

2021. 교육정책 자체연구보고서

---

# 블렌디드 수업의 현장 적용 방안 연구

: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위미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자

정은현 창동초등학교 교감

강주영 진영금병초등학교 교사

박성호 마산의신여자중학교 교사

문지훈 마산중앙고등학교 교사

### 연구협력관

김동기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윤은주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임미은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 기타 기여자

### 심 의 위 원

김상백 서포초등학교 교감

조윤주 창남초등학교 교사

### 도움 주신 분

강민정 신월중학교 교사

강 정 대흥초등학교 교장

박시동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사

윤태영 오봉초등학교 교사

이승광 김해신안초등학교 교사

홍성일 수남중학교 교사, 구름학교 대표

황철형 증산초등학교 교사



# 블렌디드 수업의 현장 적용 방안 연구

## :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 I. 서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 이외에도 인구학적 변동과 사회적·정서적 변화에 따른 교육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 절벽 현상은 교육생태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저출산 현상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학생의 다양성과 개별성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관점의 교육 형태를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소인수 학급으로의 교육환경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경기도교육청, 2020). 그리고 IT 기술의 발달은 모든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특히 현재 초·중·고 학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현재, 스마트폰과 5G 기반 통신망 등은 이러한 학습자에게 맞는 스마트한 교육방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교육에서의 블렌디드 수업의 정의와 범위를 설정하고, 실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원격수업 및 블렌디드 수업 경험 분석을 바탕으로 각급 학교(초·중·고) 수준에서의 블렌디드 수업 설계와 운영, 평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온라인/블렌디드 수업 인식 및 경험

현재 등교·원격수업 병행 운영이 지속됨에 따라, 2020학년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블렌디드 수업)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 주체들의 블렌디드 수업에 관한 인식과 그 경험을 분석하였다.

#### 1. 온라인/블렌디드 수업 인식과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 조사 대상: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 교사, 총 70명
- 조사 일정: 2021년 9월 7일~17일(11일)
-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유레카)
- 응답자 표집: 판단 표집
- 설문 내용: 코로나19 이전의 수업 운영 경험,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 블렌디드 수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개선사항, 미래 교육의 수업 형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 설문결과: 코로나19 종식 이후 블렌디드 수업 전망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로는 ‘학습 공백으로 인한 학습격차 발생’이 가장 많았고(51.4%), ‘온라인 교육 비중 강화’가 그 다음이었다(21.4%). 감염병 위기가 일상이 되는 상황 속 교사들이 원하는 수업 방법으로는 ‘최대한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되, 온라인 수업은 보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이 많았고(58.6%), ‘이 기회에 온라인 수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였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블렌디드 수업을 전망함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이전의 대면 수업 방식으로 전면 전환되고, 팬데믹 시기에 부분적으로 비등교/온라인 수업 될 듯하다’는 의견이 58.6%였고, 코로나19의 일상화(장기화)와 관계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평가 방법 강화될 것이다’는 의견도 40.0%로 높았다.

즉, 교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블렌디드 수업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업과 평가 방법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최대한 대면 수업 위주로 수업을 하겠다’는 블렌디드 수업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과 ‘온라인 수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이 비슷한 비율로 공존하고 있었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블렌디드 수업 운영 선호도는 긍정적인 비율이 높았는데(60.0%),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능력과 환경에 따른 학업 격차 심화’, ‘역량 부족, 피드백의 어려움 등 효율성 떨어짐’, ‘오프라인에서의 협동 선호’,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 주도성 부족’, ‘학부모의 학습 안내 부담감’ 등의 이유로 선호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었다. 현재 교실 및 학교 상황에서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는 ‘가능한 대면 수업 확대 및 교육 대상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24.3%),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오픈 소스형 교육 콘텐츠(플랫폼 개발 및 공유)’(20.0%), ‘디지털 환경을 접목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개발’(20.0%) 등이 있었다. 즉, 대면 수업을 주로 하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실시해서 학습격차를 해소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수 설계나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새로운 위기 대응을 위한 경남교육의 중점 정책으로는 ‘학습격차/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25.7%), ‘감염병에 취약한 과밀학급, 과대 학교 해소’(21.4%) 등이 있었고, 학생 맞춤형 수업 혁신을 위한 교실 수업 전환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점으로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블렌디드 수업 내실화’(27.1%), ‘무선인터넷망, 스마트기기 보급 등 미래형 수업환경 체제 구축’(20.0%) 등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블렌디드 수업을 수업 혁신과 미래형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의 학교 및 교실 상황에서는 블렌디드 수업의 장점이 발휘되는데 한계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를 위해 온라인 수업 환경을 구축하고, 블렌디드 수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 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교사들의 블렌디드 수업 경험에 대한 면담 조사

- 면담 일정: 2021년 5월~7월
- 면담 방법: 개별 심층 인터뷰 및 그룹 인터뷰
- 면담 대상: 경상남도 초·중·고등학교 교사, 총 16명
  -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 9명, 중학교 교사 3명, 고등학교 교사 4명으로 구성함.
  - 교직 경력으로는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부터 20년 이상의 고경력 교사로 다양하게 구성
  - 온라인 수업 및 에듀테크 활용 정도에 있어서도 코로나19 이전부터 활발하게 관련 연구회 활동이나 수업을 운영하였던 교사부터 코로나19 이전에는 전혀 경험이 없던 교사로 구성
- 면담내용: 코로나19 상황 이전 수업 형태,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수업 운영 경험,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인식 및 전망, 온라인/블렌디드 수업 연구회 활동
- 면담결과: 블렌디드 수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개선 방안

온라인 개학 초반에는 짧은 시간 안에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야 해서, 대다수 교사들이 수업 운영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고민이 많았고 힘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도 PC나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학습 상황을 준비시키는 것도 어려웠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성실하게 준비했는데, 수업 도구가 될 수 있는 어플, 플랫폼 등을 계속해서 찾고 연구하기도 하고,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동료 선생님들께 안내를 드리거나 개발된 온라인 수업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어려웠던 점으로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다양해서 학교 실정이나 학년 수준에 맞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정하는 것이 어려웠고, 온라인 개학 초반에 플랫폼이 불안정화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이나 자기관리 역량, 학부모의 학습 조력 정도에 따라 학습격차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교사들은 블렌디드 수업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습보완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에듀테크를 활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피드백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았다. ‘간단한 퀴즈로 형성평가를 진행한다거나 오답을 기록한 학생이 누구인지, 또 오답 내용까지 바로 알 수 있어서 실시간으로 오개념을 지도하거나 바로바로 피드백하는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들이 블렌디드 수업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교실 수업

에 비해 온라인 수업은 준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기계 조작이나 어플 설치 등과 같이 수업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내용설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응답하였다. 또 학생들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온라인 수업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 해 줘야 한다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의 블렌디드 수업 운영 역량의 편차가 크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블렌디드 수업이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교사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연습의 시간과 연습 여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전 교실의 무선 인터넷망(기가급) 구축, 현재 교실 컴퓨터 및 교사가 사용하는 노트북의 고사양화, 현재 진행 중인 아이톡톡 플랫폼 안정화, 1교 1~2인의 전문요원(기기 관리, 온라인 수업 플랫폼 구축 등) 양성을 통한 학교 자체의 온라인 수업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의 온라인 수업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준과 종류의 연수가 개설되어야 하며, 배움 중심수업의 다양한 수업 모델들을 에듀테크 및 스마트 수업으로 전환해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에게 공유되어야 하고, 블렌디드 수업 시 평가 도구의 개발과 온라인 에서도 학생의 흥미가 지속되고 집중도를 끌어 올리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 III. 수업혁신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 운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온라인 수업을 일컫는 다양한 용어가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수업', '비대면 수업', 그리고 심지어 기존에 조금은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던 '블렌디드 러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었는데, 이는 학교 현장에 생겼던 혼란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다.

'블렌디드 러닝/블렌디드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을 '학생 중심' 혹은 '배움 중심'으로 설계하고 진행하더라도, 그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결과물(산출물, 학업성취 등)에 대해 제대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거나 혹은 그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교-수-평-기 일체화나 교육과정의 재구성처럼 교사 개인이 수업 과정을 재편성하고 교실 수업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활동을 권장하고 많은 교사들이 실천하고 있지만, 평가와 기록에 대해서는 많은 교사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블렌디드 수업 상황에서도 '평가와 기록에 따른 피드백'에 대해 명확한 정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가 공감하는 평가와 기록에 따른 피드백의 중요 요소는 결국 1) 학생의 성장 과정을 평가하고, 2)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요소요소를 교사가 관찰하여야 하며, 3) 그 산출물에 대해 학생 개별화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역할을 하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피드백을 진행하는데 있어 그 과정이나 기록 보관에 편리한 점이 많다. 학생의 산출물이나 성장의 과정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도 있고,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요소들을 교사가 온라인으로 수시로 관찰할 수도 있다. 또한, 학생의 개별적인 배움의 속도와 성취에 대해 교사가 학생 개인별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개별 면담하여 한 명 한 명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은 사실 시간적으로나 교사의 체력적인 면에서 쉽지 않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제출된 학생의 산출물을 언제, 어디서든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비밀댓글 기능이나 개인 메시지 기능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교사와 학생 개인만 열람하도록 할 수도 있어 실제 교실에서 더 훨씬 깊이 있는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생의 산출물이나 평가 결과에 대해 교사가 적절한 시기에 피드백을 주고, 이 자체가 온라인 공간에 자동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기록을 활용하여 학기 말에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 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학생의 배움의 과정이 더욱 수월해지고 효율적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측면에서 온라인 수업 활동의 결과물을 일부 수행평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실시간 쌍방향형 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게 하고 이를 수행평가 수업 태도 점수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온라인 토의나 토론 시 과정 중심평가를 실시해서 토의, 토론의 참여 내용이나 횟수를 기록하고, 수행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구요. 하브루타 온라인 수업 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자유질문들을 만들고 대표 질문을 정해 자기 생각을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을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수행 평가 방안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는데, 평가는 대면 수업 내용이나 온라인 수업과 상관없는 평가를 실시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현행 지필고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해요. 현재 온라인 수업의 평가를 금지하는 이유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의 정답이 있는 지필고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양한 해답을 모색하는 논·서술형 평가 문항을 제시한다면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사라지게 될거예요. - 김현섭(2020)



## IV. 결론 및 제언

### 1. 현재 상황에서의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들

현재 블렌디드 수업 체제는 방역 차원에서 도입되다 보니 원래 블렌디드 러닝 방식대로 운영되기가 힘든 상황이다. 몇해 전부터 인기를 끌었던 플립러닝(거꾸로 교실)의 경우 학생 상호간 대면 활동 없이는 운영되기 힘들다. 일제학습은 온라인 수업이 보다 유리하고, 개별학습은 학습당 인원수가 적어야 가능하며 대면 수업에서 좀 더 수월하다. 하지만 현재는 대면활동에 제약이 있다 보니 대면 수업에서는 수행평가나 요점 정리 수준의 수업이 많이 시행되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파행적인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의 현실을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한 측면도 없지 않다.

#### 가. 학교 내 에듀테크 활용 환경 개선

코로나19 이후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디바이스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선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온라인 수업 환경 및 수업 기자재 구축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단시간에 진행될 경우, 구축 이후 학교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도 무선 인터넷 인프라가 학교에 구축이 되었지만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 제대로 된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생들에게 지급된 스마트 디바이스의 경우에도 사양이 낮아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 나. 교원의 온라인 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교육 수준 향상

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이 끝나고 나면 교사들의 디지털역량 향상 및 온라인 수업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지원이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13년 ‘스마트 교육 활성화 사업’과 같이 잠깐 반짝하다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이 사업 당시에 학교로 지급되었던 스마트 디바이스는 활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현재 해당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그때 지급된 스마트 기기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고, 이 기기들은 학교 창고 어딘가에서 이 기기들에 먼지만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은 이 스마트 디바이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용

하고 싶어도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이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수업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서 배워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 다. 에듀테크 지원센터 및 학교 자체 지원 매니저 채용

학교 현장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및 온라인 수업 인프라에 대해 교사들이 관리가 힘들어 정보 관련 업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 교육청에서 ‘에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에 ‘스마트 매니저’를 채용하여 교사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2.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기대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온라인 수업을 미래 교육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 기존 오프라인 수업에 온라인 수업과 에듀테크 등이 더해지면 개별 학습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을 합친 ‘블렌디드 수업’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등 다른 교육 정책들과 연계되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면담 조사 결과 일부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발견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 강의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도록 녹화를 떠서 올려놓는다거나 온라인 수업에서 데이터로 남은 기록들을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에 활용하는 식이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내는 피드백이 이전보다 늘어나서 좋다는 교사들도 있었다. 하지만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등교수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지만 기존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누적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모든 것을 온라인 수업 탓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학습격차와 불평은 계속 될 것이며, 소위 잘하는 학생 위주의 수업은 계속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고교 학점제의 전면 실시’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등을 살펴보면 향후에도 블렌디드 수업은 지속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들이 원하는 기능은 1. 쉬운 접속, 2. 출석 기록, 수업 저장, 수업후 피드백, 3. 소모임(조별모임) 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블렌디드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었지만, 블렌디드 수업은 수업 현장을 변화시킬 방법으로 주목을 끌고 있었는데 블렌디드 수업은 단순히 수업방법의 혁신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넘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접근방식(김현섭, 2020)이기 때문이다. 즉, 블렌디드 수업 체제는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섭(2020)은 온라인 수업에서 미래 교육의 가능성을 보았는데, 온라인 수업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 기존 수업 시수를 줄일 수 있고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보았다. 온라인 수업과 대면수업에서 다루는 학습주제와 방식을 다르게 하여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디자인할 수 있는데, 대면 수업에서는 프로젝트 기반(PBL) 수업 등 다양한 대면 활동을 하고, 온라인에서는 개념학습과 보충 학습 및 심화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블렌디드 수업 방식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과감하게 운영한다면, 주 1~2회는 등교 수업 대신 가정에서 오전에 온라인 학습, 오후에는 현장 체험 활동을 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래 교육 담론에서 학습공원과 학습 조직 네트워크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데, 블렌디드 수업은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블렌디드 수업이 앞으로 향해야 할 길은 고전적인 학교 교실(대면 수업)의 모습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 학교 교실에서의 배움과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배움을 구분하고, 교사는 이러한 공간의 차이, 그리고 각 수업 방식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수업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배움’을 추구할 수 있으며, 진정한 미래 교실,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또한 블렌디드 수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 어드바이저 및 멘토링 제도이다.

첫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은 학생의 관심사와 동기, 필요,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 선택과 설계, 실행과 변화, 성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습 체계와 지원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학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은 수업과 학습 관리, 교수-학습자를 연결하고 상호 소통하며, 학습자료 공유, 과제 제출 및 평가 등의 기능이 한다. 셋째, 어드바이저 및 멘토링 제도는 교사 1명 당 약 7~10명 정도의 학생 편성이 적절하며, 매주 1회 어드바이저 교사와 1:1 회의를 실시하여 학습 설계, 실행, 평가 단계에서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 및 진로 코칭, 교육기관 및 전문가 멘토와 연결할 수 있으며, 어드바이저 교사들 간의 연합 및 협력 코칭이 가능하다. 또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학부모와 공유함으로써 학부모의 자녀 학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현섭(2020). 블렌디드 러닝 수업, 교육과정에 상상력을 입혀라. 행복한교육 2020년 7월호.



2021. 교육정책 자체연구보고서

---

# 세대 간 교직문화 경험 및 인식 차이

: 경남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의식 및  
교직활동을 중심으로

## 연구진

### 연구책임자

한미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공동연구자

김희진 설천초등학교

문경화 월영초등학교

박은미 무학초등학교

### 연구협력관

김홍재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세대 간 교직문화 경험 및 인식 차이:

## 경남 초등학교 교사의 교직의식 및 교직활동을 중심으로

### 1.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경남 초등학교 교사의 세대별 교직문화 경험 및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교사 세대 간 이해 및 협력에 기반한 교직문화 조성 방안을 탐색해보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직문화를 교직의식과 교직활동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사 세대별 교직문화 경험 및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자료와 집담회를 통한 경험적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교사의 세대 인식 및 세대별 교직의식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교직생활 속에서 적응하고 변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교사 세대별 일반적 특징 및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보기 위해 집담회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적 설문조사와 질적조사 분석을 통해 확인된 초등 교직문화의 특징 및 교사 세대 간 차이를 토대로, 교사 간 이해 및 소통에 기반한 협력적 교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2. 연구 결과

#### 1) 초등학교 교사의 세대 인식 및 세대 간 상호 인식

##### ① 세대 정체성 인식

먼저, 연구자의 주관에 의해 인위적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교사 본인이 어느 세대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연령대별 세대 정체성 인식을 알아보았다. 연령대별로 자신이 속해 있다고 여기는 세대 명칭을 살펴보면, 20대 교사는 3포(또는 N포)세대, N세대, 디지털세대, Z세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교사는 스스로를 3포(또는 N포)세대, 밀레니얼세대, N세대, IMF세대, 디지털세대로 인식하였다. 20대와 유사하게, 30대 초등학교 교사들은 2030 청년세대가 처한 경제적 상황과 정보기기(IT)에 익숙한 문화·행태적 특성을 반영한 세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교사는 X세대, IMF세대, 신세대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교사는 스스로를 86세대, 민주화세대로 인식하였으며, 60대 교사는 베이비붐세대, 86세대, 민주화세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21년 현재 교직에 있는 최고령 나이는 1959년생으로, 60대는 유신정권에서 자란 민주화 1세대의 끝 세대로 본 연구에서는 거의 386세대와 유사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초등교사들의 세대 정체성 인식 결과를 기초로 하고 또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대 용어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30대 교사를 MZ세대, 40대 교사를 X세대, 50대와 60대 교사를 86세대로 명명하고 3개의 세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② 세대 간 상호 인식 정도

세대 간 소통의 부재 및 갈등, 세대 차이의 인식은 대부분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 세대 간 상호 인식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세대별로 소통이 어렵다고 느끼는 연령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MZ세대는 50대와 60대를 소통의 어려움 대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MZ세대가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의 대부분은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86세대는 20대와 30대를 소통의 어려움 대상으로 인식하였으며, 그 가운데 20대를 더 소통의 어려움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X세대는 20대와 60대를 소통의 어려움 대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X세대에 속하는 40대 교사가 현재 학교조직 내에서 대체로 부장교사와 같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젊은세대인 MZ세대와 관리자를 포함한 50, 60대인 86세대 교원 간의 사이에 낀 세대로서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세대에 대해 소통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지목한 연령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MZ세대를 소통의 어려움 대상으로 지목한 연령대는 40대~60대에서 어느 정도 고르게 나타난 반면, X세대와 86세대를 지목한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절반 이상이었다. 이것은 현재 40대인 X세대는 50~60대가 속해 있는 윗세대인 86세대보다는 20~30대가 속해 있는 아랫세대인 MZ세대와의 소통을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X세대는 MZ세대보다 86세대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 ③ 세대 간 상호 인식 내용

집담회(FGI) 분석을 통해 각 세대에 대한 상호 인식 내용을 알아보았다. 집담회에서는 요즘 새로운 세대로 부각되고 있는 M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80년대생과 90년대생을 구분하였다. 이에 10년 단위의 출생 코호트로 세대를 구분하여 4개의 세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86세대 교사는 60년대생으로 현재 학교에서 평교사 중 최고 경력교사들이다. 86세대 교사에 대해 동료교사들은 ‘정신적·심리적 지지, 포근함, 위안, 여유’ 등과 같이 오랜 교직 경험

을 통해 86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너그러움을 통해 나타나는 특성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Z세대 교사들은 86세대 교사의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강한 확신이나 주장, 새로운 일이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 현재에 안주하려는 소극적 태도’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86세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다른 세대보다 Z세대 교사에게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세대 간 거리가 멀수록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윗사람보다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성격상 아래 세대가 위의 세대보다는 조직 내의 인간관계에 보다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윗세대의 권위주의적 태도에 아래 세대가 반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X세대 교사는 70년대생으로 윗세대인 86세대와 아랫세대인 젊은 MZ세대 사이의 긴 세대로, 학교조직 내에서는 대체로 업무 추진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X세대의 학교조직 내 주도적 역할과 관련하여 동료교사들은 ‘조율, 중재자, 열정, 열심, 서포트’ 등과 같은 업무와 관련된 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학교조직 내 역할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젊은 MZ세대 교사들이 X세대 교사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승진’과 관련하여 눈에 보이는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기대하는 바와 다르게, 관리자와 동료교사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못하는 X세대 교사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

셋째, M세대 교사는 80년대생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기 다루는 능력이나 정보탐색 능력, 수업에 대한 열정 및 수업자료 공유’ 등과 같은 측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자신의 업무 외에는 다른 사람의 업무에 관심이 없고 협조가 부족한 한마디로 ‘내 일과 남 일’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이기적인 측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M세대와 Z세대 교사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20대와 30대를 구분하였으나, 집담회에 참여한 86세대나 X세대 교사들은 20대와 30대를 ‘젊은 선생님’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20대와 30대가 자신의 세대 정체성 인식에 차이가 없어 MZ세대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명명한 것을 지지한다 할 수 있다.

넷째, Z세대 교사는 모두 90년대생으로, 동료교사들은 Z세대 교사의 ‘정보탐색 능력이나 디지털 기기 다루는 능력, 독창적 아이디어 및 창의력, 그리고 수업에 대한 열정’ 측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같은 젊은세대로서 M세대는 Z세대의 솔직한 자기표현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Z세대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많아 ‘자신이 손해 보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이기주의, 자기희생이나 봉사 정신 부족, 솔직함을 표현함에 있어 상대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M세대 교사들은 자신보다 윗세대인 86세대나 X세대 교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아래 세대인

Z세대에 대해서는 양면적으로 평가하였다. Z세대 교사들의 솔직함이 당당하고 부러운 면도 있지만, 가끔 무례함으로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다.

## 2) 교사 세대별 교직의식 분석

교사 세대별 교직의식 분석을 통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정체감과 관련하여 초등교사들은 교직선택 만족감 및 교직수행 성취감은 높고 교직이탈 욕구는 낮게 나타나, 직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MZ세대가 X세대나 86세대에 비해 교직에 대한 만족 및 교직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상대적으로 더 낮고 이탈 욕구는 더 높았으며, 현재 처한 상황에서 교사로서의 무력감이나 부담감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 또한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교사들은 세대에 상관없이 모두 ‘직업의 안정성이나 시간적 여유’ 등과 같은 보조적 보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대별로 교직 만족 요인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어,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조적 보상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고 심리적 요인에 대한 만족도는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의 불안 속에서 직업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에 비해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교직을 선택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현 MZ세대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보조적 보상 요인 중 ‘시간적 여유’와 ‘경쟁으로부터의 자유’ 요인에서 다른 세대보다 그 빈도가 높다는 것은 이를 잘 설명해준다.

셋째, 초등교사들의 교사효능감은 매우 높았으며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수업지도 효능감 및 생활지도 효능감 또한 높게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86세대와 X세대 교사가 MZ세대 교사보다 교사효능감뿐만 아니라 수업지도 및 생활지도 효능감 모두 높았다. 이는 교직경력과 교사효능감 간에는 정적인 선형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교직경력이 쌓일수록 수업이나 학생 생활지도 능력에 대한 확신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초등교사들은 교직은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직업이며 또 가르치는 일에 대한 보람 및 사회적 공헌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전문가로 인정받고 그에 부합하는 권한과 자율성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직은 단지 부분적으로 전문화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사회가 다원화되고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직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탈전문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섯째, 초등교사들은 개인주의 및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

들은 개인주의에 기반한 '제한적 협력관계를 선호'하며 동교교사와는 친밀하게 지내되 '간섭하지 않고 일정한 경계를 유지'하고자 하며, 이러한 개인주의적 성향은 MZ세대 교사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여전히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고 '불만 속의 순응'과 같이 쉽게 변화하지 않으려는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여섯째,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행정 운영 행태와 관련하여 초등교사들은 업무가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인식 정도가 낮았으며, 학년 배정이나 업무 분담에서 교사들의 실질적 요구가 반영되고 있다는 인식 정도도 높지 않게 나타났다. 특히 MZ세대 교사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업무 배분의 공정성'이나 '학년 배정 및 업무 분담에서 교사들의 요구 반영' 인식 정도가 낮았다. 학교의 형식주의적 행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교사들은 실적 위주나 형식 위주의 행정 운영과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 운영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으며, '행정업무로 인한 수업의 침해 정도'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초등교사들은 '상급 행정기관의 전시성 혹은 형식적 업무 요구'나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매우 높았다.

일곱째, 학교의 조직풍토와 관련하여 초등교사들은 학교조직 내 '민주적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다른 교사와의 '수업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유' 및 '교사협력'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갈등'은 별로 없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풍토 인식에 있어서는 세대 간 차이가 있어,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학교 내 민주적 의사소통, 수업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유, 교사협력에 대한 인식 정도는 더 낮고 교사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여덟째, 교원 지원체제와 관련하여 초등교사들은 교원연수와 같은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지원보다는 스스로의 시행착오를 통한 개인적 경험이나 선배나 동료교사로부터의 비공식적인 도움을 통해 교직사회 적응 및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상 및 승진 체제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연수나 표창 등의 기회의 공정성', '교원평가의 공정성',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과 같이 보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교직경력이 높은 86세대나 X세대가 MZ세대보다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 높았다.

### 3) 교사 세대별 교직활동 분석

초등교사의 교직활동을 교과수업, 학급경영 및 생활지도, 행정업무, 인간관계, 그리고 초등교직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학년 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교사 세대별 교직수행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및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5개 영역별로 교사 세대별 교직활동 수



행방식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교과수업

교과수업 측면에서, 86세대 교사는 오랜 교직경력 동안 다양한 학년, 다양한 성향의 학생과 학급을 맡아오면서 수업지도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여유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자신감과 여유는 그동안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랜 기간 다양한 환경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해온 경험을 통해, 이제 어떠한 아이라도 사랑으로 품으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아이들의 실제 삶과 연관된 수업을 하려고 노력한다.

X세대 교사는 교직경력이 높아질수록 수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수업 노하우를 가지게 된다. 교직 초기에는 교사의 관점에서 내가 재미있고 하고 싶은 수업을 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게 된다. 또한 X세대 교사의 수업에 대한 유연한 태도는 내 수업 방식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동료교사들과 자유롭게 수업에 대해 논의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M세대 교사들은 교직 초기에는 교과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 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치려 했다면, 이제는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적절히 가려내어 학생들이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본다. 즉 신규교사 시절의 무조건적 열정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차츰 현실적 상황과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이나 수업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다.

Z세대 교사들은 교대에서 수업 전문성을 기르고자 준비해 온 만큼 교과지도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가르치는 일은 교사 전문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 생각하고 누구보다 잘 가르치고 싶은 목표와 열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수업을 향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러나 교직 경력이 조금씩 쌓이면서, 자신이 하고 싶고 완벽하게 짜인 수업 틀에 맞춰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던 수업 방식에서 차츰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소통하는 수업을 하기 시작한다.

### ② 학급경영 및 생활지도

학급경영 및 생활지도 측면에서, 86세대 교사는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를 믿고 기다려 주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과거에는 아이들을 예의 바르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역할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끌고 나갔다면, 지금은 아이의 모습 속에서 교사가 중재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그 부분을 개입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부분의 기혼 여교사들은 육아 경험이 교사로서의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듯, 학생들도 교사 뜻대로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어느덧 50대 중후반이 된 86세대 교사에게는 이제 가르치는 학생이 자녀를 넘어 손자로까지 확장되어 모든 아이를 예쁘게 그리고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X세대 교사는 오랜 교직 경험을 통해 축적된 그들 나름의 일관성 있는 학급운영 방식이나 생활지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X세대 교사도 86세대 교사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자신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엄격했다면 이제는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어떠한 아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M세대 교사는 아이를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어느 정도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과거에 비해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아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조금씩 갖게 되지만, M세대 교사에게 학급경영이나 생활지도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며 배워가는 과정이다.

교대를 졸업하고 교직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Z세대 교사들에게 학급경영이나 생활지도는 교대에서 배우지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어려운 과제이다. 신규 때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교사의 제일 중요한 직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급운영이나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하며, 특히 모범생으로 자랐던 Z세대 교사들은 자신의 기준과 다른 학생들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말대꾸하고 버릇없게 구는 것과 같은 아이들의 행동이 그들에게는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또한 아동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어디까지로 정해야 하는지, 아동의 자율성 존중과 통제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한다. Z세대 교사들은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잘해주면 아이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열정을 쏟아붓지만, 자신의 노력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된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한 실패 경험을 통해 Z세대 교사들은 자신에게 맞는 학급운영방식이나 생활지도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 ③ 행정업무

행정업무 측면에서, 86세대 교사들은 오랜 교직생활을 통해 학교의 전반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해본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86세대 교사는 어떠한 업무를 맡아도 부담 없이 잘 수행할 수 있다.

X세대 교사들은 대부분 업무 수행의 경험이 많아 자신에게 주어진 학교의 행정업무를 잘 수행한다. 또한 교직 경험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 외에 행정업무도 교사가 해야 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업무 중심적으로 변해간다. 그러다 보니 업무를 처리할

때도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후배교사들에게도 문제가 없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함을 강조하게 된다.

M세대 교사들은 매년 달라지는 업무, 명확하지 않은 업무분장 및 행정실과의 경계 불분명 등으로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학교를 옮길 때마다 달라지는 업무분장은 매년 새로운 학습을 요구하고 또 교직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M세대 교사가 신규 때처럼 동료교사에게 일을 물어서 진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X세대 교사가 학교조직의 일원으로 행정업무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업무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비해 M세대 교사는 여전히 학교 업무보다 가르치는 일이 우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M세대 교사와 마찬가지로, Z세대 교사들 또한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로서 수업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업무 인수인계, 매년 조금씩 바뀌는 업무 내용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이 많다. 그러나 업무처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Z세대 교사들은 업무 자체가 그들이 판단하기에 ‘너무나 사소한 일이라 선배한테 묻기가 눈치가 보인다’, ‘뭔가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다’, ‘내 업무인데 누구한테 묻는다는 것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다’, ‘물으러 가는 상황 자체가 불편하다’ 등 다양한 이유로 결국 선배교사에게 묻기보다는 인터넷 카페나 동기를 활용하여 업무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 ④ 인간관계

인간관계 측면에서, 86세대 교사들은 동료교사들보다는 학생, 특히 고학년 학생과 관리자, 학교 직원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먼저, 학생과의 관계에 있어 86세대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과의 나이 차가 커짐에 따라 ‘나이 똥’을 의식하게 된다. ‘나이 든 교사를 애들이 싫어한다’라는 86세대 교사의 자격지심은 고학년 학생과의 관계를 어렵게 한다. 또한 학교조직 내 고경력 교사로서 86세대 교사들은 동료교사들 간의 갈등보다는 관리자나 학교 행정실 직원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느낀다. 특히 학교경영 면에서 관리자가 성과 위주의 업적을 원하거나 학교나 교사의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본인의 욕심이 앞설 때, 86세대 교사들은 관리자와 동료교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줘야 하고 또 주변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기대한다.

X세대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 내 중역을 맡고 있으면서, 학교의 ‘최전방’에서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조직 내 위치 및 역할로 인해 X세대 교사들은 관리자나 행정실 직원들을 포함한 학교 내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많게 된다. 이런 중간자적 입장에서, X세대 교사들은 관리자와 동료교사 사이, 교사와 직원 사이에서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소통 및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M세대 교사들은 차츰 교직 경력이 쌓이고 동료교사들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내야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 수행 자체보다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동료와의 관계가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소위 교직생활에서 어느 정도 짬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M세대 교사들에게 동료 및 선배교사와의 관계는 미묘하고 어려운 일이다.

교직 경력이 많지 않은 Z세대 교사들은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와의 관계 모두가 아직은 어렵다. Z세대 교사들은 학생과의 나이 차가 많지 않아 학생들과 친구같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학생들을 통제하면서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아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Z세대 교사들은 학부모보다 어렵고 자녀 양육의 경험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 상담이나 응대에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 교직 경험이 많지 않은 이들에게 학부모와의 관계는 아직 어렵고 불편할 뿐이다.

### ⑤ 동학년 활동

세대에 상관없이 초등학교에서 동학년 활동은 개성보다는 동학년 교사 전체의 조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 교과를 담당해야 하고 또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도 많기 때문에 모든 교과를 다 내실 있게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동학년 교사끼리 수업 준비를 공유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이에 동학년 교사 간의 수업자료나 학습 준비물 등과 같은 수업 관련 정보 나눔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들의 동학년 간의 정보 교류는 교사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나만 튼다거나 해서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한 그래서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측면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나만 튼다면 부담이 된다’는 방어적 속성은 초등교사들의 보수주의적 성향 및 보수적 교직문화를 잘 드러내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 3. 결론 및 논의

양적, 질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각 교사 세대는 다르다고 생각한 것보다는 같고, 같다고 생각한 것보다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교사 세대 간에는 교직생활을 통해 학교조직 속에서 적응하고 변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형성된 공통적 특징이 있는 반면, 그 세대만이 보이는 고유한 특징 및 경향도 존재한다.

특히 교육활동과 관련된 경험 및 변화 양상 측면에서 교사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직 생애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교사의 발달과정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자신이 지닌 이상적인 학생상을 아이들에게 기대하고 이끌어가고자 하지만, 실제 교실

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상적인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 교사는 자신의 관점에서 아이를 바라보고 상처받는 단계에서 조금씩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한 깨달음은 경력이 많은 86세대나 X세대 교사가 자신의 신규시절이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나 MZ세대와 같이 아직 경력이 많지 않은 저경력 교사가 자신의 최근에 부딪혔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듯, 교직 경력이 쌓이고 학교조직에서의 역할 및 교육활동에서의 관점이 시간에 따라 차츰 변화되면서 교사들은 세대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사’가 되어 가는 것이다.

반면, 기성세대에 속하는 86세대나 X세대와 젊은 MZ세대 교사 간의 구별되는 특징도 발견되었다. 무엇보다 MZ세대 교사들은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 소위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중시하고, 성공보다는 현재(Now and Here)의 개인 삶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만큼, 선배교사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자신이 검색한 정보에 의존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성도 나타났다. 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멘토링이나 코칭을 통해 교사로서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과거처럼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피드백은 거부한다. 즉 젊은 MZ세대는 성장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인정의 욕구 또한 강하다. 따라서 환경 및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교직에 입직하는 교사들의 모습이 점점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들 세대에 알맞은 적절한 대응 및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을 종합하여 협력적 교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협력적 교직문화 조성 방안은 교사 세대 간 이해 및 소통을 위한 방안과 교사협력을 위한 교직문화 개선 방안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교사 세대 간 이해 및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① 교사 세대별 특징 이해 및 상호 간의 소통 노력, ② 자유로운 소통 및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학교조직 풍토 조성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교사협력을 위한 교직문화 개선 방안으로 ① 관리자의 인식 개선 및 민주적인 학교 운영, ② 형식적인 행정업무 경감 및 공정한 업무 배분, ③ 개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교직문화 개선, ④ 적극적 정보 교류 및 협력에 기반한 동학년 문화 조성, ⑤ 교사의 자발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는 교원 지원제도 마련, ⑥ 교사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연수 지원을 제안하였다.

2021. 교육정책 자체연구보고서

---

#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교무행정원 연수체계 개발 연구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연홍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공동연구자

박순걸 밀주초등학교

김재범 백동초등학교

김순천 양산중학교

강동선 김해분성고등학교

박영미 충무초등학교

### 연구협력관

조래은 경상남도교육청

안선희 경상남도교육청

이성주 경상남도교육청

강은주 경상남도교육청

### 자문위원

심규철 창원예술학교

박경희 경남대학교





#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교무행정원 연수체계 개발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 본질 회복」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학교업무정상화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도 2017년까지는 ‘행정업무 경감’, ‘행정업무 적정화’ 등으로, 2018년 이후는 ‘학교업무적정화’로, 2021년에는 ‘교육활동 전념여건 조성’으로 정책을 진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각종 행사의 교육과정 반영, 게시공문 및 공람 공문 수시 열람 등에서 효과를 보였으며, 정책 만족도 또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경상남도교육청, 2021).

교육 현장에서는 활동 중심 수업, 과정 중심 평가 등 교육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원 행정업무 부담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은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 행정업무 다이어트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요구되는 실정이다.

해마다 교무행정지원인력은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정연홍 외(2020)는 정책추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무행정원의 책무성과 전문성 향상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무행정원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교무행정원 연수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 과제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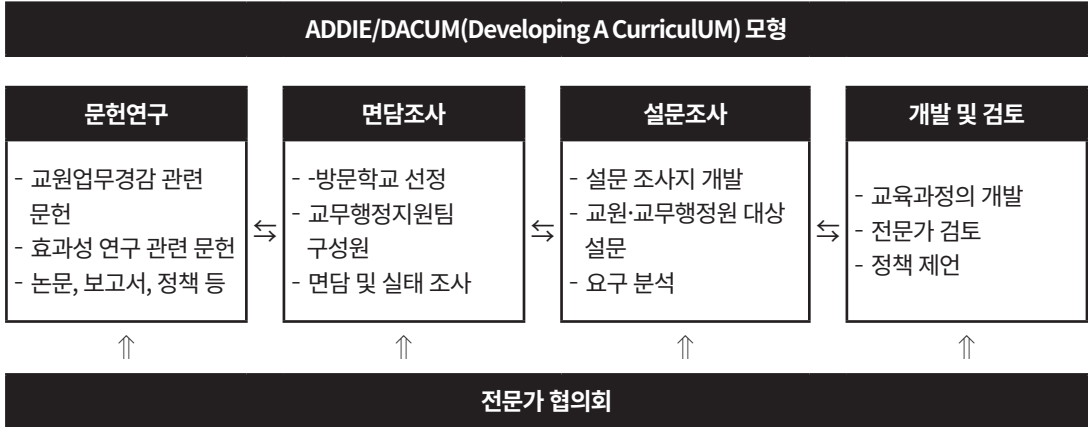
첫째, 시도교육청별 학교업무적정화 정책 및 현행 교무행정원 연수체계 검토

둘째, 유형(학교급, 특성 등)별 교무행정원 필요역량 요구분석

셋째, 교무행정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체계 개발

## 2. 연구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문헌연구, 면담조사를 통한 질적연구,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b>가.</b>	<b>문헌연구</b>	1) 교원업무경감 정책, 학교업무적정화 및 선도학교 운영 계획 등 분석 2) 학교업무적정화 관련 논문, 보고서, 효과성 분석 및 척도 관련 연구 검토												
<b>나.</b>	<b>면담조사</b>	1) 학교 방문 실태조사 및 요구 분석 2) 교무행정원 및 교원 3) 면담조사 일정: 2021. 04. 14. ~ 2021. 04. 28.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대상</th> <th style="width: 30%;">설문 내용</th> <th style="width: 20%;">조사시기</th> <th style="width: 35%;">대상학교</th> </tr> </thead> <tbody> <tr> <td>교직원</td> <td>교무행정 인식, 필요 역량 등</td> <td>5월 17일 ~ 21일</td> <td>경상남도 내 전학교</td> </tr> <tr> <td>교무행정원</td> <td>교무행정 인식, 필요 역량 등</td> <td>5월 17일 ~ 21일</td> <td>경상남도 내 전학교</td> </tr> </tbody> </table>	대상	설문 내용	조사시기	대상학교	교직원	교무행정 인식, 필요 역량 등	5월 17일 ~ 21일	경상남도 내 전학교	교무행정원	교무행정 인식, 필요 역량 등	5월 17일 ~ 21일	경상남도 내 전학교
대상	설문 내용	조사시기	대상학교											
교직원	교무행정 인식, 필요 역량 등	5월 17일 ~ 21일	경상남도 내 전학교											
교무행정원	교무행정 인식, 필요 역량 등	5월 17일 ~ 21일	경상남도 내 전학교											
<b>다.</b>	<b>설문조사</b>	1) 설문 문항 개발 2) 설문: F검정, t검정												

**[ADDIE/DACUM 방법론 - 교무행정원 역량 향상 연수체계 개발]**

<b>라.</b>	<b>전문가 협의회</b>	1) 연구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 2) 전문가 협의회 개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협의회</th> <th style="width: 15%;">일시</th> <th style="width: 15%;">장소</th> <th style="width: 40%;">내용</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차</td> <td>2021. 02. 24.</td> <td>연구정보원</td> <td>연구방향, 설문내용 검토</td> <td></td> </tr> <tr> <td>2차</td> <td>2021. 07. 27.</td> <td>교장실</td> <td>설문분석 결과 검토 및 방향 설정</td> <td>창원예술학교</td> </tr> <tr> <td>3차</td> <td>2021. 09. 29.</td> <td>교수연구실</td> <td>개발된 교육과정 검토</td> <td>경남대학교</td> </tr> </tbody> </table>	협의회	일시	장소	내용	비고	1차	2021. 02. 24.	연구정보원	연구방향, 설문내용 검토		2차	2021. 07. 27.	교장실	설문분석 결과 검토 및 방향 설정	창원예술학교	3차	2021. 09. 29.	교수연구실	개발된 교육과정 검토	경남대학교
협의회	일시	장소	내용	비고																		
1차	2021. 02. 24.	연구정보원	연구방향, 설문내용 검토																			
2차	2021. 07. 27.	교장실	설문분석 결과 검토 및 방향 설정	창원예술학교																		
3차	2021. 09. 29.	교수연구실	개발된 교육과정 검토	경남대학교																		

### 3. 연구의 결과

이상과 같이 문헌연구, 면담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연구 시사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교무행정원 연수체계를 개발하였다. 또한, 연수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의 모든 과정과 검토 과정에서 교무행정원이 참여하였다.

#### 가. 요구분석 및 적용 시사점 도출

구분	내용	적용 시사점
문헌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활동 중심 지원체제 구축 도움자료(경남교육청, 2021)</li> <li>- 요구도가 높은 교무행정원 역량 제시(최병옥 외, 2020) ; 의사소통 역량, 정보처리 역량, 공동체(조직이해) 역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움자료 제시 업무영역 21개, 교무행정원 3대 요구역량 조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교육개발원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격연수: 소양, IT 위주 10강좌</li> <li>- 자율연수: Google활용, 공문서 작성/처리, 학교교육과정 이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교육과정 이해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교육청별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연수: 2~6일, 2일(7곳), 3일(2곳), 5일(2곳), 6일(1곳)</li> <li>- 생애주기별: 1~4일, 신규임용자(6곳), 퇴직자(1곳), 생애(3곳)</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 6일 실시, 전국 최장</li> <li>- 신규임용자 교육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별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방법: 학기 중, 5일, 집합연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가치, 수요자 요구 반영</li> <li>- 공통연수, 선택연수 조화</li> </ul>

구분	내용	적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 운영 방향</li> <li>- (IT 등)기능 습득과 함께 교무업무의 흐름 이해 중요</li> <li>- 학교의 상황과 맥락 이해 중요</li> <li>- 불필요한 과목 반복 연수 지양(예. 기록물 관리)</li> <li>- 지속적 업무: 매뉴얼 제공 + 연수 실시</li> <li>- 힐링보다는 실무연수 확대 및 반복</li> <li>- 연수체계 이원화: 일반(공통) 연수 + 선택 연수</li> <li>- 맞춤형 연수</li> <li>- (전문가 초청)컨설팅 연수, 전임자(멘토) 연수 도입</li> <li>- 소그룹 연수 활성화(별도 연수)</li> <li>- 온라인 직무연수도 좋은 방안</li> <li>- 행정원도 방과후학교 연수에, 행정원 연수에 실무원도 포함</li> <li>- 연수 이수 시스템에 직접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연수 이원화</li> <li>;공통연수</li> <li>(정책가치, 공동체 역량 등)</li> <li>;학교급별 연수 도입</li> <li>(학교급별 교육과정)</li> </ul>
<p>면담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의 내용</li> <li>- K-에듀파인, 나이스 연수 상세히</li> <li>- 학교별로 다른 결재체제 이해와 거기에 따른 업무 대응</li> <li>- 업무의 성격(단독, 협조) 이해와 거기에 대한 대응</li> <li>- 공문서 작성과 처리의 이해</li> <li>- 정보업무: PC관리 및 유지보수(HW, SW), 전산망, 보안 등</li> <li>-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은 집중 연수</li> <li>- 정보화 연수에 아이톡톡 포함</li> <li>- 엑셀, 파워포인트 등</li> <li>- (민원)전화 응대</li> <li>- 교무행정원 증원 시 행정원 간 의사소통, 공동체 의식 등</li> <li>- 온라인 힐링연수 별로, 안전체험관, 군부대 투어 좋았음</li> <li>- (기존)교사에서 → (현재)행정원으로 이관된 업무 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시스템, 정보, 소프트웨어 등</li> <li>정보처리 역량 강화</li> <li>- 민원 응대, 행정원 간 또는 조직 내부의</li> <li>의사소통</li> <li>- 공동체 의식 함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의 시기</li> <li>- 방학 때 실시하면 좋겠음</li> <li>- 학기 중 연수를 방학에 하되, 봄방학은 제외하면 좋겠음</li> <li>- 방학이나 주말 연수가 좋겠음</li> <li>- 업무 관련성 있는 연수는 학기 중, 힐링연수는 방학이 좋음</li> <li>- 교무행정원이 두 명이면 교대로 할 수 있도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 반영, 결과 도출</li> </ul>

구분	내용	적용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수 요구분석</li> <li>IPA요구도 순위와 교무행정원 연수 희망 순위를 조사함</li> <li>#1~#36 교수 요목 중 연수 우선순위가 높은 연수 요목 추출</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교무행정원 연수 요목</th> <th>IPA 순위</th> <th colspan="2">연수 희망 순위</th> </tr> </thead> <tbody> <tr><td>#01</td><td>자기이해</td><td>3순위</td><td>10위</td><td>3G</td></tr> <tr><td>#02</td><td>대인관계 스킬</td><td>1순위</td><td>11위</td><td>3G</td></tr> <tr><td>#03</td><td>팀워크 형성 기술</td><td>1순위</td><td>1위</td><td>1G</td></tr> <tr><td>#04</td><td>교무행정 민원업무</td><td>1순위</td><td>12위</td><td>3G</td></tr> <tr><td>#06</td><td>홈페이지 관리</td><td>1순위</td><td>16위</td><td>4G</td></tr> <tr><td>#08</td><td>공문서 작성 관리</td><td>1순위</td><td>7위</td><td>2G</td></tr> <tr><td>#09</td><td>K-에듀파인 업무관리</td><td>1순위</td><td>2위</td><td>1G</td></tr> <tr><td>#10</td><td>K-에듀파인 회계관리</td><td>1순위</td><td>6위</td><td>2G</td></tr> <tr><td>#11</td><td>나이스 이해와 활용</td><td>1순위</td><td>4위</td><td>1G</td></tr> <tr><td>#12</td><td>컴퓨터 활용</td><td>1순위</td><td>5위</td><td>2G</td></tr> <tr><td>#13</td><td>클라우드 협업 활용</td><td>1순위</td><td>10위</td><td>3G</td></tr> <tr><td>#14</td><td>교무행정원의 역할 이해</td><td>1순위</td><td>15위</td><td>4G</td></tr> <tr><td>#22</td><td>건강과 행복</td><td>4순위</td><td>8위</td><td>2G</td></tr> <tr><td>#25</td><td>인사와 복무</td><td>1순위</td><td>9위</td><td>3G</td></tr> <tr><td>#29</td><td>사진 및 동영상 편집 기술</td><td>3순위</td><td>14위</td><td>4G</td></tr> <tr><td>#35</td><td>지역문화 체험</td><td>4순위</td><td>13위</td><td>4G</td></tr> <tr><td>#36</td><td>힐링체험</td><td>4순위</td><td>3위</td><td>1G</td></tr> </tbody> </table>	번호	교무행정원 연수 요목	IPA 순위	연수 희망 순위		#01	자기이해	3순위	10위	3G	#02	대인관계 스킬	1순위	11위	3G	#03	팀워크 형성 기술	1순위	1위	1G	#04	교무행정 민원업무	1순위	12위	3G	#06	홈페이지 관리	1순위	16위	4G	#08	공문서 작성 관리	1순위	7위	2G	#09	K-에듀파인 업무관리	1순위	2위	1G	#10	K-에듀파인 회계관리	1순위	6위	2G	#11	나이스 이해와 활용	1순위	4위	1G	#12	컴퓨터 활용	1순위	5위	2G	#13	클라우드 협업 활용	1순위	10위	3G	#14	교무행정원의 역할 이해	1순위	15위	4G	#22	건강과 행복	4순위	8위	2G	#25	인사와 복무	1순위	9위	3G	#29	사진 및 동영상 편집 기술	3순위	14위	4G	#35	지역문화 체험	4순위	13위	4G	#36	힐링체험	4순위	3위	1G	<p>* 연수 요목 우선순위 재설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희망</th> <th colspan="2">가</th> <th colspan="2">나</th> </tr> <tr> <th>1G</th> <th>2G</th> <th>3G</th> <th>4G</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IPA</td> <td>1순</td> <td>3,9,11</td> <td>8,10,12</td> <td>2,4,13,25</td> </tr> <tr> <td>2순</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A</td> <td>3순</td> <td></td> <td>1</td> <td>29</td> </tr> <tr> <td>4순</td> <td>36</td> <td>22</td> <td>35</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가(우선순위-1) ; #3, 8, 9, 10, 11, 12</li> <li>- A-나(우선순위-2) ; #2, 4, 6, 13, 14, 25</li> <li>- B-가(우선순위-3) ; #22, 36</li> <li>- B-나(우선순위-4) ; #1, 29, 35</li> </ul>	희망	가		나		1G	2G	3G	4G	IPA	1순	3,9,11	8,10,12	2,4,13,25	2순				A	3순		1	29	4순	36	22	35
번호	교무행정원 연수 요목	IPA 순위	연수 희망 순위																																																																																																																				
#01	자기이해	3순위	10위	3G																																																																																																																			
#02	대인관계 스킬	1순위	11위	3G																																																																																																																			
#03	팀워크 형성 기술	1순위	1위	1G																																																																																																																			
#04	교무행정 민원업무	1순위	12위	3G																																																																																																																			
#06	홈페이지 관리	1순위	16위	4G																																																																																																																			
#08	공문서 작성 관리	1순위	7위	2G																																																																																																																			
#09	K-에듀파인 업무관리	1순위	2위	1G																																																																																																																			
#10	K-에듀파인 회계관리	1순위	6위	2G																																																																																																																			
#11	나이스 이해와 활용	1순위	4위	1G																																																																																																																			
#12	컴퓨터 활용	1순위	5위	2G																																																																																																																			
#13	클라우드 협업 활용	1순위	10위	3G																																																																																																																			
#14	교무행정원의 역할 이해	1순위	15위	4G																																																																																																																			
#22	건강과 행복	4순위	8위	2G																																																																																																																			
#25	인사와 복무	1순위	9위	3G																																																																																																																			
#29	사진 및 동영상 편집 기술	3순위	14위	4G																																																																																																																			
#35	지역문화 체험	4순위	13위	4G																																																																																																																			
#36	힐링체험	4순위	3위	1G																																																																																																																			
희망	가		나																																																																																																																				
	1G	2G	3G	4G																																																																																																																			
IPA	1순	3,9,11	8,10,12	2,4,13,25																																																																																																																			
	2순																																																																																																																						
A	3순		1	29																																																																																																																			
	4순	36	22	35																																																																																																																			
설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망 연수 시기</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3~5월</th> <th>여름 방학 전</th> <th>여름 방학 중</th> <th>~10월</th> <th>~겨울 방학전</th> <th>~겨울 방학중</th> <th>시기 무관</th> </tr> </thead> <tbody> <tr> <td>순위</td> <td>3</td> <td>4</td> <td>1</td> <td>6</td> <td>5</td> <td>2</td> <td>7</td> </tr> </tbody> </table>	구분	3~5월	여름 방학 전	여름 방학 중	~10월	~겨울 방학전	~겨울 방학중	시기 무관	순위	3	4	1	6	5	2	7	<p>* 연수 시기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여름방학</li> <li>- 2순위: 겨울방학</li> <li>- 3순위: 3~5월</li> </ul>																																																																																																					
구분	3~5월	여름 방학 전	여름 방학 중	~10월	~겨울 방학전	~겨울 방학중	시기 무관																																																																																																																
순위	3	4	1	6	5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수 제안 의견(서술형)</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교원</th> <th>교무행정원</th> </tr> </thead> <tbody> <tr> <td>초</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 위주 연수</li> <li>- 주체로서의 역할 인식</li> <li>- 명확한 업무 분장 두 입장 고려</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형태의 다양화</li> <li>- 다양한 자율연수</li> <li>- 명확한 업무 구분</li> </ul> </td> </tr> <tr> <td>중</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정책을 공유하는 연수</li> <li>- 자유학년제, 행복/연구학교 이해</li> <li>- 교무행정 실무</li> <li>- 정보처리기술</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인 실무 교육</li> <li>- 기초-온라인, 심화-집합</li> <li>- 교육철학 공유, 정책방향 이해</li> <li>- 연수 형태 다양화</li> <li>- 업무 파악- 행정원 간 소통</li> <li>- 공동체 함양- 체험, 힐링 연수</li> </ul> </td> </tr> <tr> <td>고</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무행정원 역할, 책무 이해</li> <li>- 표준안 이해도 높이는 과정 개설</li> <li>- 구성원 간 소통 소양 증진 연수</li> <li>- 교무행정 실무 전문성 신장</li> <li>- 학사 및 교육과정 전반 이해</li> <li>- 연수 시기는 방학-공백 최소화</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안에 근거한 업무 분장</li> <li>- 교무행정원 간 정보교류 시간</li> <li>- 교무행정 실무 전문성 신장</li> <li>- 급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li> <li>- 교무업무별 처리 방법</li> <li>- 연수 시기- 전보 있기 전</li> <li>- 스트레스 관리- 체험, 힐링 연수</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교원	교무행정원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 위주 연수</li> <li>- 주체로서의 역할 인식</li> <li>- 명확한 업무 분장 두 입장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형태의 다양화</li> <li>- 다양한 자율연수</li> <li>- 명확한 업무 구분</li> </ul>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정책을 공유하는 연수</li> <li>- 자유학년제, 행복/연구학교 이해</li> <li>- 교무행정 실무</li> <li>- 정보처리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인 실무 교육</li> <li>- 기초-온라인, 심화-집합</li> <li>- 교육철학 공유, 정책방향 이해</li> <li>- 연수 형태 다양화</li> <li>- 업무 파악- 행정원 간 소통</li> <li>- 공동체 함양- 체험, 힐링 연수</li> </ul>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무행정원 역할, 책무 이해</li> <li>- 표준안 이해도 높이는 과정 개설</li> <li>- 구성원 간 소통 소양 증진 연수</li> <li>- 교무행정 실무 전문성 신장</li> <li>- 학사 및 교육과정 전반 이해</li> <li>- 연수 시기는 방학-공백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안에 근거한 업무 분장</li> <li>- 교무행정원 간 정보교류 시간</li> <li>- 교무행정 실무 전문성 신장</li> <li>- 급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li> <li>- 교무업무별 처리 방법</li> <li>- 연수 시기- 전보 있기 전</li> <li>- 스트레스 관리- 체험, 힐링 연수</li> </ul>	<p>* 제안 분석을 통한 연수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철학, 정책 방향 이해</li> <li>- 교무행정원 역할, 책무 이해</li> <li>-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등의 이해</li> <li>- 연수형태 다양화</li> <li>- 실무 전문성 신장</li> <li>- 소통 활성화</li> <li>- 공동체 의식 함양</li> <li>- 교무행정업무 범위 및 처리 방법</li> </ul>																																																																																																									
구분	교원	교무행정원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 위주 연수</li> <li>- 주체로서의 역할 인식</li> <li>- 명확한 업무 분장 두 입장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형태의 다양화</li> <li>- 다양한 자율연수</li> <li>- 명확한 업무 구분</li> </ul>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정책을 공유하는 연수</li> <li>- 자유학년제, 행복/연구학교 이해</li> <li>- 교무행정 실무</li> <li>- 정보처리기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인 실무 교육</li> <li>- 기초-온라인, 심화-집합</li> <li>- 교육철학 공유, 정책방향 이해</li> <li>- 연수 형태 다양화</li> <li>- 업무 파악- 행정원 간 소통</li> <li>- 공동체 함양- 체험, 힐링 연수</li> </ul>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무행정원 역할, 책무 이해</li> <li>- 표준안 이해도 높이는 과정 개설</li> <li>- 구성원 간 소통 소양 증진 연수</li> <li>- 교무행정 실무 전문성 신장</li> <li>- 학사 및 교육과정 전반 이해</li> <li>- 연수 시기는 방학-공백 최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안에 근거한 업무 분장</li> <li>- 교무행정원 간 정보교류 시간</li> <li>- 교무행정 실무 전문성 신장</li> <li>- 급별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li> <li>- 교무업무별 처리 방법</li> <li>- 연수 시기- 전보 있기 전</li> <li>- 스트레스 관리- 체험, 힐링 연수</li> </ul>																																																																																																																					

## 나. 연수체계 설계·개발, 검토 및 재구성

### 1) 연수체계(시안) 설계·개발

교무행정원 연수체계(시안)의 구성은 ‘연수체계 개발 배경, 연수 운영 방향, 연수체계의 구성, 연수 진행 절차’의 4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교무행정원 연수체계 내용 구성(요약)

<b>1. 연수체계 개발 배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무행정원 역량 향상</li> <li>- 암묵적 지식 형성을 위한 구성주의적 접근</li> <li>- 소통과 협력의 공동체 조성을 통한 집단지성 활성화</li> </ul>																																									
<b>2. 연수 운영 방향</b>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92 745 357 834"><b>목적</b></td> <td data-bbox="357 745 1199 834">교무행정원이 학교 현장의 이해를 토대로 교무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td> </tr> <tr> <td data-bbox="292 834 357 1013"><b>운영</b></td> <td data-bbox="357 834 1199 1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교육의 운영 방향과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학교 현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연수 과정을 공통과정, 선택과정, 맞춤과정으로 구성함.</li> <li>- 학교 업무 공백을 줄이고 학교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학과 학기 중의 균형을 유지하여 연수를 운영함</li> </ul> </td> </tr> <tr> <td data-bbox="292 1013 357 1143"><b>구성</b></td> <td data-bbox="357 1013 1199 1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과정(1일) : 도교육청 주관, 경남교육 정책가치</li> <li>- 선택과정(4일) : 지원청 주관, (초,중,고)학교급별로 나누어서 연수를 진행</li> <li>- 맞춤과정(1일) : 지원청 지원,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그룹 밀착 연수</li> </ul> </td> </tr> </table>	<b>목적</b>	교무행정원이 학교 현장의 이해를 토대로 교무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b>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교육의 운영 방향과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학교 현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연수 과정을 공통과정, 선택과정, 맞춤과정으로 구성함.</li> <li>- 학교 업무 공백을 줄이고 학교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학과 학기 중의 균형을 유지하여 연수를 운영함</li> </ul>	<b>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과정(1일) : 도교육청 주관, 경남교육 정책가치</li> <li>- 선택과정(4일) : 지원청 주관, (초,중,고)학교급별로 나누어서 연수를 진행</li> <li>- 맞춤과정(1일) : 지원청 지원,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그룹 밀착 연수</li> </ul>																																			
<b>목적</b>	교무행정원이 학교 현장의 이해를 토대로 교무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b>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교육의 운영 방향과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학교 현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연수 과정을 공통과정, 선택과정, 맞춤과정으로 구성함.</li> <li>- 학교 업무 공백을 줄이고 학교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학과 학기 중의 균형을 유지하여 연수를 운영함</li> </ul>																																									
<b>구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과정(1일) : 도교육청 주관, 경남교육 정책가치</li> <li>- 선택과정(4일) : 지원청 주관, (초,중,고)학교급별로 나누어서 연수를 진행</li> <li>- 맞춤과정(1일) : 지원청 지원,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그룹 밀착 연수</li> </ul>																																									
<b>3. 연수체계 구성</b>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정</th> <th>주관</th> <th>기간</th> <th>주제</th> <th>내용</th> <th>시기</th> </tr> </thead> <tbody> <tr> <td>공통</td> <td>도교육청</td> <td>1일</td> <td>정책가치, 소통</td> <td>- 경남교육의 방향 이해 - 공직사회의 이해</td> <td>겨울방학</td> </tr> <tr> <td rowspan="4">선택</td> <td rowspan="4">지원청 (권역별)</td> <td rowspan="4">4일</td> <td>1일</td> <td>교육과정, 공문서</td> <td>- 학교급별 교육과정 이해 - 공문서 작성 및 관리</td> <td>4월</td> </tr> <tr> <td>1일</td> <td>교무행정 실무</td> <td>- 시스템 활용(K-에듀파인) - 나이스 이해와 활용</td> <td>4월</td> </tr> <tr> <td>1일</td> <td>소양 교육</td> <td>- 실무역량(IT, 통계, 클라우드) - -인문학, 지역사회 이해</td> <td>8월</td> </tr> <tr> <td>1일</td> <td>체험활동</td> <td>- 행복교육지구 방문 - 체험활동</td> <td>8월</td> </tr> <tr> <td>맞춤</td> <td>지원청 (지역별)</td> <td>1일</td> <td>공동체, 맞춤 연수</td> <td>- 현장 실무사례 활동 중심 - 멘토 교무행정원 학교 방문</td> <td>4~8월</td> </tr> </tbody> </table>					과정	주관	기간	주제	내용	시기	공통	도교육청	1일	정책가치, 소통	- 경남교육의 방향 이해 - 공직사회의 이해	겨울방학	선택	지원청 (권역별)	4일	1일	교육과정, 공문서	- 학교급별 교육과정 이해 - 공문서 작성 및 관리	4월	1일	교무행정 실무	- 시스템 활용(K-에듀파인) - 나이스 이해와 활용	4월	1일	소양 교육	- 실무역량(IT, 통계, 클라우드) - -인문학, 지역사회 이해	8월	1일	체험활동	- 행복교육지구 방문 - 체험활동	8월	맞춤	지원청 (지역별)	1일	공동체, 맞춤 연수	- 현장 실무사례 활동 중심 - 멘토 교무행정원 학교 방문	4~8월
과정	주관	기간	주제	내용	시기																																					
공통	도교육청	1일	정책가치, 소통	- 경남교육의 방향 이해 - 공직사회의 이해	겨울방학																																					
선택	지원청 (권역별)	4일	1일	교육과정, 공문서	- 학교급별 교육과정 이해 - 공문서 작성 및 관리	4월																																				
			1일	교무행정 실무	- 시스템 활용(K-에듀파인) - 나이스 이해와 활용	4월																																				
			1일	소양 교육	- 실무역량(IT, 통계, 클라우드) - -인문학, 지역사회 이해	8월																																				
			1일	체험활동	- 행복교육지구 방문 - 체험활동	8월																																				
맞춤	지원청 (지역별)	1일	공동체, 맞춤 연수	- 현장 실무사례 활동 중심 - 멘토 교무행정원 학교 방문	4~8월																																					



과정	운영방법	내용		
		공통	연수팀 구성과 운영	-장학사+교사+교무행정원+외부강사 -연수팀을 구성한 후 사전에 연수 방향에 대한 조율과 합의(도교육청)
연수팀 역할	-연수목표에 맞게 연수 내용 선정 및 공통 강의 교안 작성			
연수 주요 내용	-경남교육 철학과 정책 이해, 공직자로서 역할(청렴), 노동법 이해 등 -전체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나이스 규정			
선택	연수팀 구성 및 역할	-담당 주무관+교사+교무행정원으로 구성 -연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교무행정 강사단 운영 등		
	권역별 연수	-5개 정도의 연수 권역 설정 후 연수 진행(교육청 담당자 결정) -권역 내의 협력 지원청 간 연수프로그램 치밀한 협의 및 연수 운영		
맞춤	강사단 구성 및 운영	일정	절차	일정
		2월	교무행정 강사단 모집(교감 추천 고려)	급별, 행정실무, 멘토링 관련
		3월	교무행정 강사단 구성 및 사전 협의회 교무행정 강사단 공통 교안 작성	교사 참여 및 협업
		4~8월	교무행정 강사단 활동	행정실무, 멘토링 관련
		8월	교무행정 강사단 활동 평가	
	지역별 연수	-지원청 관할 지역 내 몇 개 학교를 묶어 소규모(멘토링)맞춤 연수		

## 2) 연수체계(시안) 검토

교수, 관리자, 교원, 교무행정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통해서 개발된 연수체계(시안)를 2차에 걸쳐 검토하였다.

1, 2차 모두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1차 검토(자문위원, 2명)에서는 연수체계(시안) 검토와 더불어 연구보고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경력과 학교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교사 2명과 교무행정원 3명으로 구성된 현장 전문가 2차 검토에서는 교무행정원 연수체계(시안)를 중심으로 검토되었고, 연수 배경과 목적에 대한 보완 및 연수체계 재구성 등의 요구가 있었다.

전문가 검토는 아래의 관점에 검토의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 관련 집단의 요구는 반영이 되었는가?
- 연수의 목표는 설정이 잘 되었는가?
- 연수목표 달성을 위한 교과목의 구성은 적절한가?
- 연수의 운영을 위한 이수 시간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 3) 연수체계(시안) 검토 결과 피드백 및 재구성

전문가 검토의견을 토대로 기존 연수체계(시안)을 재구성하였다. 구성 체계를 ‘1~4장→ I ~VI 장’으로 변경하면서 세분화하였고 내용을 풍부화하였다.

I 장(연수체계 개발 배경)에서는 연수체계 개발 배경, II장(관련 근거)에서는 관련 법규나 단체협약, III장(연수의 목적)에서는 교무행정원 직무연수 필요성, IV장(운영 방침)은 과정 다양화와 지속 가능 교무행정. V장(연수 세부 내용)은 연수 과정별 구체적인 진행 절차에 초점을 두고 구성하였다.

교무행정원 연수체계 검토 전후 비교

세부 내용(연수체계 시안)	← 체계 영역	→ 세부 내용(최종 연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요구→ 교무행정원 역량향상</li> <li>- 학교 운영 이해 → 암묵지 형성 구성주의적 접근</li> <li>- 소통&amp;협력, 공동체, 집단지성</li> </ul>	1.개발 배경 ↓(변경) I. 개발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구분석 근거 제시 → 현장 요구→ 교무행정원 역량향상</li> <li>- 학교 운영 이해 → 암묵지 형성 구성주의적 접근</li> <li>- 소통&amp;협력, 공동체, 집단지성</li> </ul>
		「경상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제107조(교무행정원) ④ 교육감은 교무행정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연 6일 실시한다.
가. 목적: 학교 현장의 이해를 토대로 교무행정원 전문성 제고→ 교사 교육활동 전담 환경 조성 나. 운영 ;경남교육 방향 및 학교 급별 학교 운영 이해 → 교무행정원 업무역량 향상 연수 ;단위 학교 교무행정업무 공백 최소화 다. 구성: 공통과정 + 선택과정 + 맞춤형과정	2.운영 방향-1 ↓(변경) III.목적  2.운영 방향-2 ↓(변경) IV.운영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원 전문성 제고→교사 교육활동 전담환경 조성</li> <li>- 교무행정업무 전문가로서 교무행정원 역량 강화</li> <li>- 소속감, 자긍심 고취 및 협업을 통한 조직문화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교육, 급별 교육과정 이해→업무역량 제고 연수</li> <li>- 연수과정 다양화(공통, 선택, 맞춤)</li> <li>- 학교 업무공백 최소화를 고려하여 연수체계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체계 구성</li> <li>;공통: 본청(1일), 정책가치와 소통, 겨울방학</li> <li>;선택: 지원청(4일), 교무행정 직무 연수, 4~8월</li> <li>;맞춤: 지원청(1일), 공동체 형성/멘토링, 4~8월</li> </ul>	3. 체계 구성 ↓(변경/조정) V. 체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세부 내용 - ‘1. 연수 과정 및 내용’ 절로 편성</li> <li>;연수 과정 일부 명칭 변경</li> <li>;연수 일정 구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 진행 절차</li> <li>;공통: 연수팀 운영→내용 선정, 교안 작성, 강의</li> <li>;선택: 연수팀 운영→ 권역별 연수</li> <li>;맞춤: 강사단 구성/운영→ 지역별 연수</li> </ul>	4. 진행 절차 ↓(변경/조정) V. 체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세부 내용 - ‘2. 연수 진행 절차’ 절로 편성</li> <li>;선택과정에서 권역별 구성에 대한 장점 추가 제시</li> <li>;연수의 과정별 만족도 조사 추가</li> <li>;주체별 연수평가 및 피드백 추가</li> </ul>
	VI.기대효과 (추가)	1. 기타(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2. 기대효과 -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업무수행 능력 제고 - 업무 자긍심 고취 및 직장 내 갈등 해소 등에 기여 - 교무행정원 취지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 필요

#### 4) 교무행정원 연수체계(안)

##### I. 교무행정원 연수체계 개발 배경

- 단위 학교 교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현장의 요구와 이를 위한 교무행정원 역량향상에 중점을 두고 연수체계를 구성  
\*2021 ‘교육활동 전담 여건 조성’ 설문조사 - ‘교무행정원 연수개선 필요성’을 묻는 문항 분석 결과에서 교원(2916명) 평균 4.00, 공무원(600명) 평균 4.26으로 높게 나타남<5점 척도>
- 교무행정원이 현장에서 학교 운영 과정의 이해를 통해 교무행정업무에 대한 암묵적(맥락적)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무행정업무를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주의 연수체제 도입
- 교무행정원 상호 간 교무행정업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체 조성 및 협력과 소통, 집단지성의 활성화를 통한 교무행정업무 역량향상 유도

##### II. 관련 근거

- (2021. 주요업무계획) 5-2-1. 교육본질 중심 학교 운영 기반 조성
- 경상남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협약

##### 제107조(교무행정원)

- ④ 교육감은 교무행정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연 6일 실시한다.

##### III. 교무행정원 연수의 목적

- 교무행정원이 교무행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교무행정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해 교무행정업무 전문가로서 교무행정원의 개인별 업무역량 격차를 줄이고 교무행정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역량 강화
- 교육 가족으로서 교무행정원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협업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 IV. 교무행정원 연수 운영 방향

- 경남교육의 운영 방향과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학교 현장의 이해를 토대로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진행
- 연수 과정은 공통과정, 전문과정, 맞춤형과정으로 구분하여 구성함.
  - 공통과정(1일): 도교육청 주관, 경남교육 정책가치
  - 전문과정(4일): 교육지원청 주관, (초,중,고)학교급별로 나누어서 연수를 진행
  - 맞춤과정(1일): 교육지원청 지원,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그룹 밀착 연수
- 단위 학교의 지속 가능한 교무행정업무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 일정 반영

## V. 교무행정원 연수체계 구성

### 1. 연수 과정 및 내용

과정	주관	기간	주제	목표 역량	내용(예시)
공통과정 (1일)	본청	1일	정책가치와 소통	공동체(조직이해), 의사소통 및 자기관리 역량	①경남 교육방향 이해 -경남 교육정책 이해 -교무행정팀 운영 방안 ;교무행정원 역할과 학교 변화 ;행복학교 교무행정원 역할 -소통(자기/동료/조직) ②공직사회의 이해 -청렴 등 -노동법, 인사, 복무
전문과정 (4일)	지원청 (권역별)	1일	교육과정 및 공문서	정보처리 역량	①학교급별 교육과정 이해 -월별 학사 및 업무 프로세스 파악 -교무행정 민원 전문성 ②공문서 -작성 및 관리(유통 등)
		1일	교무행정 실무	정보처리 역량	①업무시스템 활용 -K-에듀파인 업무/회계관리/자료집계 ②나이스 이해와 활용 *교무행정원(능숙자) 보조 강사로 활용
		1일	소양 교육	정보처리 및 의사소통 역량	①실무능력 향상 -엑셀, 한글, 포토샵 -[신규 강좌]웹오피스, 유레카 등 *강사 전년도 연수 과정 이해 필요 ②인문학 -인문학 특상 -지역사회 이해
		1일	체험활동	공동체 역량	① 행복교육지구 방문 ② 체험활동 진행
맞춤과정 (1일)	지원청 (지역별)	1일	지역별 공동체 형성 및 맞춤형 연수	조직이해 및 공동체 적응 역량	① 현장 실무사례 활동 중심 - 학교급별 실무 과정 예) 나이스 전출입 학적관리 실무 등 ② 멘토 행정원 학교 방문

2. 연수 진행 절차

과정	주제	시기	운영 방법															
공통과정 (1일)	정책가치와 소통	1월 말	<p>연수팀 구성 -구성: 장학사+교사+교무행정원+외부강사 -운영: 연수팀을 구성한 후, 연수 방향 사전 조율과 합의(도교육청)</p> <p>연수팀 역할 -연수목표에 적합한 연수 내용 선정 및 공통 강의 교안 작성, 연수 진행</p> <p>도교육청 연수 -경남교육 철학과 정책 이해, 공직자로서 역할(청렴), 노동법 이해 등 -최근의 사회와 학교의 변화 속에서 교무행정원의 역할 규정</p>															
전문과정 (4일)	교육과정 및 공문서	4월 초	<p>연수팀 구성 -담당 주무관+교사+교무행정원으로 구성 -연수팀을 구성한 후 사전에 연수 방향에 대한 조율과 합의(교육지원청)</p>															
	교무행정 실무	4월 초	<p>연수팀 역할 -연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교무행정 강사단 운영 등 -연수 대상을 학교 급별을 고려하여 편성하여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현장에 복귀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 운영</p>															
	소양 교육	8월 초	<p>권역별 연수 -5개 정도 연수 권역 설정 후 연수 진행(교육청 담당자 결정)</p>															
	체험활동	8월 초	<p>-권역 내의 협동 지원청 간 치밀한 협의 및 연수프로그램 구성·운영 -과정별 만족도 평가 및 차기 년도 연수계획 수립에 반영</p>															
맞춤과정 (1일)	지역별 공동체 형성 및 맞춤형 연수	4~8월 수시	<p>강사단 구성 및 운영</p> <table border="1"> <thead> <tr> <th>일정</th> <th>절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2월</td> <td>교무행정 강사단 모집(교감 추천 등)</td> <td>급별, 행정실무, 멘토링 관련</td> </tr> <tr> <td>3월</td> <td>교무행정 강사단 구성 및 사전 협의회 교무행정 강사단 공통 교안 작성</td> <td>교사 참여 및 협업</td> </tr> <tr> <td>4~8월</td> <td>교무행정 강사단 활동</td> <td>행정실무, 멘토링 관련</td> </tr> <tr> <td>8월</td> <td>교무행정 강사단 활동 평가</td> <td></td> </tr> </tbody> </table>	일정	절차	내용	2월	교무행정 강사단 모집(교감 추천 등)	급별, 행정실무, 멘토링 관련	3월	교무행정 강사단 구성 및 사전 협의회 교무행정 강사단 공통 교안 작성	교사 참여 및 협업	4~8월	교무행정 강사단 활동	행정실무, 멘토링 관련	8월	교무행정 강사단 활동 평가	
			일정	절차	내용													
			2월	교무행정 강사단 모집(교감 추천 등)	급별, 행정실무, 멘토링 관련													
			3월	교무행정 강사단 구성 및 사전 협의회 교무행정 강사단 공통 교안 작성	교사 참여 및 협업													
			4~8월	교무행정 강사단 활동	행정실무, 멘토링 관련													
8월	교무행정 강사단 활동 평가																	

## VI. 기타 기대효과

### 1. 기타(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교원을 포함하여 교무행정원 운영 취지에 대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이해 공유가 필요 (이에 교무행정원 연수와 더불어 학교급별 교감 및 부장교사 대상 연수 개설 고려)
- 유치원 및 방과후학교 관련 연수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 (교무행정원이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는 학교에서는 교무행정원도 연수 기회)
- 생애주기별 연수 이수 시 직무연수 ‘공통과정’을 인정하는 방안 검토 (학교 운영 공백 최소화 차원)

### 2. 기대효과

-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교무행정업무 수행 능력 제고
- 업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직장 내 갈등 해소 등 기여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무행정원 연수체계는 개발 배경에서부터 연수의 세부 내용까지 크게 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수체계가 실제로 교육활동 전담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다음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제언 분야	주요 내용
가. 본 연수체계 활용을 위한 제언	교무행정원 연수 방향의 재설정(정책가치, 교육과정 이해 등) 교무행정원 연수내용 재편성(정책가치, 교육과정, 실무[심화/신규]) 교무행정원 연수 형태의 다양화(공통, 맞춤형, 멘토링, 체험형 연수 등) 교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연수 시기 배치((여름, 겨울)방학, 3~5월) 지역교육청끼리 연합하여 클러스터 연수 운영
나. 교무행정업무 질적 변화를 위한 제언	안정적 업무의 분장과 전보를 위한 교무행정업무 표준화 정착 교무행정업무 관련 교원 연수 과정 운영 업무 분야를 고려한 연수 대상 유연화 신규임용자 입직 연수 과정 강화 생애주기별 연수 활성화 및 경력별 연수체계 운영 검토



2021. 교육정책 자체연구보고서

---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중-고 연계 중학교 교육자료 개발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정연홍 경상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공동연구자

강화진 사파중학교

김기수 양산고등학교

서혜정 마산구암고등학교

장소영 마산고등학교

최지은 김해여자고등학교

### 연구협력관

전제동 경상남도교육청

신상철 경상남도교육청

### 자문위원

강신우 마산구암고등학교

손성주 김해임호고등학교

장윤정 경상남도교육청



##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중-고 연계 중학교 교육자료 개발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의 변화와 함께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를 통한 변화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교-수-평-기’ 일체화다. 초등에서는 이미 정착 단계에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 등의 형태로, 고등학교 단위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고교학점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입시·경쟁 위주 교육보다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 경직적·획일적 교육보다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학교 유형의 다양화보다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를 추구한다.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라는 용어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하면서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논의가 없다가 2016년 12월 박근혜 정부에 들어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 발표를 통해 학점제를 재검토하였다. 2017년 대선에서 네 명의 주요 후보도 학점제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 와서 2017년 11월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2021년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등을 통해 비로소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8월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에서 2023년부터 수업량 적정화 정책(고교 3년간 수업량: 204단위→192학점)을 시행한다고 하여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러나, 정책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중학생에 대한 안정적 학교급 전환과 고교생활 준비를 돕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를 위한 교육자료는 찾기가 힘들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교육력이 소진되고 있다.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상의 필요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단위에서 고교학점제 학생 지도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시·도별 고교학점제 정책추진 실태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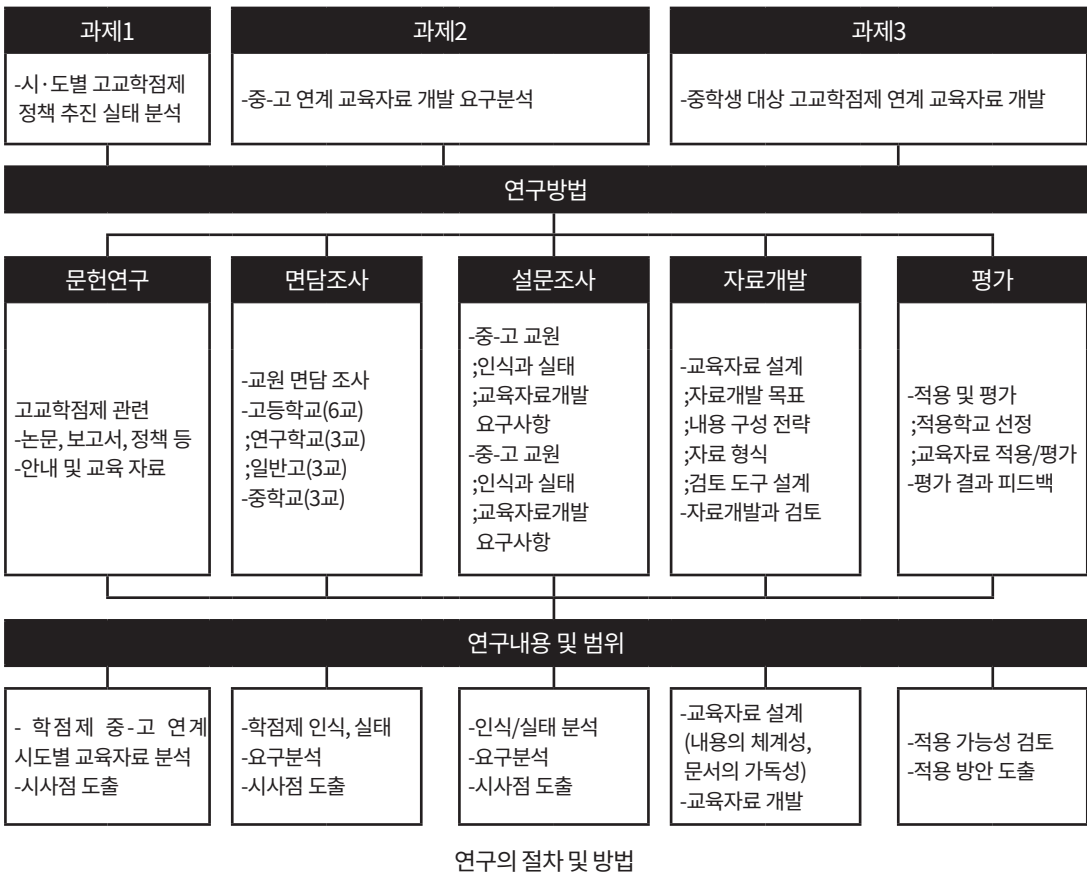
둘째, 고교학점제 중-고 연계 교육자료 개발 요구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중학생 지도를 위한 고교학점제 교육자료를 개발한다.

## 2. 연구 방법과 내용

본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면담조사를 통한 질적연구,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 연계 교육 차원에서 중학교의 자유학년제나 자기계발시기를 이용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안내하는 교육자료 개발에 초점을 둔다.

최종 연구산출물의 완성도와 현장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단계별로 검토 및 피드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연구 절차와 방법으로 순환적인 개발방법론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3. 연구의 결과

이상과 같이 문헌연구, 면담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연구 시사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 중-고 연계 교육자료를 개발하였다.

## 가. 요구분석 및 적용 시사점 도출

구분	내용	적용 시사점
문헌 연구	<p>고교학점제 선행연구</p> <p>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및 단계적 이행 계획</p> <p>고교학점제 중-고 연계</p> <p>-자유학기(년)제</p> <p>-진로교육 집중학기(년)제</p> <p>-연계 프로그램 운영사례</p> <p>;경남 자유학년제 연계학기 운영</p> <p>;세종 중학교 나다움 성장지원 프로그램</p> <p>;경북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징검다리 프로그램</p>	- 중학교 현장에서 교육자료의 적용과 활용 방안으로 제언
면담 조사	<p>진로교육 실태, 방향</p> <p>-진로탐색이 되어야 교과 선택 가능</p> <p>-(중)학교마다 진로교과 시수 및 편성 천차만별</p> <p>-(중)진로탐색 전일제 운영</p> <p>-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필요</p> <p>-진로 교과 강화(시간 확보 등) 필요</p> <p>-고등학교 상황은 진로보다는 대입에 치중하는 경향</p> <p>-중학교: 진로탐색 &gt; 진로설계, 고등학교: 진로설계+진학</p>	<p>- 중학교 현장에서 교육자료 적용/활용 방안으로 제언</p> <p>-향후, 진로교육 정책 방향으로 제언</p>
	<p>진로 과목 선택</p> <p>-진로 미결정자 및 무관심자 많음</p> <p>-어떤 진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7월에 선택과목 결정</p> <p>-학생 진로 계속 바뀐(잘은 과목 선택 변경)</p> <p>-진로와 무관한 과목 선택(성적, 친구, 선호 교사 등 영향)</p> <p>-과목안내 시간이 부족, 교과서 신청 시기 연기 고려</p> <p>-교육과정 박람회: 진로정보 제공보다 과목 간 PR로 변질 우려</p> <p>-중학생 경우 고교학점제 질문하는 사례 거의 없음</p>	- 고교학점제 중-고 연계 필요성
	<p>다과목 개설</p> <p>-근무 교사 수에 맞추어 과목 개설(특정 교사→7과목 담당 사례)</p> <p>-‘세특’ 기재 등 교원업무 증가 및 ‘세특’ 몰입 학생 인성 왜곡 우려</p> <p>-소인수 과목 내신관리 민원</p> <p>-소규모 학교→강사 구인 부담</p> <p>-과밀학급 또는 폐강 발생, 폐강시 교사 수업시수 부족 유발</p> <p>-공간 부족, 공간/이동 시 생활지도 대책</p> <p>-고급 과목 개설 부담(학교 평판으로 연결)</p>	다과목 개설시 고려사항 및 제언
	<p>공동교육과정(온라인, 토요일, 방학, 평일 야간 등)</p> <p>-교육과정 운영상 일정 조율 곤란</p> <p>-이동-안전 문제</p> <p>-학생 공부량 증가</p> <p>-협력학교 간 참여 입장차(대입 vs. 진로)</p>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고려사항 제언
<p>과목 미이수자 관리</p> <p>-기초학력미달 학생 정책 유사, 중복 가능성</p> <p>-공부 못하는 학생은 여러 과목을 모두 못할 가능성</p> <p>-교사부담 예방 차원, 성적 부풀리기 -공교육 위기 초래 가능성</p>	미이수자 관리 고려사항 제언	

구분	내용	적용 시사점
	구성원 협업 중요 -(고)교육과정부장+진로교사→ 상담 대응 내실화 -교육과정-진로-담임 유기적 협력 필요 ;(구성원, 특히 담임)교육과정 숙지 및 학생 전달→ 신뢰성 확보 -구성원 역량 강화 필요 ;특히, 진로 교사, 담임, 전입교사 등 연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향후, 진로교육 정책 방향으로 제언
	자유학년제 운영 내실화 필요 -중1과 2~3학년 간 연계성 부족 -고3 적극 활용 방안 -진로 체험 위주 운영,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도록	- 향후, 진로교육 정책 방향으로 제언
	고교학점제 기반 대입체제 개편 필요 -학생은 대입/등급에 민감 -등급제 · 성취평가제	-교육부 차원에서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제언
면담 조사	고교학점제 중-고 연계 -지도자료 개발 ;워크북 형태 ;자유학년제+고교학점제 연계 동영상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 ;고교학점제 취지 등 안내, 고등학교 진학 후 뭘 하는지? 등 ;고등학교 과목 선이해 수준(계열별 연계 과목은 무엇인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해(오정보 전달 및 혼란 방지) ;대입, 학과 정보 등(학부모 상담) -적용 시기 및 방법 ;중3 11~12월 또는 중3 1~2학기 1시간 정도 ;중3 자기계발시기 전일제 참체진로교육, 선택 모의실습, 강사 섭외 ;중3 말 교과 연계하여 시간 확보 ;중1 자유학년제 이용한 자연스런 연계(주제선택, 동아리 운영 등) ;(중)교과 수업시간에 관련 (고)선택 교과 안내 -연수 및 홍보 ;학부모 연수(지원청, 학교 주관) 필요 ;진로+중3 담임 동시 연수(담임교사의 역할도 중요함)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고교학점제 홍보(학교 간 홍보 경쟁은 지양)	-고교학점제 중-고 연계 중학교 교육자료 개발 시 반영  -고교학점제 중-고 연계 중학교 교육자료 적용 방안  -고교학점제 중-고 연계 홍보 방안

구분	내용					적용 시사점	
설문 조사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 -고교학점제 이해, 시기 적절성, 혁신 기여, 준비도						
		① 학점제 이해	② 시행시기 적절성	③ 고교혁신 기여	④ 준비 양호도		
	학교급	중학교	3.26	3.00	3.33	2.48	<p>*고교학점제에 대한 중학교의 이해도와 준비도가 고등학교에 비해서 낮음</p> <p>-중학교에 대한 홍보와 지원 부족이 주요 이유로 보임</p> <p>-중-고 연계를 통해서 중학교 구성원의 연수나 홍보 강화할 필요</p> <p>*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연구·선도학교에 비해서 ①, ②, ③, ④ 모든 영역에 걸쳐 고교학점제 인식이 모두 낮게 나왔음</p> <p>-일반고에 대한 홍보와 지원 방안을 찾고, 점차로 늘려나갈 필요성 있음</p>
		고등학교	3.61	2.88	3.11	3.28	
		t-검정	0.198***	0.012	0.621*	0.897***	
	학급수	6학급 이하(a)	3.33	2.87	3.28	2.90	
		7~18학급(b)	3.50	3.02	3.21	3.17	
		19~24학급(c)	3.58	2.74	3.02	3.29	
		25~30학급(d)	3.67	2.93	3.18	3.41	
		31학급이상(e)	3.46	2.85	2.95	3.05	
		F-검정/ 사후검정	3.467** d>a	3.123* b>c	2.369	7.664*** d>b,e,a c>a	
	경력	1년 미만(a)	3.22	2.92	3.36	3.22	
		1~3년(b)	3.34	3.07	3.27	3.33	
		4~5년(c)	3.32	2.87	3.13	3.41	
		6~10년(d)	3.41	2.79	3.04	3.21	
		11~30년(e)	3.65	2.80	3.02	3.23	
		31년 이상(f)	3.80	3.13	3.39	3.27	
		F-검정/ 사후검정	10.321*** f>d,b,c,a e>a	4.079** f>d	4.760*** f>e	0.736	
	지역	중부(a)	3.61	2.95	3.24	3.24	
		동부(b)	3.58	2.72	2.90	3.19	
		서부(c)	3.58	2.90	3.07	3.34	
		남부(d)	3.47	3.05	3.34	3.38	
		북부(e)	3.44	2.88	3.24	3.00	
		F-검정/ 사후검정	1.136	3.720** d,a>b	6.487*** d,a>b	2.615* d,c>e	
	전체(중+고, N=1,231)		3.56	2.89	3.14	3.26	
	학교 특성	연구학교(a)	3.50	3.03	3.22	3.64	
		선도학교(b)	3.79	2.97	3.13	3.67	
		일반학교(c)	3.45	2.75	3.07	3.02	
F-검정/ 사후검정		19.878*** b>a,c	5.876** a>c	0.965	63.448*** a,b>c		
전체(고교, N=1,066)		3.61	2.88	3.11	3.38		

\*\*\*p<.000, \*p<.05



구분	내용								적용 시사점																																					
-고교학점제 준비 미흡 이유 카이검증																																														
구분		① 시행 불확실성	② 인문적 자원 부족	③ 공동체 협력 부족	④ 학점제 홍보 부족	⑤ 제도나 환경 미비	⑥ 시행에 여유 있어	⑦ 기타																																						
중학교	빈도	20 (12.1)	42 (25.5)	6 (3.6)	32 (19.4)	49 (29.7)	14 (8.5)	2 (1.2)																																						
	순위	4	2	6	3	1	5	7																																						
고등학교	빈도	88 (8.3)	377 (35.4)	34 (3.2)	44 (4.1)	467 (43.8)	32 (3)	24 (2.3)																																						
	순위	3	2	5	4	1	6	7																																						
*( )의 값은 비율(%)임																																														
<p><b>학교급별 고교학점제 대응 방안</b></p> <p>-학교급별 정책추진 중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① 홍보에 중점</th> <th>② 교직원 연수</th> <th>③ 학부모 연수</th> <th>④ 중-고 연계</th> <th>⑤ 지역 연계</th> <th>⑥ 환경 구축</th> <th>⑦ 구성원 노력</th> <th>⑧ 예산 지원</th> </tr> </thead> <tbody> <tr> <td>중학교</td> <td>4.17</td> <td>4.14</td> <td>4.02</td> <td>4.12</td> <td>3.87</td> <td>4.07</td> <td>4.30</td> <td>4.14</td> </tr> <tr> <td>고교</td> <td>3.88</td> <td>3.98</td> <td>3.91</td> <td>3.93</td> <td>3.73</td> <td>4.14</td> <td>4.45</td> <td>4.12</td> </tr> <tr> <td>t</td> <td>3.726***</td> <td>2.090*</td> <td>1.423</td> <td>2.343*</td> <td>1.712</td> <td>0.979</td> <td>2.125*</td> <td>0.238</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p&lt;.000, *p&lt;.05</p> <p>-학교급별 고교학점제 정보수집 경로 빈도 순위</p> <p>①공문 ②동료/지인 ③교내연수 ④교외연수 ⑤매체 ⑥기타</p> <p>;중: ③, ⑤, ④, ①, ②, ⑥ 순 ;고: ③, ④, ①, ②, ⑤, ⑥ 순</p>										구분	① 홍보에 중점	② 교직원 연수	③ 학부모 연수	④ 중-고 연계	⑤ 지역 연계	⑥ 환경 구축	⑦ 구성원 노력	⑧ 예산 지원	중학교	4.17	4.14	4.02	4.12	3.87	4.07	4.30	4.14	고교	3.88	3.98	3.91	3.93	3.73	4.14	4.45	4.12	t	3.726***	2.090*	1.423	2.343*	1.712	0.979	2.125*	0.238	<p>*학점제 대응 추진 중점</p> <p>-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 간에 대응의 관점 차이를 큰 순서로 나열하면 ①홍보→④중-고 연계→②연수 순이었음</p> <p>-정보 수집경로에서 주의하여 볼 점은 고등학교는 교내연수가 높았으나 중학교는 매체가 높음. 진로 교육을 고리로 교내 전달 연수 등을 강화할 필요 있음</p>
구분	① 홍보에 중점	② 교직원 연수	③ 학부모 연수	④ 중-고 연계	⑤ 지역 연계	⑥ 환경 구축	⑦ 구성원 노력	⑧ 예산 지원																																						
중학교	4.17	4.14	4.02	4.12	3.87	4.07	4.30	4.14																																						
고교	3.88	3.98	3.91	3.93	3.73	4.14	4.45	4.12																																						
t	3.726***	2.090*	1.423	2.343*	1.712	0.979	2.125*	0.238																																						
<p>고교학점제 중-고 연계 자료개발 학교급별 요구</p> <p>-교육자료의 내용 구성 빈도 순위</p> <p>①제도의 방향 및 취지 ②교육과정 ③선택과목 ④평가/대입 ⑤과목선택 ⑥계열별 교육과정 예시 ⑦기타</p> <p>;중: ①, ⑤, ③, ④, ②, ⑥, ⑦ 순 ;고: ⑤, ③, ①, ④, ②, ⑥, ⑦ 순</p> <p>-중학교 고교학점제 안내 시기 빈도 순위</p> <p>①중1(자유학년제) ②중2(창체-자율) ③중3(11~12월) ④기타</p> <p>;중: ③, ②, ①, ④ 순 ;고: ③, ②, ①, ④ 순</p>										<p>*고교학점제 중-고 연계 자료 개발 요구에서 중학교는 제도의 취지와 방향이 고등학교는 과목선택에 비중이 높았음.</p> <p>*중-고교학점제 안내 시기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서 중3 자기계발시기(11~12월)가 가장 높게 나왔음</p>																																				

## 나. 교육자료 개발 및 적용

### 1) 교육자료 설계

분야	개발 원칙	
자료개발 중점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개발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보 제공 -교사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풍부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관련 정보 수록	
자료개발 목표	-고교학점제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이해와 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도자료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를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활동자료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발표용 자료	
자료개발 전략	-개발과정의 민주성 확보: 중·고 교원의 요구를 적극 반영 -고교학점제 및 중학교 진로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연구진 구성	
내용 구성 전략	1.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 및 개념, 2. 진로탐색을 위한 과정 안내 3.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4. 선택과목에 대한 안내 5. 대입제도에 대한 안내, 6. 교육자료의 활용 방안
자료 타당성 확보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자문위원 및 검토진 구성 -정책담당자와 자료개발 사항 조율 및 현장 전문가에 의한 자료 검토 강화	
적용/활용 방안	-현장 모의 적용 및 문제점 도출, 자료 개발 피드백 -자료의 적용 및 활용 방안 도출 -자료의 활용 및 고교학점제 안착 방안 제언	

### 2) 교육자료(시안) 개발(6개 장, 15개 주제, 80페이지 분량)

함께 만들어가는 고교학점제		Page
I. 이해하기	고교학점제란?	1
	2. 고교학점제 운영과 미래모습	3
II. 준비하기	자신의 적성 알아보기(간단한 적성, 진로 검사)	6
	2. 적성별 진로 분야(새로운 직업 및 유망직종 등)	9
III. 교육과정	1. 2015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목 안내	20
	2. 학교 교육과정 이해하기(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사례 등)	36
	3. 교내외 다양한 교육과정(학교연합, 지역연계, 교실온달 등)	41
	4. 평가 방법 및 대입 안내(과목별 평가 방법 및 대입 제도)	47
IV. 과목선택	1. 진로 계열별 대학 학과 안내	58
	2. 진로 계열별 선택과목 안내	60
	3. 과목 선택 실습하기	62
V. 자료의 활용	1. 고교학점제 중-고 연계 프로그램	71
	2. 중학교에서 본 교수학습자료의 활용	76

VI. 참고자료	선택과목 안내 QR '선택과목 뭐하지?' 사례 활용	78
	2. 참고문헌	

### 3) 교육자료(시안) 검토

교육자료(시안) 20개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5인의 검토 결과는 100점 만점에 평균 89.8점이 었다. 이후에 12, 18, 20번 항목을 집중하여 보완하였다.

고교학점제 중-고 연계 교육자료(시안) 검토 결과

영역	세부 범주	항목	검토위원					평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상황	환경 이해	1. 고교학점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5	5	5	4	5	4.8	
		2. 고교학점제의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5	5	5	4	5	4.8	
외적 구성 평가	물리적 요소와 실용성	3. 매뉴얼의 분량(쪽수)은 적절하다.	4	5	4	4	5	4.4	
		4. 매뉴얼의 글꼴은 읽기에 적합하다.	4	5	4	4	4	4.2	
		5. 내용에 오타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4	5	4	4	4.2	
	시각 자료의 디자인	6. 시각 자료는 흥미와 관심을 끌고 있다.	4	4	4	4	4	4	
		7. 시각 자료의 전달 내용은 명확하다.	4	4	4	4	5	4.2	
		8. 사용된 시각 자료의 색상은 적절하다	4	4	4	4	5	4.2	
	편집과 구성	9. 지면 구성의 요소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4	5	5	4	5	4.6	
		10. 보기에 편하게 여백이 설정되어 있다.	4	5	5	4	5	4.6	
		11. 내용을 찾기에 쉽게 구성되어 있다.	4	4	4	4	5	4.2	
	내적 구성 평가	매뉴얼 개발의 적절성	12. 고교학점제 안내에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5	4	5	4	4	4.4
			13. 중-고 연계 교육과정 계획 수립에 필요한 내용이다.	5	4	5	5	4	4.6
14.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개발되었다.			5	5	4	4	5	4.6	
내용 구성의 체계성		15. 내용이 법적·제도적 기준과 부합되게 집필되었다.	5	5	4	5	5	4.8	
		16. 교육과정 수립에 맞게 체계가 구성되었다.	5	5	5	4	5	4.8	
		17.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청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5	5	5	4	5	4.8	
현장 적용 가능성		18. 중-고 연계 교육과정 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5	4	5	4	4	4.4	
		19. 자율성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용이 전개되었다.	5	4	5	5	5	4.8	
		20. 고교학점제 중-고 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다.	5	4	4	5	4	4.4	
종합		검토위원별 평점 환산 합		91	90	91	84	93	4.49
	환산 평균		89.8						

#### 4) 교육자료(시안) 현장 적용 및 피드백

전문가 검토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을 수정 후 다시 현장 적용 평가를 하고, 피드백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자료를 완성하였다. 최종 완성된 ‘고교학점제 중-고 연계 교육자료’는 현장 적용 이전의 자료보다 내용 구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면서 시각적으로도 매력성을 보완하였다. 자료의 전체 분량은 총 6개 영역, 13개 주제, 83페이지로 조정되었다.

고교학점제 중-고 연계 교육자료 내용 구성

교육자료(시안) 세부 내용	←	영역	→	(최종 교육자료) 세부 내용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2. 고교학점제의 운영과 미래모습은?		I. 이해하기 → 고교학점제 이해하기		1. 고교학점제란? 2. 고교학점제의 준비와 미래 <b>‘고교학점제 이해하기’ 한 눈에 쏙!</b>
1. 자신의 적성 알아보기[간단한 작성, 진로 검사] 2. 적성별 진로 분야(새로운 직업 및 유망직종 등)		II. 준비하기 → 교육과정 이해하기		2015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목 안내 2. 학교 교육과정 이해하기(편제표 사례 등) 3. 교내·외 다양한 교육과정 <b>‘교육과정 이해하기’ 한 눈에 쏙!</b>
2015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목 안내 2. 학교 교육과정 이해하기(편제표 사례 등) 3. 교내외 다양한 교육과정(학교연합, 지역연계 등) 4. 과목별 평가 방법 및 대입 안내		III. 교육과정 → 과목 선택 준비하기		학생 스스로 적성 알아보기 2. 적성별 진로 분야 찾아보기 <b>‘과목 선택 준비하기’ 한 눈에 쏙!</b>
진로 계열별 대학 학과 안내 2. 진로 계열별 선택과목 안내 3. 과목 선택 실습하기		IV. 과목선택 → 과목 선택 하기		1. 진로 계열별 선택과목 안내 2. 진로 계열별 선택과목 예시 3. 진로 계열별 대학 학과 안내 4. 과목 선택 실습하기 <b>‘과목 선택하기’ 한 눈에 쏙!</b>
고교학점제 중-고 연계 프로그램 2. 중학교에서 본 교수학습자료의 활용		V. 자료활용 → 중학교에서 본 자료의 활용		1. 고교학점제 중-고 연계 프로그램 2. 중학교에서 본 교수학습자료의 활용
선택과목 안내 QR		VI. 참고자료 → VI. 교육활동 자료		#자료1. 보통교과 선택과목 안내 #자료2. 과목별 평가 방법 및 대입 안내 #자료3. 교육활동지[1-5] #자료4. 선택과목 안내 동영상 QR
2. 참고문헌				참고문헌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교육자료는 현장 요구를 반영, 6개 영역, 13개 주제, 83페이지로 개발되었다. 본 자료가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다음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제언 분야	주요 내용
가. 본 교육자료 활용을 위한 제언(학교)	중학교에서 본 교육자료의 적용 시기는 3학년 2학기 자기계발시기를 권장함 진로와 직업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활용 진로상담이나 교과목과 연계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나. 학점제 인식 제고를 위한 제언(교육청)	교사 및 학부모 연수가 병행되어야 함 중학교 자유학년제 연계학기 및 진로교육 집중학기제 운영 활성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정보 제공 사이트 구축 중학교 교과 수업에서 고교학점제를 안내할 수 있는 자료 개발

2021. 교육정책 자체연구보고서

---

# 2021.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 연구진

### 연구책임자

한미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공동연구자

박병철 주촌초등학교

조묘령 거제제일중학교

박영실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김서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 연구협력관

이정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 자문위원

이필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 2021.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 1.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2020년에 실시된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좀 더 타당한 조사도구를 개발하고, 조사대상을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인권과 관련 있는 교원과 보호자를 포함한 교육공동체로 확대하여 경남 학생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생인권 보장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교육 및 인권실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권의식 개념 및 학교 인권교육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실시된 학생인권 실태조사 및 지역단위의 시도별로 이루어진 학생인권 실태조사 문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2020년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실시한 학생인권 실태조사 문항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도별 학생인권조례를 분석하여 조례에 포함된 학생인권 영역 및 권리 영역별 내용을 분석하였고, 실제 학교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에피소드와 관련된 설문 문항을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 사례집에 포함된 인권침해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및 학생인권 실태조사 문항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 교원, 보호자용 3종의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분석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생, 교원, 보호자의 인권의식 수준을 진단하였다. 또한 경남 학생인권의 실태 및 학생인권교육 현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및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 2.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의식 분석

경남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의식은 4점 만점에 학생 3.32, 교원 3.19, 보호자 3.10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며, 학생의 인권의식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인권의

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의식의 하위요소별로는 학교급에 상관없이 인권의 인지적 영역인 인권 판단이 가장 높고 행동적 영역인 인권 행동의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의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에 관한 지식적 개념 및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이러한 인지적 인권이 타인의 인권에 대해 공감하고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서 및 행동적 인권으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이나 보호자의 인권의식은 학교급에 따른 인권의식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인권의식의 하위요소별로는 인권 감수성이 가장 높고 인권 행동의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학생, 교원, 보호자 모두 실제 생활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실천적 의미의 인권의식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개념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고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인권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2) 학생인권 실태 분석

먼저, 학교 내 학생인권 실태 분석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성적이나 외모로 인한 차별을 받았거나 목격한 경험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초·중학생은 외모로 인한 차별 인식이, 중·고등학교에서는 성적에 따른 차별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성적에 따른 차별 인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성적에 따른 민감성이 높아지는 만큼 교사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직·간접 체벌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14.3%(초 13.4, 중 17.1, 고 10.2)로 중학교 학생의 체벌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언어적 폭력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전체 15.2%(초 11.8, 중 16.7, 고 18.1)로, 학교급이 높을수록 언어적 폭력 경험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직·간접 체벌 경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적 폭력 경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체벌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모두 학생에게 가해지는 폭력임을 인지하고 폭력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무실 청소를 한다는 학생 응답은 고등학생에게서 가장 많았으며, 중·고등학교 교원의 응답 비율은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교원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교무실 청소 당번이 아닌 학급의 학생들은 교무실 청소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학생의 응답 비율이 교원의 응답 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학교가 많다는 것으로, 학생들의 휴식을 취할 권리나 학습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교복이나 생활복의 이름표 탈부착을 할 수 없는 고정형 이름표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56.5%(중 61.7, 고 46.3)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폰 소지 및 이용 규칙과 관련하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66.7%(초 84.8, 중 57.6, 고 54.9)로,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학생의견 반영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보장 측면에서 고정형 이름표 사용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휴대폰 소지 및 이용 규칙과 관련해서는 학생들과 학교 간의 적절한 의견 조율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두발 및 복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응답은 62.3%(초 97.6, 중 39.9, 고 39.3)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의 60%는 학교에서 머리모양이나 교복 착용과 관련하여 규제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교원의 대략 35%가 학생들의 용모 규제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 두발이나 복장과 관련된 학생의 개성실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는 학생과 학교 간의 오래된 쟁점으로, 양측 간의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인 의사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서약서 작성을 강요한다는 학생 응답 비율은 17.4%로, 이 가운데 중고등학교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학생의 표현 및 양심의 자유를 위배하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한다.

일곱째, 경남교육청에서는 2017년 2학기부터 상벌점제를 전면 폐지했지만 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략 18~20%의 중고등학교에서 여전히 학생의 생활지도 수단으로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위한 수단으로 상벌점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인권친화적 생활교육 방식의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알러지, 채식, 종교적 이유 등으로 급식을 못 먹는 학생을 위한 대체식단이 제공되고 있다는 학생 응답 비율은 70%로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기후위기 및 환경재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채식급식이 정책적으로 권장·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채식급식뿐만 아니라 알러지 등과 같은 건강권, 종교적 신념 등과 같은 소수학생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해 대체식단 제공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생리공결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여학생 비율은 73.1%, 사용할 수 없다는 26.9%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건강권 보장 및 생리공결제에 대한 남학생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생리공결제도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실태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인권 영역 별로 학생과 교원 간의 학생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학교 내 학생인권 보호 정도를 교원보다 낮게 인식하는 반면, 교원들은 학생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단, 예외적으로 교무실 청소 부과와 관련해서는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 교원들이 교무실 청소를 시킨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무실 청소 당번이 아닌 학급의 학생들은 교무실 청소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학생의 응답 비율이 교원의 응답 비율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실태에 대한 학생과 교원 간의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은 동일한 상황에 대한 각자 간의 이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학생과 교원 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3) 학생인권교육 현황 분석

학생인권교육 현황 분석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인권교육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인지적 이해뿐만 아니라 태도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인권교육 방법에 대한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권교육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동영상 시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토론이나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활동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은 매우 적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권교육 만족도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학생활동 중심 수업의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동영상 시청 방법의 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인권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동영상 시청과 같은 일방적이며 일회성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인권교육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들은 학생인권교육 실시의 어려움으로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첫 번째로 뽑았으며, 다음으로 인권교육 목표와 의미에 대한 인식 부족, 교재 및 교수-학습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더불어 학생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점으로는 교육과정 통합형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확대, 인권교육 시간의 제도적 확보, 교사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 교재 및 자료의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교과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시간 중에 자연스럽게 인권 관련 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4) 학생인권 침해 경험 및 침해에 대한 구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받은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차별이나 체벌 및 언어폭력이 많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두발이나 복장 등 용모와 관련된 개성실현의 자유 및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침해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로부터 인권침해를 경험한 학생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냥 넘어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그냥 넘어간 비율은 더 높았다. 반면,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학생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보호자의 경우도 자녀가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자녀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봐 참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학생이나 보호자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 대상의 학생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인권침해 시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구제기관에 대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본 설문조사에서 교육인권경영센터의 인지 정도를 알아본 결과, 모른다는 응답은 높게 나타난 반면(학생 70.8, 교원 47.5, 보호자 66.7),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학생 4.4, 교원 13.0, 보호자 3.7). 따라서 경남교육청 내 교육인권경영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교육공동체의 인권 보호 및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인권경영센터를 통해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5) 심층분석

심층분석에서는 2020년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2021년 실태조사 결과 및 경기도와 경남지역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의식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2020년에 실시된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2021년 실태조사를 비교·분석하였다. 단,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에 실시된 학생인권 실태조사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좀 더 정교하고 타당한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경남 학생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에 실시된 조사 문항과 비교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에 비교 가능한 문항만을 중심으로 2020년과 2021년 학생인권 실태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복이나 생활복 이름표 탈부착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이나 생활복의 고정형 이름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2020년에는 57.8%, 2021년에는 56.5%로 1.3%p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교복이나 생활복의 이름표 탈부착이 불가능한 고정형 이름표를 사용하고 있다. 고정형 이름표는 학생 개인정보를 노출시킴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특히 학교 밖에서는 자칫 학생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교복에 이름표가 필요하다면 목걸이형이나 탈부착이 가능한 이름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생리공결제 사용과 관련하여 생리공결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은 2020년에는 36.0%, 2021년에는 26.9%로 9.1%p 감소하였다. 초등학교에서는 2020년에 비해 2.3%p(26.0→28.3) 소폭 상승한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각각 14.4%p(41.7→27.1), 10.4%p(34.7→2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비해 생리공결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이 대략 10% 이상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여전히 24~28%의 여학생은 생리공결제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폭력 경험과 관련하여 직접 및 간접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020년에는 24.6%(초 16.1, 중 29.3, 고 28.3)에서 2021년에는 14.3%(초 13.4, 중 17.1, 고 10.2)로 10.3%p 감소하여, 교원의 체벌 사용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의 체벌 감소가 두드러졌다. 또한 모욕적인 말이나 폭언과 같은 언어적 폭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에는 16.9%에서 2021년에는 15.2%로 나타나, 2020년에 비해 1.7%p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1.8%로 4.6%p 증가한 반면, 중학교는 2.2%p 감소하여 16.7%, 고등학교는 7.2%p 감소하여 18.1%로 나타났다. 직·간접 체벌과 언어폭력은 2020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감소하였지만, 체벌에 비해 언어폭력에 대한 감소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초등학교에서는 소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학생인권이 강조되고 교원들이 체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체벌을 대신하여 생활지도 수단으로 언어폭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 한편으로는 직·간접 체벌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을 포함하여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 간에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상벌점제 사용과 관련하여 벌점이나 마일리지 부과 등 학교에서 상벌점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이 2020년에는 26.5%, 2021년에는 33.0%로 나타나, 2020년에 비해 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과 비교해, 초등학교는 1.0%p 감소한 15.9%로 나타났고, 중학교는 11.1%p 증가한 41.9%, 고등학교는 7.1%p 증가한 39.1%로 나타나, 40% 내외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상벌점제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와 경남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의식 수준을 비교·분석하였다. 경기도는 2010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1년부터 정례적으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의 조항에 근거한 학생인권 현황 및 변화 양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권교육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학생의 인권의식은 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에서부터 점차 확장되어 개인적 경험 요인을 더해가며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들의 인권의식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학생인권은 학생의 인권의식뿐만 아니라 교원과 보호자의 인권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먼저 제정된 경기도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남의 인권의식 수준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규범이 교육공동체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및 학생의 인권 보장·실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경기도와 경남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비교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경우 4점 만점에 경기도 3.46 vs 경남 3.31, 교원은 경기도 3.50 vs 경남 3.25, 보호자는 경기도 3.36 vs 경남 3.13으로, 경남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의식이 경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경기도는 고등학생의 인권의식이 초·중학생보다 높은 반면, 경남은 초등학생의 인권의식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권의식의 문항별로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학생은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학생의 주체적 의사결정 능력에서 경기도와 경남 교육공동체의 인식이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기도 학생의 경우 부정 81.0%(초 75.9, 중 83.0, 고 86.1), 긍정 19.0%(초 24.2, 중 17.0, 고 13.8)로 부정 응답 비율이 높아 학생들 스스로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른들의 생각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 경남 학생의 경우 부정 59.5%(초 50.1, 중 62.7, 고 68.8), 긍정 40.4%(초 50.0, 중 37.3, 고 31.2)로 부정적 응답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긍정적 응답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략 10명 중 4명 정도는 학생의 주체적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초등학생의 경우 2명 중 1명은 ‘학생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권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인권의 주체로서 오롯이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기 때문에 또는 학생이기 때문에’ 등과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신을 규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2020년 경남 학생인권 실태조사에서 ‘모든 학생은 어른과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 경남 학생들은 인권의 주체로서 자신을 성인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생각하는 인권인식이 낮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경남의 교원과 보호자의 경우도 학생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남의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학생을 성인과 대등한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보



호의 대상이나 미완의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3. 정책 제언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 교육공동체의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인권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교육공동체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인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을 자기결정의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교육공동체 대상의 학생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학생인권은 학생의 인권의식뿐만 아니라 교원과 보호자의 인권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학생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및 보호자 대상의 학생인권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교육에 대한 내실화가 요구된다. 인권교육은 인지, 정서, 행동 모두를 아우르는 인권의식의 함양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지식과 정보 전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해 공감하고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서 및 행동적 인권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경남 학생인권 실태 및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이 학교 현장에서 잘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기초로 학생인권 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지속적 검토를 통해 조사도구를 계속적으로 수정·보완·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021. 교육정책 자체연구보고서

# 반(反)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이선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파견교사

### 공동연구자

고영주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교사

김소진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강사

김지선 창원문성고등학교 교사

이혜정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연구협력관

강지명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사무관

### 자문위원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류수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활동가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워티 사무처장



# 반(反)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

## I. 서론

본 연구는 스쿨미투, n번방 사건 등으로 성평등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과 경남지역의 교사 불법촬영 등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 사회의 문화 개선에 기여해 온 반성폭력 운동에서 시사점을 얻어 학교에 반성폭력 문화가 자리 잡게 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및 반성폭력 학교문화 관련 논의를 분석하고 경남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II. 학교 내 성폭력과 학교 반성폭력 운동

### 1. 학교 내 성폭력과 ‘반성폭력’

한국 사회 반성폭력 운동에서는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여성폭력’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폭력추방운동을 ‘반성폭력운동’이라고 쓰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2020)’에서 다루고 있는 학교 내 성폭력의 범위가 ‘학교 관련 젠더 폭력’과 ‘성희롱’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며, 성희롱을 “학교 내 구성원 간의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 관련한 차별적 언동이나 폭언도 그 범위에 포함하여 다루었으며, ‘반(反)성폭력’을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넓은 범위에서의 모든 성폭력에 반대하는 의미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 2. 학교 반성폭력 운동과 교사: 경남을 중심으로

학교 반성폭력 운동을 경남지역의 스쿨미투와 교사 불법촬영 대응 모임을 중심으로 살펴보

았다. 스쿨미투와 교사 불법촬영 대응 모임의 활동은 학교문화 속의 왜곡된 성인식과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이자, 피해자가 직접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 나선 운동이었다. 이 활동들은 학교에서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문화가 변화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주었으며, 학생을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서 학교 민주주의의 실현의 측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한편 학생이 중심이 된 이러한 움직임과 달리, 교사 집단의 경우 스쿨미투와 교사 불법촬영의 가해자가 포함된 집단이지만 이와 관련한 집단적 성찰이나 뚜렷한 움직임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교문화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집단으로 학교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 가운데는 학교문화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교사들도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를 중심으로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Ⅲ. 경남지역 교사 대상의 설문조사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경남지역의 교사들의 성인식과 학교문화에 관한 경험을 알아보고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712명이 응답하였다. 설문 내용은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에 관한 인식, 청소년의 성적 권리에 대한 인식, 성적 다양성에 관한 인식, 젠더 이슈와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등 성인식에 관한 부분과 교직문화에 관한 경험, 학교 내 의사 결정 구조 및 문제 제기에 관한 경험, 성폭력 대응 및 성교육에 관한 경험 등 학교 문화에 관한 경험 부분, 개선 방향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경남지역의 교사들의 성인식과 학교문화 속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나이나 성별에 의한 위계가 작동하고 있는 등 다소 경직된 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나 연령이 낮은 교사의 경우 이에 대해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적 실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생들의 젠더 이슈 관련한 문제 제기를 불편하게 여기면서도 학생들의 의사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으며, 스쿨미투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성폭력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의 성 인권과 의사 표현 등 전반적인 학생 인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더불어 교사들이 학교 내에서 2차 가해를 목격한 경험이 적지 않았으며, 관리자나 학부모 등 외부 요인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

타나 학교를 둘러싼 전반적인 문화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다.

#### IV. 경남지역 교사와의 면담

경남의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 사안, 스쿨미투, 교사불법촬영 등에 직접 대응하거나 관련한 경험을 갖고 있거나, 성교육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교사 간 성폭력, 스쿨미투, 불법촬영, 학생 간 성 사안 대응 및 성교육의 문제점, 학교문화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면담하였다.

면담 결과, 학교 내 성폭력에도 강한 위계 권력이 작동하여 학교 내 약자가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공동체의 경직되고 불평등한 의사소통 구조가 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폭력 대응이 '사안 처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돕지 못하고 사안 발생시 학교가 행정적인 처리 과정에 매몰되는 문제점이 있음이 나타났다. 면담 참여자들은 성고충상담원 제도를 비롯하여 학교 내 성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제도와 제반 여건의 개선, 성에 대해 터부시하는 태도나 학생들의 성 인권의 보장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개선의 필요성, 교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연수 방법의 다양화, 학생 대상의 성교육의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및 교사들의 인권친화적인 태도의 중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 내 성폭력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목격하고 대응하며 경직된 학교문화와 지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과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개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과 실천이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요구된다.

#### V. 반성폭력 학교문화 조성 방안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반성폭력 학교문화의 조성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학교 내 성폭력은 나이, 성별, 직위 등의 위계 권력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고 있었으며, 학교 내 불평등한 관계와 경직된 의사 소통 구조, 왜곡된 성인식 등이 이를 심화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반성폭력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성별 권력관계 및 젠더 규범을 인지하고, 학교 내 불평등한 구조를 개선하여 성평등한 문화

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교사/학생, 여학생/남학생의 이분법을 넘어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감각을 배우고,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대책과 방안의 추진 과정에서 반성폭력 학교문화의 조성은 이러한 방향성을 견지하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성폭력 대응에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 차원에서, 현재의 ‘사안 처리’ 중심의 대응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쿨미투와 같이 학교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이 공론화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불법촬영 등의 사안에서 피해 당사자에게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 민주적인 공론장 마련, 후속 조치 마련 및 공개, 2차 가해 방지 교육 등이 중요하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명시한 매뉴얼 혹은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폭력 대응의 비전문가인 교사의 성폭력 대응 과정 전반을 지원하고 교사의 대리 외상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와 성폭력 사안에 대한 안전한 협의체를 제공하기 위한 사례 회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성폭력 대응을 전문적이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의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며 성고충상담원 제도를 개선하여, 전문적인 사안 조사와 행정적인 처리를 교육청이 담당하고 학교는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사의 역할 전환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반성폭력 학교문화를 만드는 행위자로서 학교문화 변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사들이 소통과 체험으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 집단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방관자 개입 프로그램(혹은 주변인 역할 강화 프로그램) 등 체험형 연수를 도입하여 실천적인 움직임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성평등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전문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교사 간의 협력 관계를 활성화하고 성평등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조례는 현재 서울, 충북, 부산, 세종, 전북, 전남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성평등교육 ‘환경’에 관한 조례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일상의 문화나 풍토를 포함하는 무형의 환경까지 포함함으로써 학교문화의 변화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남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성평등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VI. 결론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외에도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성교육, 성평등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수많은 쟁점과 논의가 남아 있다. 특히 성폭력을 개인의 일탈이나 범죄로 해석하여 학교문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성교육이나 성평등교육에 있어서 내용이나 범위, 용어 사용 등으로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논쟁의 대상이 되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회피하는 동안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또 다시 경남에서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이 발생하였다. 학교문화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기관이 분명한 철학과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집단과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문화 개선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 교육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성폭력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체계화 및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성폭력에 대해 비전문가인 교사의 성폭력 대응 과정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수퍼바이저 제도와 성폭력 사안에 대한 안전한 협의 구조의 마련을 위한 사례 회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청의 성폭력 사안 대응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성고충상담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협의와 체험을 중심으로 연수를 전환하여, 방관자 프로그램(주변인 역할 강화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교사의 실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성평등교육 전문지원단의 운영을 통해 교사 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교사들의 성평등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성평등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성평등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경남에 반성폭력 학교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1. 교육정책 자체연구보고서

---

# 도민 소통 중심 경상남도 교육청 홍보 활성화 방안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이희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파견교사

### 연구협력관

문용희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사무관

박소진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 자문위원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



## 도민 소통 중심 경상남도 교육청 홍보 활성화 방안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홍보는 대중과 대내·외의 이해관계자에게 설정된 내용과 이미지를 전달하거나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평판을 유지 또는 변화시키는 역할(편창규, 2016)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공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촉진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유영석, 2016). 이러한 정의를 경상남도 교육정책 홍보에 적용시켜 보면, 경상남도 교육정책의 홍보란 경상남도 교육정책과 도교육청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내용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도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참여를 유도하여 상호 신뢰감 형성과 원활한 소통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적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민선교육감 제도 및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담론(public discourse)의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대부분의 문제해결에 있어 도민들의 참여와 실천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정부 역시 확장된 민주성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능동적 공개·참여·개방·공유·소통·협력 등을 정책의 운영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기존의 정부·기관·정책수립자 중심의 홍보에서 국민 중심의 소통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웹 기반 생활환경과 SNS를 통한 온라인 소통이 일반화되면서 홍보 매체의 기능과 영향력이 변화하고 있는 점도 홍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청되는 배경이다.

특히 경상남도는 인구 면에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교육지방자치단체이며, 넓은 면적으로 인해 전파력과 집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마다 인구구성이나 정보화 정도가 크게 차이나 단일한 홍보 전략보다는 다층적인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루어진 설문문항을 수정하여 경상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반복적으로 구성했던 설문문항은 반영하되, 참여자 배경변인을 좀 더 세분화하고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환경과 경로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경상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첫 홍보효과 분석으로서 앞으로의 경상남도교육청 홍보 활성화를 위한 근거자료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자료는 경상남도교육청이 도민소통 중심의 정책 홍보를 실현할 수 있는 경남교육정책 홍보 전략을 마련

하고 현재 운영 중인 홍보 매체 및 채널을 개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교육청의 홍보 수단을 활성화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증대하는 것에 있으므로 특정한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정책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보다 홍보 채널 자체에 연구의 관심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경상남도교육청의 홍보채널들은 도민들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둘째, 경상남도교육청의 홍보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혁신 사례들을 수집하여 얻은 시사점을 고려할 때, 경상남도교육청 홍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를 해결을 위해 설문조사 및 매체별 인사이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 가. 경상남도교육청 홍보 현황

#### 1) 담당부서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으로 「홍보담당관」 부서를 설치하여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있다. 홍보담당관은 홍보담당팀과 공보담당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홍보담당팀은 소통 채널 관련 기획 및 콘텐츠 생산을 담당하고 공보담당팀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와 언론대응, 기록물 관리 등을 담당한다. 여러 시·도 교육청의 홍보담당 부서 현황을 살펴보면, 홍보 담당 부서는 교육감 직속 부서의 위상을 가지고 홍보를 담당하는 팀과 공보를 담당하는 팀 등의 2개 팀으로 나누어져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많으며, 경상남도교육청 홍보 담당 부서도 이와 같다.

<표 1> 시·도 교육청의 홍보 담당 부서 개괄

	대변인 유무	교육감 직속여부	홍보 담당부서명		소속 인원	비고
경상남도 교육청	×	○	홍보 담당관	홍보담당	4	서포터즈/기획홍보단/홍보대사 운영
				공보담당	6	
강원도 교육청	○	○	공보 담당관	대변인	5	교직원 웹진 및 학부모 홍보용 카카오톡 채널 운영
				홍보	9	

경기도 교육청	○	○	대변인	공보기획	5	홍보역량 강화 연수 운영, 경기교육 홍보 기본 계획 수립, 홍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획홍보단 구성 및 운영, 미디어를 통한 공익캠페인 실시
				정책홍보	5	
				언론	10	
				미디어방송	11	
				청소년미디어	5	
경상북도 교육청	×	○	소통 협력관	공보담당	4	학부모 기자단 운영, 각급기관 홍보방송시스템(DID)기획 및 운영
				홍보담당	5	
광주시 교육청	×	○	공보 담당관	홍보기획팀	4	홍보방송시스템(DID)기획 및 운영
				공보팀	6	
대구시 교육청	×	○	대외협력 담당관	정책홍보담당	6	언론이 본 대구교육연보 제작, 주민자치위원회와 홍보 연계, 대구교육화보 발간
				공보담당	7	
대전시 교육청	×	○	공보관	공보	5	학생 아나운서/리포터 운영, 홍보역량 강화연수 운영, 홍보인센터브제 실시
				교육홍보	6	
부산시 교육청	○	○	대변인	공보	7	지원단/TF/자원봉사자/모니터링단/부산교육 오피리언리더단 운영, 홍보 관련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홍보	7	
서울시 교육청	○	○	대변인	공보담당	7	기자실 운영, 공공캠페인 기획 및 실시
				홍보기획	5	
				소통미디어운영	7	
세종시 교육청	×	○	소통 담당관	공보담당	5	학생 및 학부모 기자단 운영
				홍보담당	7	
울산시 교육청	×	○	공보 담당관	공보팀	6	오피니언 리더단 운영, 사진자료 DB 구축 및 운영, 영상콘텐츠 지원단 운영
				홍보팀	5	
인천시 교육청	○	○	소통 협력 담당관	정책홍보팀	6	홍보 교육 및 연수 실시, 홍보전략추진단 운영, 지역교육청 홍보 네트워크 운영, 시민 네트워크 및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변인팀	6	
				시민소통팀	7	
전라남도 교육청	×	○	홍보 담당관	홍보팀	7	전남교육 이미지 표준 관리, 홍보자문위원회 운영, 사진자료 DB 구축 및 운영
				공보팀	7	
전라북도 교육청	○	×	정책 공보관	공보담당	13	부교육감실 소속 정책공보관실 산하
제주도 교육청	×	×	소통 지원관	정책소통	4	부교육감 직속 부서, 영상DB 운영
				보도	5	
충청남도 교육청	○	○	소통 담당관	홍보소통팀	9	교육감 홍보 및 소통 업무를 비서팀에서 전담
				공보팀	5	
				비서팀	7	
충청북도 교육청	×	○	공보관	공보팀	8	학부모기자단, 홍보대사운영, DID 시스템 운영
				홍보팀	8	

## 2) 홍보 채널

경상남도교육청의 홍보 채널은 홈페이지, 아이좋아 매거진, 경남교육뉴스 및 SNS 등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SNS는 2016~2018년 크게 확대되다가 이후 효과분

석 등을 통해 적절한 홍보 채널만 남기고 2020년을 전후에 적정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와 비교했을 때 경상남도교육청의 SNS 채널의 개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표 2> 시·도 교육청의 SNS 운영 현황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 그램	트위터	기타	SNS수
경상남도교육청	○	○	○	○	○	운영중단	다음 블로그	6
강원도교육청	○	○	○	×	○	×	카카오톡 채널	5
경기도교육청	○	○	○	운영중단	○	○	틱톡	6
경상북도교육청	○	○	○	×	○	○		5
광주시교육청	○	○	○	○	○	×		5
대구시교육청	○	○	○	○	○	○	네이버 포스트	6
대전시교육청	○	○	○	○	×	운영중단		4
부산시교육청	○	○	○	○	○	○		6
서울시교육청	○	○	○	운영중단	○	운영중단	카카오톡 플친	5
세종시교육청	○	○	○	○	○	×		5
울산시교육청	○	○	○	○	×	×	네이버 밴드	5
인천시교육청	○	○	○	운영중단	○	○	카카오톡 채널	6
전라남도교육청	○	○	○	○	×	×		4
전라북도교육청	○	○	○	×	×	×		3
제주도교육청	○	×	○	×	○	×		3
충청남도교육청	○	×	○	×	×	○		3
충청북도교육청	○	○	○	운영중단	×	×		3
운영중인 교육청 수(평균)	17	15	17	8	10	6		(4.71)



## 나. 인지도 및 활용도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학교 및 교육청 활동에 대한 참여수준, 홍보 채널 활용 양상,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인식 등을 설문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홍보채널의 인지도 및 활용도를 분석하였다. 지역, 성별, 연령, 학교급, 학교 및 교육청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별로 응답을 분류하여 집단별 차이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남도 도민들은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정보 획득 채널로 학교의 안내장, 공지 문자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6.4%). 두번째로 높은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24.76%)로 응답이 나타났다.

둘째, 교직원 집단 및 가족 중에 초·중·고등학생이 없는 집단(이하 비양육 집단)은 교육청 홈페이지 등 공식적 채널을 통한 정보획득이 많았다. 교직원 및 비양육 집단에 비해 양육자 집단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획득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자 집단을 다시 교육청 및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과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으로 나누어보았을 때, 정보의 획득 양상은 유사했다. 다만, 적극 참여 양육자집단은 인적 네트워크 및 SNS를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정보 생산의 역할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적극 참여 양육자 집단이 유의미하게 정보를 생산하는 유일한 집단으로,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 전략에서 이 집단이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적극참여 양육자 집단에서는 인쇄홍보물에 대한 응답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아이좋아 매거진 등의 인쇄홍보물의 콘텐츠가 적극참여그룹을 경유하여 소셜미디어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소극 참여 양육자 집단 관심도나 참여도가 낮으나 가장 많은 수로 여론의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다. 소극참여 집단이 이용하는 여러 플랫폼에서 콘텐츠의 추천 엔진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의 홍보 콘텐츠가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나타나 노출률과 검색율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의 생산과 키워드 등록 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 홍보 채널에 접속한다는 응답은 많이 나타났는데, 국내 인터넷 환경이 포털사이트 의존이 높은 만큼,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한 접근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연계와 검색노출량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이좋아 경남교육매거진은 10~30대 사용자들에게서 높은 활용 수준을 보였다. 특히 10대 사용자는 아이좋아 경남교육매거진에서 활용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이좋아

경남교육매거진이 교육현장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보다 정제되고 친절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인 홍보 채널로 평가된다. 이 부분을 더 강화하여 채널별 타겟층을 구별하고 다층적으로 전략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TV를 통해 방영되는 경남교육뉴스는 70대 이상의 사용자들에게서 높은 활용 수준을 보였다. 이는 경남교육뉴스의 구성에서 조손가정 또는 노년층 양육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특별히 고려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다. 경상남도교육청의 홍보 이미지 분석

각 질문에서 나타난 긍정답변(‘매우 그렇다’와 ‘조금 그렇다’의 합)과 부정답변(‘조금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의 합)을 비교해보면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소통에 적극적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이 교육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의 세 가지 항목에서 부정답변보다 긍정답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경상남도도민들은 경상남도교육청이 학생생활에 관심이 있고 소통에 적극적이며 교육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나는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해 잘 알고 있다’에 대해 부정답변이 긍정답변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경상남도교육청만의 방향성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와 ‘주변인에게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자주 듣는다’에서도 부정답변이 긍정답변을 상회하였다. 특히 정보교류 부분에서 부정답변이 높았는데, ‘나는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정보를 자주 접한다’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긍정답변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소통적극성과 정보교류는 관련성이 높은 항목인데 상반된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소통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는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해 잘 모르고 정보를 자주 접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참여나 소통의 기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낮은 효능감과 주체성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이미지를 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나는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해 잘 알고 있다’에 대하여 거제, 김해, 양산, 통영, 함안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으며, 남해, 하동, 함양은 상대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해 덜 친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들은 학교 및 교육청 관련 기관을 통한 소통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는 응답을 63.93%로 가장 높게 선택하였다. 이는 홍보 효과만이 아니라 학교 및 교육청 관련 기관과 직접 소통하고 참여하고 싶은 소통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즉 경상남도교육청의 홍보 방안이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적인 소통과 의견 반영의 구조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홍보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는 문항에서 20~40대는 웹 기반 홍보 채널을 강화

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10대 및 50대 이상에서는 TV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공청회, 토론회, 포럼, 다모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학생 당사자 비율이 높은 10대와 양육자 비율이 높은 40~60대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및 교육청 관련 기관을 통한 소통 적극 활용’과 같은 경향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의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라. 채널별 인사이트 분석

첫째, 네이버 블로그는 월 100명 이상의 신규접속이 계속 발생하였으며 재방문 역시 월 1,500회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어 홍보채널로서의 효과가 안정적임이 확인되었다. 경상남도교육청 네이버 블로그에서 접속 기기별 평균 접속 시간을 살펴보면 모바일 웹 환경에서의 평균 접속 시간이 PC 환경에서의 평균 접속 시간보다 2배 이상 길게 나타났다. 네이버 블로그 채널에서 모바일 환경에 적합도가 높은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어웃, 즉 상대방이 경상남도교육청 네이버 블로그를 이웃으로 등록하여(다른 SNS의 구독 개념과 유사) 방문하는 수가 월별로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상남도교육청 네이버 블로그를 다시 찾거나 자주 찾기 위해 이웃 등록을 하는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서로이웃은 공공기관 계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지만 이웃 수는 고정적 홍보 효과를 위해 증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유튜브 채널을 2021년 2월 16일부터 2021년 5월 16일까지 90일간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교육청 유튜브 시청자는 성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청의 홍보 채널은 여성 사용자의 접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이므로, 경상남도교육청 유튜브의 사용자 성별 구성이 유사하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만 하다. 또한 시청 시간이나 평균 조회율 역시 성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탐색 기능 및 유튜브 채널 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는 비율은 0.7%에 불과했다. 탐색 기능은 특정 콘텐츠를 목적으로 한 조회이며, 유튜브 채널 페이지는 경상남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찾아 조회한 것이므로 가장 목적지향적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평균 시청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호적인 유튜브 사용자 집단의 필요를 경상남도교육청 유튜브 콘텐츠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유튜브는 자료의 양이 방대해서 사실상 알고리즘에 따라 사용자에게 추천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노출률을 늘릴 수 있도록 콘텐츠의 제목과 설명이 관련성이 높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콘텐츠들의 제목은 공문 등에서 통용되는 제목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어 유튜브의 노출률을 증가시키기 어려우므로, 제목을 전략적으로

게시하고 콘텐츠의 설명을 1~2개 문단으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노출률을 높이는 전략으로 권장된다.

셋째, 카카오톡은 경상남도교육청의 다른 SNS 채널에 비해 조회수가 매우 낮아 홍보 효과 역시 적다. 학생의 양육자 비율이 높은 30~50대 연령대의 이용률이 높은 카카오톡에서 조회수가 매우 낮은 것은 경상남도교육청 카카오톡 계정 콘텐츠 소비를 실제로 이끌어내는 효과가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는 쌍방향 소통의 플랫폼으로 카카오톡이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쌍방향 소통과 콘텐츠의 빠른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활용하는 SNS 소통 채널로서 카카오톡의 적정성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 4. 결론 및 제언

##### 가. 경상남도 홍보 방향성에 다른 조직구조 개편

일방향적인 전달이라는 전통적 홍보 전략에서 벗어나 경상남도교육청만의 홍보 방향성을 설정하고 홍보 정책의 지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미디어담당, 시민소통팀 등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홍보 전략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구조로 개편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의 규모에 맞도록 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한다.

##### 나. 홍보 주체 다양화를 위한 연수와 데이터베이스 운영

최근의 홍보 환경은 콘텐츠 생산의 주체와 소비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경상남도교육청 홍보 채널 활용도 분석에서도 적극 참여 양육자 집단은 콘텐츠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도교육청 중심의 홍보는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포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콘텐츠의 소비 분석 결과에서도 도교육청의 홍보 콘텐츠보다 각 지역과 학교의 맥락이 포함된 콘텐츠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진 및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홍보주체 다양화 및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를 진행하여, 교육지원청과 학교 그리고 학생과 보호자 등 홍보콘텐츠 생산의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다. 지역별 홍보 방안의 다층화

거창, 남해, 밀양, 의령, 하동, 함양, 사천 등의 지역에서 경상남도교육청과 소통 및 정보교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모바일보다 pc 접속률이 높고, 즐겨찾기나 구독 목록을 통한 채널 방문 비율이 높으며, 아는 사람의 공유나 추천을 통해 경상남도교육청의 정

보를 접하는 비율이 높다. 즉 인적 네트워크와 고정적 접속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이다. 이는 전체적인 홍보채널 강화와 콘텐츠 생산이 이들 지역에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는 인적 네트워크와 홍보 전략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모 사랑방 등을 확대하고 해당 행사의 내용을 온라인 콘텐츠화 하여 대면 접촉과 온라인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을 확장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라. 채널별 홍보 방안의 다층화

과거의 홍보는 사람들이 많이 ‘듣게 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현대의 홍보는 사용자의 요구(needs)와 접점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강조된다. 즉 홍보의 축을 사용자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채널별 사용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채널별 타겟층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은 같은 내용과 형식의 콘텐츠를 여러 홍보채널에 동일하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좀 더 분화하여 각 채널별로 다른 형태와 다른 감성, 다른 내용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다층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유영석(2016). 방통위 정책홍보 활성화 방안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6-3.  
방송통신위원회-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 편창규(2016). 홍보매체 효과성 분석 및 맞춤형 홍보용역. 경기도 고양시-효산경영연구소.



2021. 교육정책 자체연구보고서

---

# 포스트 코로나,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모색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이선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파견교사

### 공동연구자

강서정 율하중학교 교사

우정민 안골포초등학교 교사

### 연구협력관

김성례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연구사





## 포스트 코로나,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모색

### I. 서론

본 연구는 경남 최대 규모의 교육 행사인 경남교육박람회에 대한 계속된 변화 요구와 코로나 19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을 찾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 모색을 위하여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경남 전 지역 학생·보호자·교사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와 교육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결과를 통해 대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남교육박람회가 나아갈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II.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로운 방향

#### 1. 경남교육박람회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새롭게 필요로 하는 교육 공유 활동 및 체험의 장에 관한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778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창원 외 지역의 참가가 어렵다는 비판에 관한 분석과 대안이 필요로 하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경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설문 결과, 경남교육박람회는 그동안 교육적으로 유익한 공연, 전시, 체험 등의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장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요자들이 이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남교육박람회의 주요 한계는 창원 개최로 인한 접근성 부족, 학생과 보호자의 경우 참가자 밀집도가 높고, 참여자가 체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밀도 있는 체험이 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 2. 경남교육박람회에 관한 면담 분석

경남교육박람회와 관련하여 기획, 운영, 참가 등의 경험이 있는 교원 24명을 대상으로 경남교육박람회의 성과 및 한계, 대안에 관하여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결과, 인터뷰에 참여한 교원들은 체험의 질을 높이고, 깊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체험관의 확대가 필요하며, 경남 전 지역에서 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권역별로 체험관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단위 학교에 바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확대가 바람직하며,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혁신을 강조하였다.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박람회와 같은 일방적인 홍보, 전시, 이론 중심의 전달은 지양하고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방향을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행사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최근의 교육 방향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 교육의 관점에서 행사의 내용도 대체해 나가야 함이 요구되었다.

## 3. 경남교육박람회의 개선 방향에 관한 시사점

실제 수요자들의 개선 요구 사항을 폭넓게 보여준 경남교육박람회의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 조사와 경남교육박람회의 운영, 진행 등에 관련된 경험을 가진 교원들이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제시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창원 중심의 대규모 전시 행사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창원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남 전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남 전 지역의 교육공동체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공공성과 지역성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 2) 학교급별 대상에 맞추어 전문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제공되어야 한다. 3) 경남교육청의 성과 홍보의 기능의 경우 일방적인 전시와 정책 홍보의 효율에 대해 재검토하여 일방적 홍보보다는 경남교육의 정책과 특색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학생과 보호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온라인 공간에서 교육 활동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과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배제될 수 없는 부분으로 미래교육의 차원에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활용 방안이 계속해서 모색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내용 전달과 홍보가 아닌 소통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프로그램도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학교 현장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5) 교육 현장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교육계의 변화와 미래 교육 등 일상에

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을 기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6) 교사들의 경우 기존의 수업 나눔 활동이나 수업 나눔 축제, 수업 연구 공동체가 비교적 활성화 되어 있어 이를 지원하고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새로운 수업 박람회나 발표 대회를 신설하는 것은 기존의 박람회의 한계로 지적된 사항들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고 업무를 가중시켜 일상 교육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업 공유가 이루어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박람회와 같은 도 교육청 중심의 전시 행사 형태를 해체하고 지역과 참여자의 주체성을 살릴 수 있는 일상 교육과 소통 중심의 교육 공유 활동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교육에 관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용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 Ⅲ. 대안의 모색

개별화 교육과 일상 교육의 강화, 역량 중심의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 등은 경남교육계의 일관된 방향성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방향성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박람회와 같은 대규모의 전시 행사의 형태를 해체하여 학교와 마을의 일상 교육 속에서 공유와 소통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남 전 지역의 교육공동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처를 권역별로 확대하여 학생 체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역량 강화 중심의 지속성 있는 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남의 가야산 도서관 정글북과 예술교육원 해봄 등은 지역 학생 및 도민의 체험처로 기능하는 동시에 여가 활용 공간이 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에서 채우기 힘든 다양한 경험을 보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에도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관, 외국어 체험 센터, 생활 체육 관련 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와 마을 중심의 작은 행사의 확대를 위해 학교 공간을 혁신하고, 교육공동체의 자율적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작은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행사'는 전시성이나 성과 발표 위주에서 탈피한 일상 속에서의 공유와 소통에 중점을 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학교 공간 혁신을 통해 소극장이나 버스킹 무대 등을 마련하여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점심 시간을 활용

한 교내 버스킹이나 마을과 함께 하는 정기연주회, 마을배움터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의 확대를 위해 동아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의 축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다양한 교육 활동의 공유와 소통을 위하여 교사 간의 일상적인 수업 공유 활동의 지원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를 넘어 교육공동체 간의 소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장을 마련하고 수요자가 중심이 되어 교육 활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남교육박람회의 온라인 운영도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남지역의 역량 있는 유튜버나 sns계정 운영과 연계하여 활동을 지원하거나 학생이 중심이 되는 온라인 활동을 기획하여 일 방향의 홍보가 아닌 교육공동체가 활발하게 소통하는 공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IV. 결론

### 1. 요약 및 논의

경남교육박람회가 오랜 시간을 이어져 온 경남 최대 규모의 행사이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남교육박람회의 대안에 관하여 다양한 입장과 논쟁이 존재하였다. 주요 쟁점과 이에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남교육박람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하여 지역교육청 혹은 권역별로 개최하는 것은 지역 간의 접근성의 격차를 줄이고 특색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안되었으나, 오히려 행사의 질이 하락하고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며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규모만 축소된 행사가 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2)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전시와 체험을 제공하는 것은 접근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며,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현재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3) 교육 자료의 누적과 체계화 기능을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유사한 플랫폼의 활용도와 코로나19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수업 나눔 한마당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은 그 효과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추후에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본 연구는 미래교육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개별화된 경험과 역량 강화 등을 강조한 측면이 있는 반면, 미래 교육의 구체적인 형태를 접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미래교육테마파크, 미래 교육 선도 학교 개방 등을 통해

미래 교육의 구체성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검토와 논의가 추후 필요하다.

## 2. 정책 제언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였다. 1)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양하고 질 높은 체험을 공교육 차원에서 제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다양한 체험관의 설립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학교와 마을 중심으로 작은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간 혁신 학교를 확대하고 자율 동아리 지원 및 시민 사회와의 연계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사 간의 자율적인 수업 공유 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교육 활동 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온라인 공간에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4) 급변하는 시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현장의 요구에 맞추어 미래교육의 구체성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2021. 교육정책 자체연구보고서

# 경남행복교육지구 사업성과 분석

(진주, 사천, 고성, 하동 행복교육지구)

## 연구진

### 연구책임자

배정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공동연구자

성일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주동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박경희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 연구협력관

조용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



# 경남행복교육지구 사업성과 분석 (진주, 사천, 고성, 하동 행복교육지구)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환류는 사업의 질 관리뿐만 아니라 행복지구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년 지정의 사업이 마무리된 진주, 사천, 고성, 하동 행복지구의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2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 공교육 확장과 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하여 19년에 개발한 공통성과 지표를 활용하였다. 단일 기준으로 상황이 다른 행복교육지구를 분석하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 있어 설문 결과가 보여주는 절대적 수치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향성을 바탕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 집단 면접)로 지역의 상황을 심층 면접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하였다. 지난 2년간의 사업 분석은 다시 시작하는 이후 행복지구 사업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4개 지구별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별 주요 발전 전략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4개 지구 운영상 발생하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을 알아보고 경남 행복지구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4개 지구별로 사업 운영계획서에 포함된 추진과제 및 세부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진주, 사천, 고성, 하동행복교육지구 사업추진 현황을 비교하고 지구별 특징 분석하였고, 지구별 자체 평가보고서 및 예산 집행액을 비교·분석, 이를 토대로 지구별 사업 운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2019년에 개발된 공통성과지표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진주, 사천, 고성, 하동지구 사업성과를 분석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좀 더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의 성과 및 한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담당자, 교사,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FGI를 통해 종합한 자료는 지구별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SWOT 분석에 활용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강점 및 약점, 기회 및 위협 요인을 살펴보고, 지구별 발전 방안과 경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3. 연구결과

#### 가. 지구별 사업 추진현황 및 특징 분석

4개 지구별 사업 추진현황 분석하기 위하여 4개 지구의 사업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중점 활동 및 예산,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 인력구성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도별 사업내용, 예산 집행액, 자체평가보고서, 각 지구 행복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구별로 사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 나. 설문조사 분석

설문조사는 공통성과 지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사업의 목표와 사업의 전반적 성과 영역으로 나눠 진행하였으며 지구 내 결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았다. 지구별 사업성과 분석은 지표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경향적으로 교육 공동체의 인식변화와 행복지구 사업 효과를 추론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업의 목표 영역에서 학교혁신과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서는 학생, 교사에 상관없이 학교혁신 부분의 점수가 지역공동체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행복교육지구 4대 추진과제인 ‘행복학교 일반화’가 수업혁신과 민주적 학교문화와 관련된 학교혁신 영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생-교사관계’와 ‘교직원간 관계’ 점수가 학생, 교사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인데 이는 학교혁신의 근간이 되는 교육 주체 간 관계성 회복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학교혁신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는 학교혁신의 성과가 초·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학교혁신에 비하여 지역공동체 부분의 점수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역공동체 관련 학교 수업과 지역사회의 연계,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목표와 관련된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지역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한 체험학습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둘째, 마을학교 운영과 관련한 만족도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이 마을학교 운영에 대하여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중 초등학교 교사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 학생들은 ‘마을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체험 할 수 있었다’와 ‘마을학교에서 체험한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 문항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학부모들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마을학교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우리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 대상 마을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문항에 높은 점

수를 주었다. 교사들은 ‘마을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은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준다’와 ‘우리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민 대상 마을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문항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셋째, 혁신지구 사업의 결과의 성과 중 학생들의 역량 계발 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0대 전후로 높은 점수를 보여준다. 특히 ‘의사소통 능력’과 ‘민주 시민성’이 ‘자기주도성’과 ‘진로성숙도’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혁신지구 사업이 학생들의 역량 계발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마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의 역량 계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마을학교를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 마을학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역량 및 지역 공동체 의식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진주, 사천, 하동지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없었고, 고성지구만 마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 값을 보였으며 특히 ‘민주시민성’,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진주, 사천, 하동지구의 경우도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에는 역량이나 지역공동체 의식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주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마을학교가 참여하는 학생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 할 수는 있다.

넷째, 행복교육지구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기대는 학부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진주지구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이해 및 기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사가 학부모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행복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높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동지구를 제외한 세 개 지구에서 행복교육지구 관련 설명회에 참여 한 경우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서 학부모, 교사 모두의 점수가 매우 높게 나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 인식에서도 학부모, 교사 모두 전 영역에서 행복교육지구 관련 설명회에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평균 이상으로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이해 정도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학부모 및 교사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인식은 상대적으로 교사들이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특히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영역에서 전 지구 교사들이 4.0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여러 사업이 학교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업성과 인식을 영역별로 보면 학부모는 ‘학교생활 만족도 증가’, ‘학생과 교사 간 관계 개선’, ‘학교교육과정 다양화’ 등 학교 관련한 영역의 사업을 높게 평가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인프라 확충’,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 ‘학부모 및 지역민의 교육활동 참여 증

가’ 등 지역사회 인식과 관련한 영역의 사업을 낮게 평가 하였다. 이는 학교 혁신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행복교육지구의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서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를 단편적으로 이렇게만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학교혁신의 경우 실행할 주체가 학교 구성원으로 분명한 대상자가 있는 반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경우는 마을활동가의 발굴하고 조직해서 사업을 함께하는 주체로 만들어야 하는 큰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할 때 성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사업성과 인식에서 교사들은 ‘학교교육과정 다양화’,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증가’,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제고’ 등 학교, 학생, 지역사회 관련성과 전 영역에 걸쳐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학교 간 교류활성화’, ‘교직원 간 소통문화 개선’,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 확충’ 등의 영역 순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 교사들은 교육과정과 관련 된 행복교육지구의 지원 사업이 단위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사들이 낮은 평가를 준 항목은 현재 학교 문화에서 극복해야할 과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며,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주적 학교문화와 관련 깊은 ‘교직원 간 소통문화 개선’과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관련이 깊은 ‘학교 간 교류 활성화’ 부분은 학교 혁신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교사들을 대상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진주, 고성, 하동지구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지역자원 인프라 구축’과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구축’ 순으로 제시했으며, 사천지구는 순서만 바뀌어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구축’,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지역자원 인프라 구축’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으로 교육활동에 행복교육지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 자원을 발굴 하고 및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교육활동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지역교육과정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즘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고충이 드러난 것으로 생각된다.

#### 다. 지구별 SWOT분석

지구별 사업 운영 현황 및 특징 분석, 지구별 자체 평가보고서, 설문조사, 지구별 사업담당자 및 관내 교사, 마을활동가(마을교사) 대상 FGI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구별 SWOT 분석을 실시 하였다. 또한 SWOT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구별 발전 전략을 모색하였다.

각 지구별 SWOT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p>① 진주시구</p> <p>사업 내부 현황</p> <p>외부 및 사업 환경</p>	<b>강점(S)</b>	<b>약점(W)</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유휴공간 활용한 행복교육지원센터 및 진주행복마을학교 구축 예정(2022)</li> <li>• 전담 장학사 배치로 업무의 연속성 확보</li> <li>• 관내 행복(나눔, 맞이)학교가 16교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도 높음</li> <li>• 초등 행복학교연구회,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 자율적 운영</li> <li>• 센터 소속 마을교사 자율적 서로배움터 활발</li> <li>• 마을교육공동체, 지역 내 시민 단체 활동 활발</li> <li>• 다양한 주제로 여러 지역에서 지역중심 마을학교 운영</li> <li>•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다양한 분과의 마을교사 양성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미흡</li> <li>•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 및 협조 부족</li> <li>• 학교별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 차이</li> <li>• 보수적인 지역색으로 인해 교육트렌드의 변화에 둔감</li> <li>• 마을교사 활용의 쏠림현상 및 마을교사 간 역량 차이</li> <li>• 학교협력형 마을학교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의지 부족</li> <li>• 교사들의 학생중심 마을학교 참여 동기 부족</li> <li>• 마을교사 협력수업 시 담임교사(교과 교사)간의 협력체제 부재</li> <li>• 마을학교 및 마을교사에 대한 학교의 이해 부족으로 마을교육과정 추진에 어려움</li> </ul>
<b>기회(O)</b>	<b>SO전략</b>	<b>WO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열이 높은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초 45교, 중24교, 고23교, 학생수 45,646명)</li> <li>• 지자체차원의 교육사업에 대한 직접 투자 많음</li> <li>• 지자체 관할 진로 및 직업 체험 기관 다수</li> <li>• 서부 경남의 중심지로서 교통 편리 및 우수하고 다양한 인적자원 풍부</li> <li>• 혁신도시 내 젊은 인구 비율 증가 및 학령층 인구 비율 높음</li> <li>• 지역민의 마을 학교 및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참여의지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주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 교육 사업과 협업체계 구축</li> <li>• 행복학교 연구회 중심으로 행복교육지구 사업 확대</li> <li>• 진주행복마을 학교 구축, 학생들의 마을학교 참여 확대</li> <li>• 지자체 교육인프라 활용한 진로체험활동 강화</li> <li>• 진주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간지원 조직으로 구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기반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상설 소통 창구 마련)</li> <li>• 혁신도시 인프라 중심의 마을교육과정 및 마을교과서 제작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li> <li>•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사업 확대</li> <li>• 학교협력형 마을학교 연수를 통한 학교 참여의지 확대</li> <li>• 교육공동체 및 마을교사 대상 행복교육지구 토론회실시</li> <li>• 마을교육활동가 양성을 통한 행복교육 지구 확산 및 홍보</li> </ul>
<b>위협(T)</b>	<b>ST전략</b>	<b>WT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권역별로 교육적 인프라 격차 높음.</li> <li>• 혁신도시내 과밀학급의 문제점과 구도심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문제 공존</li> <li>• 혁신교육과 입시중심의 경쟁교육 공존</li> <li>• 고등학교 입시 중심 교육으로 청소년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참여율 저조</li> <li>• 학부모 및 지역민의 혁신교육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도 낮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과 별 마을교사 연수로 지역의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및 활동영역 확대</li> <li>• 학부모, 지역민대상 행복마을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li> <li>• 행복학교 연구회 중심의 행복학교 철학 및 과제 실천사례 공유</li> <li>• 행복마을학교 활용 청소년 자치배움터 운영으로 청소년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참여 확대</li> <li>• 단위학교와 마을학교 연합 마을교육과정 개발 TF팀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교사와 마을교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교사-마을교사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li> <li>• 마을학교 워크숍 및 사례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마을학교 간 협력적 연대 지원</li> <li>• 마을교사 대상 행정, 기록 관련 연수를 통한 홍보 확대</li> <li>• 학부모, 지역민 대상 행복교육지구 홍보로 참여 증진</li> <li>•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li> </ul>



<p>② 사천지구</p> <p>사업 내부 현황</p> <p>외부 및 사업 환경</p>		<p><b>강점(S)</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지원청과 시청 실무담당자 간 소통 원활</li> <li>학부모 및 지역민 주도의 마을학교 운영</li> <li>메이커 스페이스(거점형 2개, 소규모형 3개, 평생학습센터 1개, 총 5개) 구축을 통한 미래사회 대비한 인프라 구축</li> <li>교육공동체 구축에 대한 마을교사의 열정과 의지가 강함</li> <li>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지역 교육인프라(생태, 역사, 환경) 풍부</li> </ul>	<p><b>약점(W)</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부재</li> <li>마을교사 활용의 쏠림현상</li> <li>마을교사 협력수업 시, 학교의 업무 지원팀과 담임교사 간의 소통 부재</li> <li>일반주민의 사업 참여 장벽(예산 교부 불가)</li> <li>지역민 대상 사업 부족 및 참여도 낮음</li> <li>행복교육지원센터 및 평생학습센터 내 마을교사들의 협업이나 협의를 위한 공간 부재</li> </ul>
		<p><b>S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중심 마을학교 운영의 내실화 및 질 관리</li> <li>지자체, 교육청 간 실질적인 소통 창구 마련(상설협의체 설치 및 운영)</li> <li>사천행복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청소년 학교 안·밖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li> <li>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마련</li> <li>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사천행복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업무 적극 지원</li> <li>사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마을교사간 네트워크 구축</li> </ul>	<p><b>W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교육 아카데미 운영으로 지역의 마을활동가 및 마을교사 양성 및 발굴</li> <li>지역협의체를 통한 지역민 교육지원 및 주문 참여 사업 발굴</li> <li>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한 지역 중심 및 학교협력형 마을학교 운영</li> <li>교원, 마을교사 대상 공동 연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li> <li>행복교육지구 질 관리를 위한 나눔의 장 마련 및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사례 공유</li> <li>행정 절차의 간소화 방안 마련 및 마을교사 대상 행정 관련 역량 강화 연수 지원</li> </ul>
<p><b>기회(O)</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나 교사들의 행복교육지구 공모 사업(학생 중심 마을 학교, 마을교육과정, 행복한 학습공동체) 참여도가 높음</li> <li>자유 학기제, 고교 학점제 관련 진로·직업체험에 대한 학교의 요구</li> <li>학부모 및 지역민 주도의 마을학교 운영 의지가 강함</li> <li>학부모의 마을학교 참여에 대한 의지가 강함</li> <li>3년차에 접어들면서 마을교사 협력 수업으로 마을교사와 교사 간의 관계 형성</li> </ul>	<p><b>S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모 및 지역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강화</li> <li>행복학교 연구회 중심의 행복학교 철학 및 과제 실천사례 공유</li> <li>행복마을학교 중심의 청소년 자치배움터 활성화 &amp; 중·고등학생 참여 확대</li> <li>행복학교 네트워크 중심의 혁신교육 이해를 위한 행복교육지구 사업 확대</li> <li>학부모 대상 행복교육지구 사업 홍보 강화</li> </ul>	<p><b>W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천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li> <li>학교교사와 마을교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교사-마을교사 상설협의체 구성 및 운영</li> <li>소규모 마을학교 나눔 축제를 통해 마을학교 간 협력적 연대, 마을 내 마을 교육공동체 형성</li> <li>일반학교의 혁신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li> <li>학교문화혁신을 위한 관리자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교육 연구 및 정보 교류</li> </ul>	
	<p><b>위협(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간의 거리가 멀고 교육환경 다름</li> <li>학교급별 혁신교육과 입시중심교육에 대한 생각이 상이</li> <li>학부모 및 지역민의 혁신교육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이해도 낮음</li> <li>일반학교와 행복학교 간의 학교문화 차이</li> <li>단기적 성과 요구 및 행정적 절차의 유연성 부족</li> <li>인구 유출이 많음, 학생수 감소</li> </ul>		

<p>③ 고성지구</p> <p>사업 내부 현황</p> <p>외부 및 사업 환경</p>	<p><b>강점(S)</b></p>	<p><b>약점(W)</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장 및 지자체장의 확고한 미래교육비전을 통한 아동·청소년 지원</li> <li>· 지역주민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li> <li>· 민·관·학 합동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경험과 주1회 행정업무정례회 통한 기관 협력관계 구축</li> <li>· 학교의 교육변화의 의지 확대</li> <li>· 도지사, 도교육감의 지속적인 행복교육 지원 의지</li> <li>· 2020. 행복교육지구운영 조례 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 고령화로 취학 인구 감소</li> <li>· 면지역 마을의 높은 고령화율</li> <li>· 소규모학교 복식학급 증가</li> <li>· 지역 내 아동, 청소년 문화 공간, 돌봄 공간 부족</li> <li>· 다양한 진로교육지원을 위한 인적 자원 및 체험기관 부족</li> <li>· 마을교사 인력풀 구성 시 다양한 분야가 아닌 공예나 문화 예술쪽으로 영역이 치우쳐 있음</li> <li>·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인식 부족</li> <li>· 학부모의 마을교사 활동 참여 부족,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li> </ul>
<p><b>기회(O)</b></p>	<p><b>SO전략</b></p>	<p><b>WO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성청소년수련관 구축으로 지역과 연계의 장 마련</li> <li>· 다양하고 풍부한 인문생태환경자원 구비 (교육기부, 군민사회단체, 문화예술인 등)</li> <li>·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및 공모 선정</li> <li>· 소규모학교 간 동학년 네트워크 운영</li> <li>·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 공모선정</li> <li>· 도시재생, 생활 SOC복합화,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 공모선정</li> <li>· 청소년센터 및 미래교육센터 개관</li> <li>· 돌봄, 습지, 독수리, FDA 청정해역 등 청정자연 도시</li> <li>· 청소년바우처(수당) 지급</li> <li>· 아동친화도시조성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성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li> <li>· 고성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학교 교육과정 운영</li> <li>· 행복교육지구 홍보 활동 강화</li> <li>· 민·관·학 행복교육지구 거버넌스 교육모델 구축</li> <li>· 고성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간지원 조직으로 하여 고성교육공동체 협업을 통한 질 높은 교육 분위기 조성</li> <li>· 소규모학교에 대한 마을교육과정, 프로젝트 수업, 그에 따른 개별 평가방법 연구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학교급 간 연계와 협력으로 지역 학교 지원</li> <li>· 지역 학생의 성장을 위한 학교와 마을의 협력체제 구축</li> <li>· 주민자치와 교육의 협력-주민자치분과 안에 교육분과 설치 및 운영-협업을 통한 마을학교 운영</li> <li>· 교원, 마을교사 및 학부모들을 위한 대중강연 개최 및 공동 연수 운영</li> <li>· 행복교육지구 질 관리를 위한 평가 및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사례 공유</li> </ul>
<p><b>위협(T)</b></p>	<p><b>ST전략</b></p>	<p><b>WT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원, 진주, 사천, 통영, 거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지역 아동, 청소년의 도시 진출</li> <li>· 조선산업 위기에 따른 장기적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 위축, 전입인구 대비 전출인구가 많음</li> <li>· 체계적인 진로·진학교육 미흡으로 지역 우수 인재 외부 유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나 행복한 교육기회 확대</li> <li>· 다양한 체험과 협력기반의 행복교육으로 즐거운 배움 확산</li> <li>· 개인 및 행복 동아리 등 마을 학교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li> <li>· 학부모 및 지역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강화</li> <li>·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혜택 홍보 및 학생 중심의 행복교육 실현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 확대</li> <li>·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업을 통한 교육생태계 확장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들의 불안 감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지향적 특색교육으로 인구 유입 증대</li> <li>· 학생 자치 활동, 자유학년제, 진로진학, 동아리지원으로 자치 배움 환경 조성</li> <li>· 소규모, 권역별 마을교육공동체 어울림마당을 통한 마을과 학교 간 협력적 연대 기회 마련</li> <li>·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마을교사 대상 행정 관련 역량 강화 연수 지원</li> <li>· 학부모 대상 행복교육지구 사업 홍보 강화를 통한 마을교육의 중요성 알리기</li> </ul>

<p>④ 하동지구</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업 내부 현황</b></p> <p style="text-align: center;"><b>외부 및 사업 환경</b></p>		<b>강점(S)</b>	<b>약점(W)</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전초등학교 고남분교장을 리모델링하여 행복교육지원센터 및 하동행복마을학교 공간 마련(독립된 공간)</li> <li>학부모 및 지역민 주도의 마을학교 운영</li> <li>예산 집행 방법을 혁신하는 적극적인 행정</li> <li>지역의 차별화된 특색사업 개발 및 운영 (고장 사랑 하동 투어, 별 하나 여행기 가족캠프)</li> <li>지역의 여러 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업 진행</li> <li>각 학교의 체험학습을 지원하는 버스 제공</li> <li>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별하늘 꿈찾기 수업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미흡</li> <li>학교별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 차이</li> <li>마을교사 활용의 편중 및 마을교사 간 역량 차이</li> <li>일반주민의 사업 참여 장벽 및 지역민 대상 사업 부족</li> <li>학생자치배움터의 접근성 불편</li> <li>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저조한 참여</li> <li>행복교육지구 운영 3년차임에도 부족한 사업인지도</li> </ul>
<b>기회 (O)</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동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실현 가능</li> <li>마을교사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도</li> <li>하동행복마을학교의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 실현 가능</li> <li>징검다리 하동청년센터 건립 예정 (2022년)</li> </ul>	<b>SO전략</b>	<b>WO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부모 및 지역민 주도의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li> <li>하동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색사업 개발 및 운영</li> <li>체험버스를 활용한 하동의 체험 자원 활용</li> <li>하동 행복 교육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하동교육공동체 기반 조성</li> <li>마을학교 축제 및 나눔의 장을 마련하여 마을학교 간 협력적 연대 기회 마련</li> <li>행복학교 및 행복학교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행복교육지구 사업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를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전략 마련</li> <li>하동행복마을학교를 활용한 마을교사 역량 강화 연수 및 지역민 대상 사업 실시</li> <li>중·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li> <li>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마을교사 대상 행정 관련 역량 강화 연수 지원</li> <li>청년문화공동체와 함께 지역에서의 삶을 꿈꾸는 청소년 네트워크 조직</li> </ul>	
<b>위협 (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자원으로 활용할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 미흡</li> <li>읍과 면간의 교육환경 상이 및 격차</li> <li>교육지원청과 군청 실무담당자 간 소통의 어려움(군청에서 업무 전담자를 지정하지 않음)</li> <li>전임 장학사의 부재로 사업 이해 및 연속성 확보 어려움</li> <li>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고 인구의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지역이 많음</li> <li>미래교육, SW교육, 유튜브 등의 정보교육에 대한 마을교사 발굴 어려움</li> </ul>	<b>ST전략</b>	<b>WT전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교육 철학 및 과제 실천사례 공유 및 활동 지원</li> <li>마을교육, 다양한 연수 운영으로 지역의 마을활동가 및 마을교사 발굴</li> <li>학부모 및 지역민 대상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강화</li> <li>지역 생태자원, 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태교육 중심의 미래교육 방안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마을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 자치배움터 활성화 &amp; 중·고등학생 참여 확대 필요</li> <li>학교교사와 마을교사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교사-마을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li> <li>학부모 대상 행복교육지구 사업 홍보 강화</li> <li>일반학교 지원 및 혁신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li> </ul>	

#### 4. 지구별 발전 전략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 개선 방안 제언

##### 가. 지구별 발전 전략

앞 장의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네 가지 전략들을 토대로 지구별 주요 발전 전략을 각각 제시하였다. 또한 지구별 SWOT 분석을 통해 공통으로 드러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경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지구별 주요 발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진주지구의 주요 발전 전략으로는 첫째, 진주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마을활동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교육거버넌스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둘째, 진주행복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마을활동가와 마을학교의 성장을 위한 마을학교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마을교육공동체의 안착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중심 마을학교 간의 연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 자치배움터 운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사천지구의 주요 발전 전략으로는 첫째, 중간지원조직으로 공동협력센터를 설치하여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천지구 사업의 확장성을 위하여 지역 자원을 반영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마을학교가 활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활동장소 등)이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 학부모 및 지역민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고성지구의 주요 발전 전략으로는 첫째, 고성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교육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성지구의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실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와 마을의 협력이 필요하다. 마을교육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삶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마을이 교육과정으로 들어와 학교교육과정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중심 마을학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권역별 거점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하동지구의 주요 발전 전략으로는 첫째,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높여야 한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전담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마을교사의 역량강화와 마을학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와 마을활동가 사이 소통 강화를 위한 학교-마을활동가 상설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여섯째, 마을교육공동체 활

동의 장으로서 권역별 공간 발굴 및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 나. 행복교육지구 사업개선 방안

경상남도 교육청은 2022년에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2021년 7월에 통과 되었다. 이번 행복교육지구 성과 분석에서 나타난 지역의 공통적인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언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교육의제 발굴과 협력을 위한 지역교육회의(포럼)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행복교육지구의 사업 확장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행복교육지구 담당자의 인사와 예산사용 관련 문제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주체로 학생자치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언 하였다.

2021. 교육정책 현장연구회 연구보고서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초등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실천과제 적용 중심 -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 연구진

### 연구책임자

고두철 칠천초등학교

### 공동연구자

김경모 합천교육청

장유나 사등초등학교

박윤경 성산초등학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초등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실천과제 적용 중심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COVID-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위기 상황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와 함께 학교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기후변곡점을 몇 년 앞에 두고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교육으로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미래를 미래세대에게 약속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2)는 교육이야말로 기후변화 영향을 대비하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천이 되기에 교육정책과 교과과정으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켜야 하며 적응과 완화의 측면에서 기후변화를 대처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초등학교는 환경 의식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궁극적으로 환경 의식의 함양과 행동을 이끌어 낸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서우석, 1999) 담임교사에 의해 다양한 맥락에서 환경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 매우 이상적이라 할 수 있고(심정은, 2009) 의무 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있다(최영분, 노경임, 민병미, 2002).

이는 것을 실천하는 힘을 기를 때, 학생의 성장과 함께 지구 환경도 변화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들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소재로 경남교육청에서 개발·보급한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실천과제>에 주목하였다.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는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의 관심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은 행동하면서 배우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앎과 실천이 함께 강조되는 실천 지향의 환경교육은 초등학생의 발달단계에도 잘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천과제들을 보다 유의미하게 교육하려면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실천과제>와 기존의 교육과정을 밀접하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실천과제>와 교육과정을 연계한 맵핑자료를 개발하여 각 교과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교육적 요소들을 체계화하고 가시화하였다. 또 100대 실천과제 중 12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재구성자료를 제작함으로써 교사들의 실제 환



경수업을 돕고자 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세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 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현장 적합도를 제고하였으며 전문가의 자문으로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느끼고 알게 된 점을 토대로 100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한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천’ 중심의 초등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경남교육청에서 이미 개발·보급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경남교육청 정책상의 일관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되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실천과제>와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맵핑자료를 개발한다.

나.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실천과제>와 연계한 교육과정 재구성자료를 개발한다.

다.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가. 문헌연구

논문, 학술지에서 ‘초등학교 환경교육’ ‘초등학교 기후변화교육’ ‘생태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검색어로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참고하였다. 연구문제 1의 해결을 위하여 초등학교 전 학년, 전 교과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와 연계되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연구문제 2의 해결을 위하여 초록나라, 초록세상(국가환경교육센터,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교육부, 2019), 기후변화교육(그린스타트, 2011),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참고 교재(환경부, 2009) 등 주요 환경교육 기관과 타지역에서 개발된 초등학교 환경교육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고 참고하였다.

## 나. 환경교육 전문가 자문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 교사 모임>에서 매주 1회씩(2021년, 약 10개월간) 실시되는 환경교육 연수를 받으며 모임 내에서 환경교육의 경험이 많은 장학사, 연구사, 교장, 교감, 교사 총 5인에게 본 연구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 다. 설문조사

학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고 교사의 요구와 인식 수준에 부합하는 교육자료를 만들고자 교사를 대상으로 총 3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1차 설문조사

- 가) 설문 목적: 연구 문제 1,2,3과 관련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수준 이해와 자료 개발의 필요성 확인, 자료 개발의 방향성 탐색
- 나) 설문 대상: 실천교사단 교사 75명
- 다) 설문 방법: 온라인 실시(네이버 설문지)
- 라) 설문 기간: 2021.4.21. ~ 5.1.
- 마) 설문 결과의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00대 실천과제와 교육과정을 연계한 맵핑 자료 제작

### 2) 2차 설문조사

- 가) 설문 목적: 연구 문제 2와 관련하여 현장 교사의 요구도를 반영한 자료 개발의 방향성 설정
- 나) 설문 대상: 실천교사단 교사 24명
- 다) 설문 방법: 온라인 실시(네이버 설문지)
- 라) 설문 기간: 2021.7.1.~ 7.8.
- 마) 설문 결과의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도움자료 개발

### 3) 3차 설문조사

- 가) 설문 목적: 연구 문제 3과 관련하여 개발자료의 활용 가능성 탐색 및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 설정
- 나) 설문 대상: 실천교사단 교사 84명

다) 설문 방법: 온라인 실시(네이버 설문지)

라) 설문 기간: 2021.9.1. ~ 9.8.

마) 설문 결과의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의 심층 토론 후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제시

### 3. 연구 결과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실천 맵핑 자료>를 개발하였다.

둘째,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실천 재구성자료>를 개발하였다.

셋째,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년 간의 위계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환경교육 내용 체계표와 성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온·오프라인 학교 환경교육 플랫폼을 보다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실천 중심의 학교 환경교육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교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급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실시된다면 학교급 간의 차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였으므로,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에는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돕는 자료 개발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개발된 교육 자료들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정착되도록 보급과 일반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초등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년 간 위계성을 고려한 환경교육 내용 체계표와 성취기준 등 체계적인 환경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모든 초등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 교육과정의 개발과 구축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21. 교육정책 현장연구회 연구보고서

---

# 아이톡톡을 활용한 경남형 고교학점제 정착방안 마련

아이톡톡학점제

연구진

연구책임자

송태은 금남고등학교

공동연구자

김민정 금남고등학교

강미경 삼천포여자고등학교



# 아이특특을 활용한 경남형 고교학점제 정착방안 마련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임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결국, 이 제도는 기존의 교육정책을 발전시켜 빠르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학생들에게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2018년부터 전국적으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고, 일반 학교에서도 학점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라는 공간은 어느 한 부분도 동일한 상황과 출발점에서 교육을 실행하는 곳은 없다. 학교의 외적인 환경부터 시작해서 학교의 내적인 조직체까지 어느 하나 똑같은 점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조차도 작년과 올해, 그리고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들까지 진로 선택부터 시작하여 학업 성향까지 모두가 다르다. 이처럼 교육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어중간하게 준비가 된 각급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연구학교나 선도학교에서 추진해 온 고교학점제 성과물들을 그대로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결국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고교학점제에서 우려되는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자, 우리 연구회 교사들이 속해 있는 농어촌을 포함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학교 간 교육격차 심화’, ‘교원 수급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가. 연구 대상 및 기간

- 1) 기간: 2021년 3월 2일 ~ 2021년 12월 2일
- 2) 대상: 경남 2개 일반계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대상(학급수 구분: 8학급, 18학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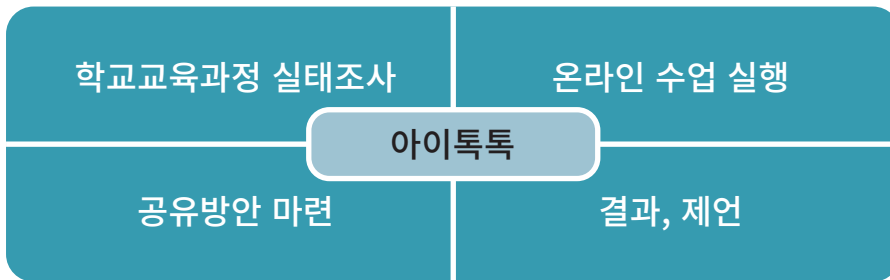
## 나. 실태 조사

### 1) 온라인 쌍방향 방과후 수업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2020년 11월에 본교 1학년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쌍방향 수업인 ‘미술 심리 상담’ 방과후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고교 간 교육격차의 주된 원인인 지역 인프라 차이의 해소방안으로 본 연구회가 마련한 아이톡톡 수업의 개설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 다. 연구 내용 및 방향 설정

### 1) 연구를 위한 프로토타입 설계



### 2) 연구 실천을 위한 방향 설정

#### 가) 2022 교육과정 개정 추진 방향의 이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K-에듀 테크 기반’ 교육과정 설계는 시공간을 넘어선 미래형 교수·학습 및 평가 재설계를 추구하고 있고, 미래 교육은 시공간을 넘어선 한국형 원격수업에 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또한 온라인 쌍방향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실행하고자 한다.

#### 나) 타 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실태

활발하게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확대를 통해 고교학점제를 준비해온 세종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에서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교학점제 정착의 한 축으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계속 시행해 왔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대구 광역시 교육청은 소인수 및 심화 과목을 ‘일과 중 정규 시간 내 온라인 기반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으로 개설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경남교육청 역시 '공동교육과정 제도 정비',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연계'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고교학점제 정착방안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회는 그러한 정책에 빠르게 발맞춰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대비한 온라인 수업을 학교 차원에서 설계하고 실행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제언함으로써 경남교육청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라. 연구 내용

아이톡톡을 활용한 경남형 고교학점제 정착방안 모색	
<b>1. 연구 과제 ①: 학교 교육과정 실태조사</b>	
가. 2021. 1학년 3개년 교육과정 분석	①
나. 2021. 1학년 학생별 희망 학과 및 진로선택 분석	①
↓	
<b>1. 연구 과제 ②: 아이톡톡 방과후수업을 통한 고교학점제 정착방안 모색 (교원수급, 고교간 학력격차 문제 해소)</b>	
가. 2021. 학생 희망학과와 학교 미개설과목 실태 조사	②
나. 학생 진로희망과목 연계 수업의 설계 및 실시	②
다. 학교 밖 자원 활용 수업의 설계 및 실시	②
↓	
<b>1. 연구 과제 ③: 아이톡톡을 활용한 수업공유방안 마련</b>	
가. 온라인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③
나. 온라인 쌍방향 수업도구 활용 역량강화 연수 실시	③
↓	
<b>1. 연구 과제 ④: 운영보고 및 일반화 방안 마련</b>	
가. 운영결과 및 보완점 분석	④
나. 일반화 방안 마련	④



### 3. 연구 결과

#### 가. 「연구과제 1」 2021학년도 1학년 학생별 희망학과 및 진로선택 분석, 시사점

##### 1) 학생별 진로, 진학 희망 분석: 총 3차에 걸쳐 분석함

연번	진로희망(1-1반)	관련학과	본교 미개설과목 중 희망과목
1	로봇연구원	항공과	물리, 지학
2	회계사	경영학, 회계	심리학
3	체육교사	체육교육	생윤, 윤사
4	수의사, 법조인	수의예, 법학	심리학, 중국어, 생윤, 윤사
5	상담사, 심리	심리학	생윤, 윤사, 정법
6	일러스트레이터	시각디자인	윤사
7	이	하	생      략

##### 2) 학생별 진로, 진학 희망 분석 결과 시사점

학생들의 진로, 진학 희망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제2외국어 과목과 일부 진로선택 과목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다양한 과목을 추가적으로 개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학교 교원 수급 현황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임을 다시금 알 수 있었다.

#### 나. 「연구과제 1」 2021학년도 1학년 3개년 교육과정 분석 및 시사점 분석

1) 기초과목에서 학생 선택권은 수학 2과목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학생 진로와 적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어와 영어의 경우 아예 선택권이 없고 모두 학교 지정으로 되어 있다.

2) 탐구과목에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선택과목은 일반과 진로를 포함하여 6과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것 또한 교원 수급 및 시간표 작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기별, 학년별로 구분되어 있어 실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다.

3) 탐구과목에서 물리Ⅱ와 지학Ⅱ는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본교에서 수업 가능한 전공을 담당할 교사가 없어서 개설은 어려운 현실이다.

4) 학교나 지역특색 융합교과 신설은 학생 희망으로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급 문제로 인해 개설은 불가능하다.

## 다. 「연구과제 1」 2021. 학생 희망 학과와 지역 내 학교 미개설과목 실태 분석

본 연구학교 학생들의 개설 희망 교과목 중, 희망 교과를 담당할 교원 수가 부족하여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에 대한 대안책으로 지역 고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 타당성을 조사해 보았다. 위의 결과에서처럼, 지구과학은 지역 내에서 아예 교과를 전공한 교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도 일본어와 중국어 전공만 각각 1인씩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사탐은 현 교원 상황에서도 교사 1인당 3과목 이상을 맡는 실정에서 더 이상의 개설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결과는 ‘2021. 입학생’만을 대상으로 가정한 결과이며, 2학년과 3학년까지 함께 보다면 학생들이 희망한 교과를 모두 개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지역 내 고등학교 연합 공동교육과정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까지의 이동 거리가 자동차로 30분 이상이 걸리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내의 제약을 벗어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라. 「연구과제 2」. 학생 진로희망과목 연계 수업의 설계 및 실시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교실온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신청 및 수강은 교원 수급의 문제로 인해 희망 학생 전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회에서는 일선 학교 차원에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개설을 희망한 교과 과목을 온라인으로 개설하여 실효성을 검증한 후 정규교육과정에 흡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회에서 개설한 ‘2021. 학생 진로 희망 연계 아이톡톡 방과후 수업’ 개설 과목과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학생 진로희망과 아이톡톡 방과후 개설과목: 온라인 쌍방향으로 수업 진행

학생 진로희망	연구회 주관 아이톡톡 활용 수업 개설과목	세부 내용	비고
심리학	1) 미술심리반	1) 진로 희망이 ‘심리학’ 학생 대상으로, 2개 학교 연합 야간 방과후 수업 실시	2개 학교 연합 미술심리반 개설(학교 간 연합 공동교육과정 방안 마련)
사회	2) 진로연계 토의토론반/ 3) 여름방학 00고 진로캠프	2) 인문, 자연, 공통분야라는 3가지 진로로 구분하여 2개 학교 연합 토의토론을 실시	아이톡톡 진로토론 방과후 수업 및 ‘여름방학 금남고 진로캠프’ 실시 후 최종적으로 2개 학교 연합 진로토의토론 활동으로 마무리(학교 간 연합 공동교육과정 방안 마련)
예체능		3) 지역 밖 자원 활용의 일환으로 고등 학생과 대학생 을 연계한 3가지 수업 프로그램 실시	
기타			

교사	4) 예비교사 양성반	4) 교육재능기부의 일환으로 학교 밖 자원 활용	초등학생-고등학생 연계 재능기부 활동 포함
----	-------------	----------------------------	-------------------------

**마. 「연구과제 3」. 아이독톡을 활용한 수업 공유방안 마련**

**1) O2O(온라인 to 오프라인)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고교학점제 정착의 한 획으로 제안한 ‘아이독톡’을 활용한 수업 개선을 위해 교사들 역시 ‘아이독톡’을 활용한 수업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는 아이독톡 관련 연수뿐만 아니라 아이독톡을 활용한 공개수업 및 수업나눔 활동을 교육계획 수립단계에 고려해야 한다.

**2) 학생 대상 아이독톡 활용 진로상담 실시**

2020년 겨울방학부터 실시한 온라인 진로상담은 자유로운 시간 및 공간 선택이 가능하였고, 비밀보장이 확실하여 큰 도움이 되었다. 비록 학생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다.

**4. 논의 및 제언**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여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교과 개설 방안 마련 및 그에 따른 교원 수급의 문제와 고교 간 학력 격차의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특히 경남교육청에서 아이독톡을 활용한 빅데이터 구축 및 온라인 쌍방향 수업 관련 연수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경남에서의 전파가 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평가 가이드라인 및 행정적인 절차를 비롯한 제도적 정비 및 보완책도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제언의 사항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2021. 교육정책 현장연구회 연구보고서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방안

「꿈키움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대승 함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공동연구자

홍숙희 진주교육지원청

박순옥 양산희망학교

유혜숙 양산희망학교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방안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2019년 12월 17일에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8월 7일에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AI·SW교육 중심 교육체계 개편과 미래 선도인력 양성이 중점과제로 포함된 ‘AI·SW교육 확산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 초중등학교 AI·SW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내용과 범위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정보 수업 시간을 확대하며, AI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AI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교육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역량과 기능이므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에서 밝혔듯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다.

하지만 특수교육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거의 없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자료 개발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경우 ‘정보’ 교과가 없어 자유학년제나 교과 연계로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살펴보고, 교과 연계 및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자료를 개발 및 적용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2. 연구 문제

첫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둘째, 예비특수교사의 인공지능 교육 인식

셋째, 특수교사의 인공지능 교육 인식

넷째,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적용

### 3. 연구 방법

인공지능 교육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인식과 개발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과제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분석

#### 1. 특수학교 인공지능 시범 및 선도학교 현황

- 2020년 인공지능 시범학교(2교), 2021년 인공지능 선도학교(11교)

#### 2. 2020. 인공지능 시범학교 운영 내용 분석

- 경남 양산희망학교, 전남 함평영화학교 운영결과보고서 분석

#### 3. 2021. 인공지능 선도학교 운영 내용 분석

- 2021. 인공지능 선도학교 운영계획서 분석

### 연구과제2 예비특수교사 인공지능 교육 인식

○ 예비특수교사 인공지능 교육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 연구대상: 대구지역 D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와 초등특수교육과 재학 학생 38명

- 설문 전 인공지능 교육 온라인 강의 운영(매주 수요일 3시간, 13주)

- 설문도구: 일반적 특성(5), 인공지능 이해(6), 인공지능 인식(3), 인공지능 교육적 인식(30),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30) 문항으로 구성

- 자료분석: SPSS2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 실시

**연구과제3** 특수교사 인공지능 교육 인식

- 특수교사 인공지능 교육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 연구대상: 함양 관내 특수교사와 창원 C특수학교 특수교사 17명
  - 설문 전 인공지능 교육 연수 2차시 2회 실시(큐보로이드 코딩블록, 다이어보드)
  - 설문도구: 일반적 특성(5), 인공지능 이해(6), 인공지능 인식(3), 인공지능 교육적 인식(30),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6) 문항으로 구성
  - 자료분석: SPSS2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 실시

**연구과제4**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적용

- AIDDE 모형을 활용해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적용
  - 교수학습자료 개발 모형: AIDDE 모형
  - 참고자료: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제작한 ‘학교에서 만나는 인공지능’(초등)
  - 발달장애와 뇌병변장애학생 중학생 대상 17차시 자료 개발
  - 경남 양산 H특수학교 5명, 경남 창원 C특수학교 16명, 경기 화성 H특수학교 15명 적용
  - 교수학습자료 평가를 위해 교사 서술식 평가와 설문조사 실시

### Ⅲ. 연구결과

####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공지능 교육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2020년에 인공지능 시범학교를 운영한 학교는 전남 함평영화학교, 경남 양산희망학교 2교, 2021년 인공지능 선도학교를 운영한 학교는 전국 공사립 특수학교 187교(2021년 기준) 중에서 정보교육실구축교 11교, 교육활동모델교 0교로 나타나 2020년에 비해 참여학교 수는 늘어났으나 대부분 환경구축에 치중되었다.

2020년 인공지능 시범학교 운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양산희망학교는 중학교 2학년 정보통신활용 교과 시간에 운영하였고, 함양영화학교는 초등은 5~6학년 실과, 중등은 정보통신활용 교과 시간에 운영하였다. 양산희망학교는 인공지능 내용을 26차시 다룬 것에 비해 함평영화



학교는 SW교육 내용에 취중하였으며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웹콘텐츠를 제작하였다.

2021년 인공지능 선도학교 운영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초등은 주로 실과, 중학은 자유학년제와 정보통신활용, 고등은 정보통신활용이나 진로와직업 교과 시간에 인공지능 교육을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예비특수교사의 인공지능 교육 인식

예비특수교사의 인공지능 교육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대구지역의 D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와 초등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초등컴퓨터과교육' 과목을 수강한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8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는 매주 수요일 15시부터 18시까지 3시간 동안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강의를 13주 진행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잘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이 18명(46.4%)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적 인식과 관련한 각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관심도 3.26, 교과 관련성 4.43, 지식 3.72, 사회에 미치는 영향 4.14, 이로운 점 3.54, 인간에 미치는 위협 3.46, 기회 4.16, 교육에 미치는 영향 2.76, AI교육의 필요성 3.86, 교사 연수 필요성 4.10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생활에 도움이 된다.' 4.21, '학습에 도움이 된다.' 4.16, '진로직업에 도움이 된다.' 4.03으로 나타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립생활과 학습, 미래직업 준비에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특수교사의 인공지능 교육 인식

특수교사의 인공지능 교육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함양 관내 특수교육 교과연구회 소속 17명의 특수교사와 창원 C특수학교의 교실수업개선연구회 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7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는 큐보로이드 코딩블록 2시간, 다이어보드 2시간, 총 4시간 연수를 진행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잘모른다고 응답한 특수교사가 9명(54.94%)로 나타났다.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적 인식과 관련한 각 문항의 평균을 살펴보면, 관심도 3.50, 교과 관련성 4.41, 지식 3.74, 사회에 미치는 영향 4.27, 이로운 점 3.11, 인간에 미치는 위협 2.68, 기회 3.88, 교육에 미치는 영향 2.23, AI교육의 필요성 3.50, 교사 연수 필요성 4.12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생활에 도움이 된다.' 4.18, '학습

에 도움이 된다.’ 4.12, ‘진로직업에 도움이 된다.’ 4.12로 나타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립생활과 학습, 미래직업 준비에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적용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교수학습자료를 ADDIE 모형으로 개발하였다. 교수학습자료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개발한 ‘학교에서 만나는 인공지능’ 초등학교 교재를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발달장애와 뇌병변장애 중학교 학생에게 맞도록 교육내용을 수정하여 지도안과 PPT, 학생용 자료를 17차시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된 자료로 경남 양산 H특수학교, 경남 창원 C특수학교, 경기 화성 H특수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시간에 36명의 장애학생에게 실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특수교사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시별 적절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각 항목에 대한 차시별 평균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수준에 적절하다.’ 4.32,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의 수업내용과 활동 구성이 적절하다.’ 4.60,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한다.’ 4.60,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인공지능 교육에 도움된다.’ 4.60,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목표를 잘 이루었다.’ 4.2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M=4.00)와 만족도(M=5.00)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 I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인공지능 교육 관련 운영 특수학교가 2020년에 2교에서 2021년에 11교로 늘었지만 모두 정보교육실구축교로 운영하여 아직 특수교육에서는 내실있는 인공지능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교육적 인식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예비특수교사 3.26, 특수교사 3.50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예비특수교사 18명(46.4%), 특수교사 9명(54.94%)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 예비특수교사와 특수교사 모두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예비특수교사와 특수교사 모두 4.03 이상으로 응답해 인공지능이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고 예비특수교사 4.10, 특수교사

4.12로 응답하였다. 즉,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교수학습자료를 통한 수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 4.00, 프로그램 만족도 5.00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적절한 인공지능 교육 교수학습자료가 개발되어 제공된다면 준비되지 않은 특수교사도 인공지능 교육이 가능하며,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제언

‘모든 국민에게 AI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AI교육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와 교육부는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장애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찾을 수가 없다. ‘모두’라는 단어에 장애학생도 함께 포함되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이 되기를 꿈꾸어본다.

2021. 교육정책 현장연구회 연구보고서

---

# 배움을 알아가는 마을교육과정

- 앓과 삶이 하나되는 애은 마을교육과정 이야기 -

「애은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지영 대흥초등학교

공동연구자

염미화 대흥초등학교

곽기우 대흥초등학교

정소영 내동초등학교



# 배움을 알아가는 마을교육과정

## - 삶과 삶이 하나되는 애·온 마을교육과정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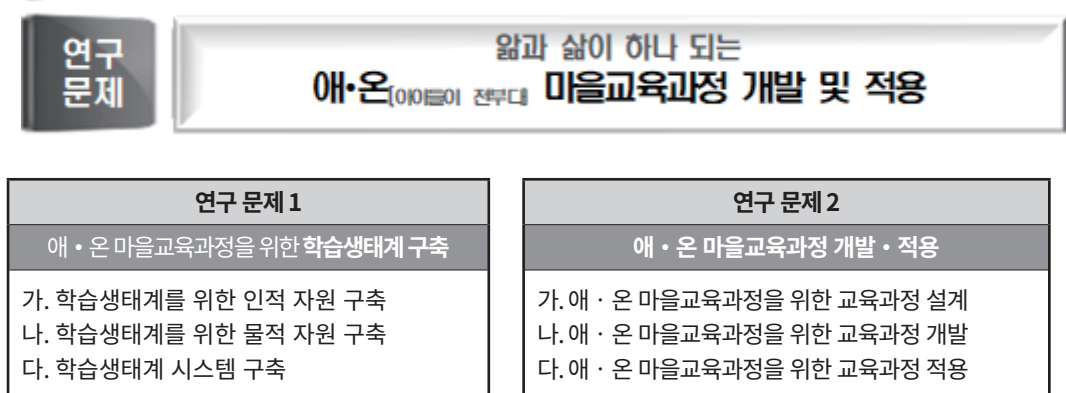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역량’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핵심역량을 통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실제적인 삶의 공간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실제적인 삶의 맥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학교뿐 아니라, 학생의 삶의 장소인 마을로까지 배움의 공간을 확장하여 그 속에서 마을의 다양한 구성원과 만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앞당겨진 미래 교육에 있어서는 수업에서 배운 것을 마을이라는 실제 삶의 맥락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다시 학교 수업에서 다루면서 배움과 삶을 연계시키며, 알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주요한 교육활동이면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삶과 삶이 하나 되는 마을교육과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본교에서는 애온 마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여 삶과 삶이 하나 되는 애온 마을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을 통해 마을 교육 공동체의 각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을 교육과정의 실천방안을 탐색하고 적용해 나감으로써 마을 교육공동체 성장과 관련한 교육활동 개선방안을 탐색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3. 연구 결과

#### 가. 삶과 삶이 하나 되는 애·온 마을교육과정을 위한 학습생태계 구축

삶과 삶이 하나 되는 애·온 마을교육과정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학습생태계를 구축하였다. 인적 자원으로 먼저 본교 학생과 교직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본교 학생들은 학교 주변에서 배움을 확장해 나가는 경험을 얻지 못하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는데, 2017학년도 이후 행복학교와 행복 나눔 학교를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체험활동과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배움에 임하고 있다. 본교 교직원들 역시 행복 나눔 학교의 철학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과 마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상담가와 기초학력 협력 교사가 학생들의 배움을 돕고 있었다. 학교 밖 인적 자원을 파악한 결과 학교 협력형 마을 학교 교사, 고성군 행복교육지구와 매칭된 마을 교사, 다양한 분야의 지역 전문가가 있었다. 전체 학년이 고성 행복교육지구와 매칭된 마을 교사와 협력한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해나가고 있었으며, 3~6학년은 방과 후 마을 학교 교사를 통해 배움을 확장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 전문가가 수시로 교육과정에 투입되어 마을과 연계하여 꾸준히 배우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습생태계를 위한 물적 자원을 분석하였다. 먼저 2021학년도부터 행복 나눔 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을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마을교육과정을 특색 교육과정으로 선정하였으며, 마을교육 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고성군 관내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마을교육과정 운영 실천 사례를 나누고 있다. 고성 행복교육지구 행복 교실에 공모하여 전체 학년이 마을 교사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고성군 대가면)에서 실질적으로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역화 학습 자료를 분석하여 목록화 하였다. 갈천서원, 고성 천왕점 봉수대, 송계리 이씨 고가 등 문화유산 자료와, 제정구 커뮤니티센터와 생가 등 지역의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자료, 고인돌, 은행나무, 팽나무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학습 자료 등 총 24개의 학습 자료를 목록화 하였다.

대흥초등학교 마을교육과정 인적·물적 자원 요약

인적 자원-교내	인적 자원-교외	물적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학력 자원봉사자 ③</li> <li>상담사 ①</li> <li>방과후강사 ⑧</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협력형 마을교사 ⑥</li> <li>매칭 마을교사 111명</li> <li>지역 전문가</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성악전공자/독수리전문가/ 작가/책놀이학부모/상담가 /도예전문가                 </div>	<p><b>[물적 인프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 나눔 학교 운영</li> <li>교육과정 네트워크 운영</li> <li>고성 행복교육지구 행복교실 프로젝트 운영</li> </ul> <p><b>[학습자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꽃공원 - 환경 생태 학습</li> <li>고인돌 - 문화재 학습</li> <li>은행나무 - 수령 약 800년</li> <li>고성향교 - 유형문화재 제219호</li> <li>독수리 - 천년기념물 243호 외 18개소</li> </ul>

대흥초등학교 마을교육과정 학습생태계 모형



**나. 얹과 삶이 하나 되는 애·온 마을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얹과 삶이 하나 되는 애·온 마을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 2021학년도 대흥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가 마을 교육을 기반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학년 담임교사는 교사 수준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에 마을 교육을 고려하여 중점교육내용을 선정하였다.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매칭 마을 교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마을교육이 교육과정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마을교육과정 실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학년	마을 배움 프로젝트 주제 및 내용		
3 학 년	<b>주제: 마을 숲 지킴이 (마을 숲 탐구 프로젝트)</b>		
	<b>이해(주제발현)</b>	<b>탐구 · 체험(주제표상)</b>	<b>사회적 실천(상징화 · 내면화)</b>
	<b>마을 숲 이해하기</b>	<b>마을 숲과 친해지기</b>	<b>마을 숲 소중히 여기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도서 선정하기</li> <li>• 등장인물 상상하기</li> <li>• 식물 이름 맞추기 놀이</li> <li>• 학교 화단 식물 관찰</li> <li>• 식물을 소재로 시 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도감 만들기</li> <li>• 마을 숲 둘러보기</li> <li>• 마을 옛 이야기 조사하기</li> <li>• 대가면 마을 사진 만들기</li> <li>• 마을 숲 식물에게 편지쓰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구 온난화 관련 애니메이션 감상하기</li> <li>•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 토의하기</li> <li>• 마을 생태 올레길 표지판 디자인하기</li> <li>• 마을 숲 이야기 쓰기</li> </ul>	
4 학 년	<b>주제: 마을의 문화유산·인물 탐방하기</b>		
	<b>소주제</b>	<b>활동 내용</b>	<b>시수</b>
	마을 알기	<b>&lt;우리 마을엔 어떤 곳이?&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가면 지도를 통해 지도의 필요성과 구성요소 알기</li> <li>• 학교 주변의 주요 장소 위치 알아보기</li> <li>• 대가면의 주요 장소 탐색하기</li> <li>• 대흥초등학교의 역사 알기</li> </ul>	사회 (3)
	마을 탐방 하기	<b>&lt;문화유산 탐방: 찾아라, 문화유산!&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가면의 문화유산 조사하기 → 양화리 석조여래좌상, 천왕점 봉수대, 법천사지 승탑군, 갈천서원, 소산정사, 송계리 이씨고가</li> <li>• 대가면의 문화유산 탐방하기 → 갈천서원, 소산정사, 송계리 이씨고가</li> </ul> <b>&lt;인물 탐방: 알고 싶어요, 제정구 선생님!&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정구 선생님의 삶 조사하기</li> <li>• 제정구 선생님의 발자취 탐방하기 → 제정구 선생님 생가, 묘소, 커뮤니티센터</li> </ul>	사회 (8)
마을 소개 하기	<b>&lt;마을 지도를 만들어요&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탐방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 제작</li> </ul> <b>&lt;마을 소개 자료를 만들어요&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문화유산 및 인물 탐방 결과를 바탕으로 소개 자료 제작</li> </ul>	사회 (6) 미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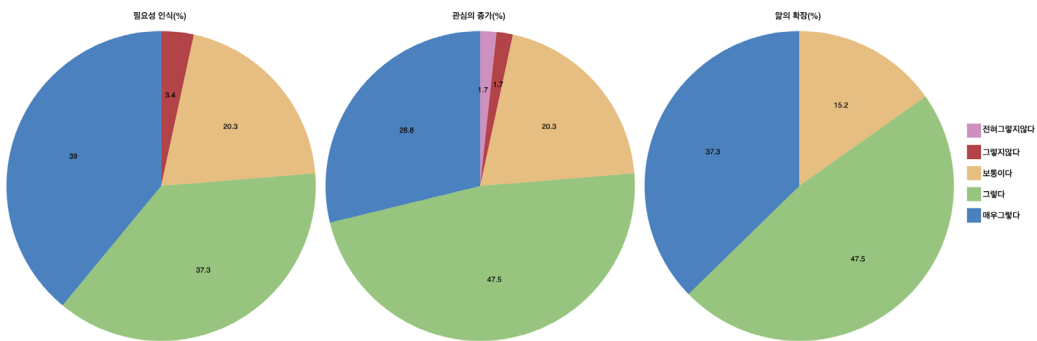
<p>5 학 년</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f2f1;"><b>주제: 우리는 소가야 탐험대!</b></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 책읽기로 배움 열기: 『어린이 가야사』를 읽고 지역의 옛 모습 알기</li> <li>• 문화유산 만들기(미술): 가야의 문화유산이 많이 알려지지 않음을 깨닫기. 모형으로 만들 수 있는 문화유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기</li> <li>• 삼국통일 피구(체육): 삼국의 관계 속에서 가야의 역사가 존재함을 느끼기</li> <li>• 현장체험학습: 고성 지역의 문화유산을 탐방하기</li> <li>• 우리가 만드는 소가야 문화제: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온 지역의 소가야 문화제를 스스로 기획해보기</li> </ul>
<p>6 학 년</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background-color: #e0f2f1;"><b>주제: 대흥 꿈길 프로젝트</b></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span style="background-color: #00bcd4; padding: 2px 5px;">마을을 통한 배움</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9c27b0; padding: 2px 5px;">마을을 위한 배움</span>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b>우리 주변 돌아보고 문제점 찾기</b></div> <p><b>온 책 읽기(선인장 호텔, 숲을 지킨 아이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주변을 다녀와서 느낀 점 말하기</li> <li>• 학교 주변을 다녀와서 좋았던 것, 인상 깊은 것, 불편한 것 등 이야기하기</li> <li>• 모둠별로 이야기를 한 명 가고 한 명 남기를 통해 서로 배우고 알려주기</li> <li>• 서로 배우고 알려주기를 통해 이야기 한 것 중 불편한 것에 대해 더 살펴보기(학교와 마을의 문제점 인식-우리 마을의 환경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li> </ul> <h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span style="background-color: #8bc34a; padding: 2px 5px;">삶과 연결하기</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9c27b0; padding: 2px 5px;">마을을 위한 배움</span>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b>학교 숲과 마을 숲은 왜 연결되지 않았을까요?</b></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숲과 마을 숲이 연결되지 않은 이유 생각하기</li> <li>• 역할을 나누어 학교 숲과 마을 숲이 연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터뷰 준비하기(인터뷰 대상: 교장 선생님, 선생님, 교직원, 부모님, 면사무소 직원, 면장님, 지역사회 어른 등) <span style="color: green;">☞ 형성평가</span></li> <li>• 학교 숲과 마을 숲이 연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터뷰하기</li> <li>•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토의하기(아름다운 학교 숲과 마을 주민을 위한 마을 숲의 연결,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정원완성, 마을 주민과 함께 공존등) <span style="color: green;">☞ 형성평가</span></li> </ul> <hr/>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span style="background-color: #8bc34a; padding: 2px 5px;">삶과 연결하기</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00bcd4; padding: 2px 5px;">마을을 통한 배움</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9c27b0; padding: 2px 5px;">마을을 위한 배움</span>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b>학교와 마을의 조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b></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와 마을 돌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드론 촬영)을 보고 이야기하기, 조화로움을 위한 방안 생각하기</li> </ul> </li> <li>• 행복한 토론으로 ‘학교 숲과 마을 숲’에 대해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라미드 토론으로 마을 숲을 가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생각하기(학생 서명운동, 누리집에 의견 올리기, 학생 시민단체 만들기, 학생 입법청원서 작성하기 등)</li> </ul> </li> </ul>

삶과 삶이 하나 되는 애·온 마을교육과정을 적용한 것을 교사 측면과 학생 측면으로 나누어 평가해보았다. 교사들의 의견은 면담으로 알아보고, 학생들의 의견은 3~6학년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교사들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 학교 협력형 마을 교사와 교육지원청과 매칭이 된 마을 교사와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 것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우리 마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역의 역사적 사실이나 지역의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고,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마을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철학을 공유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마을교사를 선정하여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을교사가 실시할 교육활동 내용에 대한 정보가 학교로 자세히 안내될 때 교사 수준 교육과정에 부합하면서도 내실 있는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학생들은 마을 교육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이전보다 마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마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는 반응도 많았다. 마을교육과정을 경험하면서 좋았다고 평가된 부분들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과 마을의 문제를 직접 개선하는 데에 보람을 느낀 점, 여러 가지 체험 학습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이었다. 아쉬웠다고 평가된 부분들 역시 마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을이 더 잘 관리되면 좋겠다는 등 앎과 관심이 증가되면서 느끼게 된 점이라 말할 수 있다.

마을교육과정과 관련한 학생 설문 조사 결과



####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둘러싼 마을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여 학습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삶과 삶이 하나 되는 애·온 마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로부터 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삶과 삶이 하나 되는 마을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과정에서 학교와 마을은 배움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연결될 수 있다. 마을은 학교에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배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생들은 마을을 통해 배우고(Learning through), 마을에 관해서 배우고(Learning about), 마을을 위해서 배우면서(Learning for) 마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해 나가며 마을과 학교 사이의 공동체적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

둘째, 삶과 삶이 하나 되는 마을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배움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신의 삶과 실제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배우면서 지식을 삶에 연결하는 역량을 기른다.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마을교육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은 마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마을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면서 더 알고 싶어 하고, 더 해보고 싶어 하는 등 배움에 대한 주체적인 역량이 함양되었다.

셋째, 학교 밖의 마을교사 활용은 마을교육과정의 질을 향상한다. 본교에서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한 교사들은 마을교사를 활용한 것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마을교사는 마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학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이므로 담임교사가 제공하기 다소 어려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교사 수준 교육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을교사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마을교사에 대한 정보가 담임교사에게 충분히 안내될 필요가 있다. 마을교사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내용이 더 자세하게 안내될 때 교육과정과 연계된 의미 있는 배움이 실현될 수 있다.

넷째,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마을교육과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마을교육에 대한 철학이 학교 안팎의 구성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담임교사 개인이 마을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시도보다 학교 구성원이 함께 준비하고, 고민하고, 노력할 때 마을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본교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속에 마을교육을 녹아내리면서 교사 수준 교육과정에서 마을교육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복 나눔 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을교육에 대한 철학과 실천과정을 학교 안팎의 구성원들과 지속적으로 공유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마을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확보하고, 교육지원청이 제공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마을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연구가 필요하다.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수준 교육과정 속에서 삶과 삶이 하나 되는 마을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마을교육과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 수준 교육과정 안에 적절히 녹아들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마을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사 수준 교육과정 운영 도움자료가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제공 될 필요가 있다.

둘째, 맞춤형 지원 제공을 위해 마을교육과정 지원 센터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지역 센터와 같은 마을교육과정 플랫폼이 구축 될 때 인적·물적 자원이 학교 현장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제공되어 배움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와의 협력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마을교육 코디네이터 양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을교육 코디네이터가 가져야 할 역량에는 학교 교육과정 및 학생에 대한 이해도, 학교와 학생의 다양한 수준과 환경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역량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021. 교육정책 현장연구회 연구보고서

---

# 자율형 종합감사 자율점검표 적정화 연구

한얼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선영 안남초등학교

공동연구자

최정자 창덕중학교

윤귀정 한얼중학교

양현철 금산초등학교



# 자율형 종합감사 자율점검표 적정화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및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새로운 종합 감사 대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율형 종합감사의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율점검표가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업무와 연계해 사용되고 있는지의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자율형 종합감사를 각 학교에서 좀 더 본인의 업무와 연계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 내용을 제시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점검표 내용을 자율형 종합감사 대상 학교에서는 자율 감사 시 자율점검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자율적 학교 감사문화를 조성하고 창의적 인재 육성에 따른 교육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는지와 교직원 스스로 본인의 업무를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여 업무능력 및 전문성 신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업무의 개선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감사 패러다임의 변화로 예방 감사의 의미로 업무와 예산의 적법·적정한 집행 ‘감시자’ 역할에서, 행정의 효과성을 상시 점검하고 사전에 예방·지도하는 ‘안내자’ 역할 요구<sup>1)</sup> 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학교 현장에서 자율감사가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청렴하고 민주적 학교운명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 연구한 자율점검표의 내용들이 조금 더 학교 현장에 밀접 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 자율감사를 진행하는데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자료로 일반화 되어 활용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자율점검표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는

첫째, 자율형 종합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자율점검표 내용이 점검 분야별로 효과적으로

1) 성용락, 『공공감사제도의 새로운 이해』, 2015



잘 구성되어 있는가?

**둘째**, 자율점검표의 자율적 점검 내용이 학교 현장과 얼마나 깊이 있게 적용 되고 있는 것인가?

**셋째**, 학교 현장에서 자율감사를 실시하면서 자율점검표가 적정하게 구성되어 행정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본다.

이러한 내용을 과제1, 과제2, 과제3으로 정하여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해 보았다.

한얼중학교 부장이 주체가 되는 TF운영회를 구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자율점검표 적정화 연구를 위하여 전교직원과 TF운영회를 대상으로 외부강사 연수를 실시 하였다.

과제1, 과제2, 과제3의 연구 방법으로 인터뷰를 사용하였으며, TF운영회의 보고서 자료도 참고하였다.

인터뷰 문항에는 자율점검표 내용 중 삭제 또는 추가할 내용을 수정 또는 삽입하고 검토하여 각 학교의 교직원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자료를 추출하려고 하였다.

코로나로 인하여 인터뷰는 직접 대면이 아닌 간접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 3. 연구 결과

학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자율점검표 내용이 점검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학사분야 44가지의 점검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점검 분야는 크게 유치원·초·중등 학사관리와 교육과정·평가, 교원인사관리·교육 활동보호, 학생생활교육, 과학·정보·직업교육, 체육·보건교육, 학교도서관·독서교육, 특수교육, 방과후학교로 구분되어 있었다.

I 학사 점검 분야 중 각 분야별 내용이 다른 분야로 이동하였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고, 특히 현재 늘어나고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였다.

그리고 학사 분야의 점검 내용 중에서는 2021학년도에 수정된 내용들이 적용 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수정을 요 하였고 점검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본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음으로 II 일반행정 분야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8개의 점검 분야 중 일반 행정과 학사의 점검 부분을 같이 점검하는 것이 있어 두 분야를 공동으로 점검해야 할 것은 별도 공통점검 분

야로 넣거나 2021. 자율점검표의 6-8 학생교복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해 점검하는 것이 감사 점검의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일반행정의 25가지 점검 항목 내용 중 계약 파트의 내용은 점검해야 할 내용이 많고 계약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참고 서식 자료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자료 추출하여 그 서식 그대로 사용하면 자율형 종합감사의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감사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교직원들의 많은 의견을 참고할 수 있었다.

교직원들의 담당업무 자율점검으로 업무 오류 및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고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소수 부정적인 의견으로 자율형 종합감사가 평상시 자기의 업무를 체크하는 것인데 기간이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면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 4. 논의 및 제언

자율형 종합감사는 각 담당자별 그리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율형 종합감사가 더욱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자 본인의 업무를 잘 숙지하고 점검하여 스스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TF 연구회와 현장 학교의 인터뷰자료를 검토해 보니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 하면서 학교 구성원이 자기 업무를 스스로 점검하고, 상호 교차 점검하여 본인 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타업무의 이해도를 넓힐 수 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또한 자율적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율형 종합감사를 한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런지 몰라 힘들어도 하고 나면 많이 배우게 된다는 점에서 종합선물 세트 같은 느낌도 들었다. 받을 때는 양이 많아 정신이 없지만 하나하나 풀어가는 재미가 있는 것이다.

인터뷰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율형 종합 감사를 문제는 형식으로 폼(form)을 만들어 점검 분야별 점검항목의 내용을 클릭 하면 해당 항목의 내용 점검 시 O는 이행된 사항이니 별도 내용이 없어도 괜찮지만, X를 선택했을 때 미이행에 대한 관련 사항(법규, 사례, 확인서 내용 등)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면 감사 점검 시간도

절약될 뿐 아니라 감사 진행의 부담도 경감될 수 있어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연구서로 대신하도록 하겠다. 또한, 연구에 도움을 주신 한얼연구회 회원 및 자율점검표 점검 및 검토를 위해 애써주신 TF 운영회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 주신 많은 교육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2021. 교육정책 현장연구회 연구보고서

---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경남학부모이야기

연구진

연구책임자

전달래 경상남도교육청

공동연구자

남임정 경상남도교육청

권인숙 창원교육지원청

한은미 거제교육지원청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교육부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9년부터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체제 마련, 학부모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였으며, 그 정책 수행 기반으로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부모지원 전문인력을 채용 배치함
- 경남교육청은 2011년 경남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부모 정책 추진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6개, 2020년 5개, 2021년 1개 지역거점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총 13개 학부모지원센터와 학부모지원 전문인력 학부모지원전문가 15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음
- 지역거점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확대와 더불어 경남 전 지역에서 일관되고 효과적인 경남 학부모 지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 지역거점 학부모지원센터의 급속한 증가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실태 파악이 필요함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가. 연구 내용

- 경남교육청 본청과 지역거점 학부모지원센터 12개의 조직, 인력, 예산 현황을 조사하고 2019년부터 2020년의 학부모지원센터 사업내용을 조사함
- 학부모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한 학부모를 면접조사 하여 학부모지원센터 참여 경험과 학부모 관점에서 본 센터 활성화 방안을 조사함
- 학부모지원센터 전문실무자 학부모지원전문가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업무 수행 및 운영의 어려움과 지원 방안을 조사함
- 학부모지원센터 관리자 서면 자문을 통해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도출함

## 나. 연구 방법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및 학부모지원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경남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 조사를 시행함
- 지역별 학부모 12명, 학부모지원전문가 12명 대상 각 2차례 집단면접을 함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자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3명에게 서면 자문을 요청함

## 3. 연구 결과

- 센터 운영, 기획, 수행, 평가 등 학부모지원전문가 업무 수행상의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예산 관련, 기획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학부모와의 접점이 많은 학부모네트워크 관련 업무의 난이도가 높음. 실제 업무분장 외의 업무 지원과 추진 사업이 다변화 됨으로 인하여 전문실무자의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 학부모지원센터 역할 외의 업무를 단순 지원이 아닌 맡아서 처리하는 등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각 거점센터마다 정책의 해석을 달리하여 사업 추진에 혼란함이 있으며, 권한이 없는 업무에 대한 관리자의 지원이 없고, 합의나 논의 과정이 어려운 거점센터의 구조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
- 잦은 인사이동으로 학부모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가 바뀜으로 인해 학부모 관련 정책을 전문실무자가 떠맡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업무 설명이나 설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음
-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학부모지원센터의 사업이 점점 다양해지고 코로나19 시기와 겹쳐 수시로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거점센터에서 사업추진에 많은 혼란과 업무 가중이 야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체제가 필요함
- 센터의 업무 조정, 센터간 협력, 센터 어려움 지원 등 본청 센터가 거점센터를 지원하고 이끌 수 있는 역할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4. 논의 및 제언

### 가.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논의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체계의 정비: 지역거점 학부모지원센터 전문실무자인 학부모지원전문가가 행정을 포함한 사업 수행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일하고 있는 현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목적과 역할에 맞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학부모지원센터 사업 재정비 필요함. 최소 5년간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 지역에서 공통으로 수행할 사업과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구분하여 우선 추진할 사업, 중점 추진 사업 중심의 업무 추진이 필요함
- 본청 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거점 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 학부모지원센터 전문실무자인 학부모지원전문가의 업무 고유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권한과 역할 강화. 전문실무자 역량 강화와 소진 예방 필요
-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과 연구, 홍보 활동 지속 노력

### 나.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학부모지원전문가 1인 1센터라는 현 조직 구조와 문화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 어려움. 장기 계획과 지원없이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와 문화조성이라는 정책 추진 목적 달성이 어려우며 담당자의 직무 소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우려
- 구조의 개선을 위해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체계에 대한 조직 진단과 명확한 직무 분석, 운영 목적에 적합한 운영체계 구축이 우선으로 필요함





2021. 교육정책 현장연구회 연구보고서

---

# 회계업무 관련 서류 전산화 방안 연구

라움

연구진

연구책임자

주여람 도산중학교

공동연구자

김해숙 김해은혜학교

이성주 경상남도교육청

강명찬 서창고등학교



# 회계업무 관련 서류 전산화 방안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의 업무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전자 업무를 도입하면서 시스템개선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회계 관련 서류는 전자결재와 대면 인장 날인을 이중으로 하고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로 공공기관까지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비대면 업무 증가에 따라 회계업무 프로세스의 재구조화를 통해 행정서비스 방법을 개선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회계관련 서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전산화를 위한 규정을 검토하여 전자보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여 학교에 맞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가. 연구 내용

- 타 기관 문서·서류의 전자적 보관 사례 및 현황 분석
- 학교의 회계 관련 서류 관리 운영 실태 및 인식조사
- 문서·서류의 전자적 보관을 위한 근거 마련
- 학교(기관)에 맞는 전산화 방안 단계적 수립

### 나. 연구 방법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하고 학교의 회계 관련 서류 발생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육행정직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및 현장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 ■ 선행연구 사례 조사

- 1)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 전산화 사례
  - S시 「종이없는(paperless)」재무행정 추진계획

- D시 자료공유 거부
- S시 교육청 정부 혁신과제로 추진 중 중단

## ■ 설문조사 및 현장 심층 면담

### 1) 설문조사 개요

- 가) 목적: 회계관련 서류 전산화에 대한 인식, 출력보관물 활용도, 전산화 방안
- 나) 조사대상: 공·사립학교 교육행정직
- 다) 조사기간: 2021.8.9. ~ 8.20.
- 라) 방법: 인터넷 설문조사(네이버 설문조사, 컴퓨터 및 휴대폰 QR코드 이용)
- 마) 응답자: 총 274명

### 2) 현장 심층 면담

- 가) 직급별 현장 심층 면담 실시
- 나) 현장 심층 면담 개요
  - 목적: 회계관련 서류 전산화에 대한 인식, 출력보관물 활용도, 전산화 방안
  - 대상: 행정실 근무 교육행정직 총 19명
  - 기간: 2021. 9. 13.(월) ~ 9. 30.(목)

## ■ 전자적 보관 근거 마련을 위한 자료 수집

- 1) 관련 법령 검토: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전자정부법 등
- 2) 경상남도교육청 재무회계교육규칙, 경상남도 학교회계교육규칙 분석
- 3) 타 기관 회계관련 법령과 경상남도교육청 회계관련 법령 비교 분석

## 3.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회계업무 관련 서류 전산화 방안의 단계적 계획 수립을 위해 학교행정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기본사항, 실태조사, 전산화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응답자 기본사항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실태조사는 기본사항별 에 따른 교차분석을 시행하여 연령대별, 직무경력별, 직급별 편철된 서류의 활용도와 회계정보 처리방법 선호도, 계약상대자로부터 전자적 증빙서를 받는 횟수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산화 영역은 회계업무 관련 서류를 전산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중요도와 수행도를 측정하고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분석을 통해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이를 알아보

고, IPA분석표 사분면에 나타난 항목들을 평가하여 단계적 전산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 (중점개선영역) 회계업무 관련 서류 전산화 요인 중 5개 항목 [‘출력물 최소화를 위한 지출 및 계약서류 중 필수 출력물 지정 시행’, ‘회계서류 전산보관을 위한 회계업무 규정(법령) 등 근거 마련’, ‘출력물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시스템 전자서식의 표준화’, ‘표준화된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카드사와 매출전표 연계, 세금계산서 자동연계 개선’] 이 중요도는 높지만, 성과는 낮아 최우선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지관리 영역) 회계업무 관련 서류 전산화 요인 중 1개 항목 [‘회계업무(수입, 지출, 계약) 필요 서류 표준화’]는 중요도가 높으면서 수행도 역시 높아 현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속유지 영역) 회계업무 관련 서류 전산화 요인 중 4개 항목 [‘회계업무 규정(법령 등)에 대한 숙지’, ‘회계업무 절차에 대한 숙지’, ‘회계업무 시스템 사용 능력’, ‘에듀파인, G2B(나라장터), S2B(학교장터), ‘EAT(학교급식전자조달) 등 각종 시스템 연계 방법 추진’]은 낮은 중요도에도 불구하고 수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점진개선 영역) 회계업무 관련 서류 전산화 요인 중 2개 항목 [‘회계서류 출력 보관 방식·방법의 체계화’,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 스캔문서 활용방법 개선’]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낮아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회계업무 관련 서류 전산화의 기대효과는 출력물 최소화를 통한 업무경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와 업무 처리의 적시성 확보로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4. 결론 및 제언

본론의 다양한 연구 과정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 가.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규칙 개정을 통한 전자적 보관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지출증빙서류의 출력보관과 영수인 날인이라는 내용을 없애고 전자입력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애초부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원본으로 인정되므로 지출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 도교육청의 경우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65조(증빙서류와 장부의 보존)와 경상남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36조(증빙서류)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

#### 나. 지출업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업무지침 제정

회계업무의 통일성을 위해 회계서류의 표준화, 세분화를 실시하여 업무처리 요령 또는 지침으로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계업무를 계약과 지출로 구분하여 지출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와 필수적인 계약서류만 출력하여 종이문서로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전자형태로 보관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계약분야와 지출분야에 필요한 지출서류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표준화, 세분화 작업 후 필수적인 서류와 그 외 서류로 나누어 업무지침으로 제정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 회계업무 교육 방법 개선 및 확대

연령대 및 경력순으로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의 차이가 크게 나므로 생애주기교육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설문에 참여한 274명 중 88%가 저 경력 실무자로 고경력 자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전산화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온 개선의지 부족 및 관행적인 업무처리를 변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인별 맞춤형 회계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의 행정실 업무는 너무 다양하고 방대하나 회계업무에 대한 영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실무 위주의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신설·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연령대 및 경력순으로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지므로 생애주기별 회계교육시스템이 도입되어 개별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면 저 경력자는 시스템사용 교육 뿐 아니라 회계업무의 법령 적인 근거와 이유에 관한 사항을 병행하고, 고경력 자는 관행적인 업무처리 방법 탈피를 위한 시스템사용자교육과 아울러 보다 깊이 있게 법령 변화와 방향에 대한 내용등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 라. 다른 전자 시스템과의 연계 등 시스템 개선

에듀파인시스템에 연계된 다양한 시스템이 더 효과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신용카드사와의 매출전표 연계,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연계 시행되면 전자결재와 종이 출력물을 병행하는 업무가 줄어들고, 디지털 회계증빙이 되므로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각 시스템 개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타 전자조달시스템과 에듀파인시스템과의 기능개선으로 회계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업무 없애야 한다.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회계업무 전

산화를 위한 시스템 연계나 개선은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이서류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출력물을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어 도교육청 중심의 정책으로 장기적·지속적인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위학교 회계업무 관련 서류 전산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향후 영역별 ① 회계업무 표준화·세분화 ② 회계교육 ③ 회계관련 법령과 관련하여 T/F를 구성하고 보다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종이없는 재무행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1. 교육정책 현장연구회 연구보고서

---

# 공립유치원 민주적 운영 방안

「또바기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지현 경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공동연구자

이은영 창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박민혜 대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진희 석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공립유치원 민주적 운영 방안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치원의 민주적 운영 실태 및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민주적 조직 구조와 문화의 일반적 경향성을 파악하여 유치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유치원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관심과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민주적 유치원 조직 문화와 조직 구조에 대한 공립유치원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 유치원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유치원 조직 문화에 대한 공립유치원 직급별, 기관별 인식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유치원 조직 구조에 대한 공립유치원 직급별, 기관별 인식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유치원 교원의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민주적 운영 방향을 제시한다.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상남도 공립유치원 조직 문화와 조직 구조에 대한 도내 공립유치원 구성원(관리자, 교사)들의 인식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021년 6월 24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주간 경상남도에 소재한 공립유치원 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업무시스템 온라인 설문을 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교원 356명이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에 앞서 연구 내용 및 연구 결과의 적절성,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하고자 전문가 협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는 자문위원 3명, 유아교육 전문직 1명, 총 4명으로 구성하였다. 유치원 조직 구조와 문화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 결과 신뢰도 계수 임계치인 0.7을 넘어 검사 문항의 신뢰도는 충분하다고 파악되었다.

연구의 내용 및 결과 분석, 해석의 적절성 검토, 문항 신뢰도를 바탕으로 <표>와 같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표> 유치원 조직 문화, 조직 구조별 평가지표와 문항번호

구분	영역	하위영역	평가지표	문항번호	
유치원 조직 문화 (15문항)	민주적 가치체계의 형성과 공유	민주적 가치의 형성	공동의 가치체계의 존재 유무	1	
		가치의 공유와 평가	공동의 가치체계 형성을 위한 절차와 규칙	4	
			가치체계 및 유치원 규칙의 적합성 여부 점검	5	
	민주적 소통과 수평적 관계 맺기	상호 존중	수평적 협력 관계	6	
		민주적 소통문화	유대 관계	2	
			민주적 소통문화	다양한 의견의 존중	7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습관 및 태도	8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9
	갈등 해결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해결	10		
	인권 친화적 유치원 문화	기초적 인권의 존중	모든 형태의 폭력 배제	11	
			소수자의 권리 보호	12	
		교권	권리 주장 및 보호를 위한 제도	13	
			교권 존중	14	
			자율성 및 권한 보장	3	
	책임의식	의사결정 결과의 존중	15		
유치원 조직 구조 (11문항)	유치원 민주주의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과 토대	자원의 배분	인적, 물적 자원 배분을 위한 민주적 절차	19	
	민주적 리더십 구축하기	권한과 책임의 민주적 규정	민주적 절차 및 권리를 존중하는 권한 행사	16	
			구성원의 자발성 존중	17	
			필요한 권한의 위임	18	
		권한의 남용	20		
	민주적인 의사결정 제체 구축하기	인사	교직원 인사의 공정성	21	
		참여의 제도화	인사결정과정에서 대한 참여의 제도화	22	
			업무 결정과정에서 대한 참여의 제도화	23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	24
				의사결정의 반영	25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설치 및 운영	26			

### 3.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경상남도 내 공립유치원의 민주적 유치원 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립유치원의 ‘조직 문화’와 ‘조직 구조’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조사하고 설립유형, 직위 변인에 따른 응답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유치원에서 경험한 갈등, 민주적 운영 사례, 민주적 운영 개선 방향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치원의 민주적 인식정도를 파악하

고 민주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공립유치원에 적합한 문항을 학교 민주주의 지수(지표)에서 추출하여 ‘조직 문화’ 및 ‘조직 구조’로 구분하고 5점 척도로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결과를 평균으로 점수화하여 비교한 결과 직위별로 관리자는 대부분의 문항 평균이 4점대, 교사는 대부분의 문항 평균이 3점대로 t-test 결과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 소수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한 평가 문항에서는 관리자, 교사 모두 4점대로 인식의 차이가 적었다. 반면 권한의 남용과 관련한 평가 문항에서는 관리자는 4점대이고 교사는 2점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평가 문항과 비교하여 인식의 차이가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관리자는 민주적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교사들은 관리자의 인식 수준보다는 덜 민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근무지 설립유형 변인에 따른 응답차이는 병설이 대부분 문항에서 평균이 4점대, 단설이 3점대로 t-test 결과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권한의 남용과 관련한 평가 문항에서는 병설은 3점대이고 단설은 2점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평가 문항과 비교하여 민주적 인식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설립 유형별로는 단설 근무자가 병설 근무자보다 덜 민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적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은 복수응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응답 결과 유치원의 기본 방향 및 가치를 잘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주적 협의문화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리자 및 동료와의 소통, 회의 및 잡무의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유치원의 기본방향이나 가치가 잘 공유되지 않는 이유로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관리자 및 동료교사와의 소통 부족, 권위적인 유치원 분위기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또 유치원 관리자의 민주적 리더십이 잘 발휘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교사의 자율성 강화가 가장 많았고, 관리자 리더십 연수, 승진 제도 개선 순으로 응답하였다. 유치원의 민주적 협의 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 받고 싶은 사항으로 업무의 간소화가 가장 많았고, 교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관리자 리더십 연수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 과정에서 설문지를 통하여 민주적 공립 유치원 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 방향과 관련된 연구 대상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협의회 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잦은 회의를 축소·지양하고 비대면 방식(Zoom, 온라인 무기명 설문투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치원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관리자의 일방적인 지시를 위한 협의회 자리가 아닌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교직원들의 견해를 전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업무 추진 시 협의회 자리를 빌려 상명하달식 지시를 하기 보다는 업무담당자 당사자의 문제해결방식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에 대한 신뢰 및 자율성 존중’을 위해서는 관리자가 교사라는 자리에 오기까지의 갈고 닦았던 전문성에 대하여 믿고 신뢰해줌으로써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하여 주관적인 잣대만으로 막무가내식 훈수를 두거나 무분별한 비판을 절대 지양하고 한 걸음 뒤에서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적 지원을 해주는 관리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직원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교직원의 자기연찬을 위한 자체 연수 및 워크숍을 실시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하여 정보 및 의견을 공유하며, 방학 중 외부강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교직원이 방학 중 마음 놓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배려와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 간의 직위의 높고 낮음과는 관계 없이 모두가 존댓말을 사용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교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민주적 유치원 문화 조성을 위하여 본인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자기검열의 기회 또한 자주 가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관리자 및 교육청의 행정적인 지원(방과후과정(전담사) 업무 관련 매뉴얼 지원, 교육청 자체 부모교육 실시, 행정실무원 지원, 학부모 민원 처리 등)이 필요하고, 소수인 교사 인원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업무량을 가진 병설유치원의 경우 행정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단위 유치원으로 보내는 공문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교육청의 보다 면밀한 지도 및 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하고 구시대적인 보여주기식 행사(학예회, 작품전시회 등)를 지양해야 하며, 불필요한 컨설팅 및 연수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제도 개선 및 마련’을 위해서는 원장공모제 도입 및 승진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교사들의 관리자에 대한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무기명 설문조사

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많았으며, 갑질 관련 교육청의 행정지도를 대폭 강화하여 갑질 예방을 위한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일곱째, ‘민주적 유치원 조직 문화 연수’와 관련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 예방 연수’, 교사를 대상으로 갑질의 정의·예시, 갑질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대응하는 방법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갑질 민감성 연수’,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인식 교육’ 등 다양한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 관련 연수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연수가 진행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연수가 아니라 관리자가 민주적 조직 문화에 대하여 인식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중요하기에 관리자의 민주적 조직 문화 인식과 관련된 연수 및 민주적 리더십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립유치원 민주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변인이나 학부모 대상, 전체 교육공동체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를 통해 유치원 조직 구조와 문화에 대한 실태 점검과 추후 민주적 문화 활성화를 다양한 요인 규명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1. 교육정책 현장연구회 연구보고서

---

# 범교과 학습 운영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라온하제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순임 김해여자고등학교

공동연구자

정미옥 합포중학교

이하진 사파중학교

추성미 진영고등학교



# 범교과 학습 운영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 2015 교육과정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한 개선 정책의 현장검증 필요성
- 국가 교육과정과 지역교육청 교육과정에 근거한 단위학교에서의 구현 양상 검토
- 현장 교사들의 범교과 학습에 대한 인식과 요구 파악
- 범교과 학습의 중요성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문헌 연구를 통한 범교과 학습 주제의 쟁점 파악과 활성화 방안 마련의 이론적 배경 제시
- 경상남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범교과 학습 계획을 수집하여 범교과 학습 편성 현황에 대한 분석
- 경상남도 소재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범교과 학습 편성 및 운영 실태 파악
-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범교과 학습 편성 현황 및 실태, 운영 실태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탐색

## 3. 연구 결과

### 가. 단위학교 범교과 학습 편성 및 운영 현황

- 범교과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비율은 낮으나 교과 진도표에 표기하는 비율은 높음
-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10개의 대주제 중, ‘안전·건강 교육’과 ‘진로 교육’은 범교과 학습 계획을 수립한 모든 대상교에서 반영함
- 경상남도 교육과정 편성 안내 자료를 통해 교육부 고시 7대 안전 교육과 중복하여 제시하는 주제인 ‘성교육, 보건교육, 소방안전 교육, 인터넷 중독 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반

영률이 높음

-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편성하는 시수는 평균 4.14시간이고, 교과 영역에 편성하는 시수는 평균 8.31시간임

## 나. 범교과 학습 실태

-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교육적 중요도를 평균 3.73(5점 만점)으로 인식하여 중요하다는 비율이 높으면서도 그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이 없음
- 범교과 학습 주제 중에서 ‘인성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범교과 학습 주제를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은 ‘상급기관의 필수 요구 시수’이고,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영역은 ‘창의적 체험활동’임. 보통 교과 통합 운영에서는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주제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편성하는 것으로 분석됨
- 범교과 학습의 이해 정도는 평균 3.35(5점 만점)로 보통 정도의 수준이나 담당 교과에서 실시하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잘 모르겠다’로 응답한 비율(7.10%)을 고려하면 높은 편으로 해석됨
- 담당 교과에서 실시하는 범교과 학습 주제의 개수는 평균 2.5(‘1개~3개’ 군에서 2.5의 정도임)로 나타났으며, 주로 교과수업 주제와 융합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응답 비율 66.74%이 높게 나타남. 또한 활용하는 지도 방식으로는 시청각 매체 활용 수업의 비율(54.90%)이 가장 높음
- ‘안전·건강 교육’의 필수 의무 시수가 많은 만큼 각 교과에서 담당하는 주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주제 반영률의 교과적 특성은 사회과, 과학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범교과 학습의 발전적 방안으로 ‘범교과 학습 주제의 구조화’가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타남

## 다.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현황 및 실태 분석

- 현장 교사들은 범교과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실제로 편성 및 운영의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범교과 학습을 다루지 않음
- 국가 교육과정과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태도가 나타남. 과도한 시수로 어려움을 겪지만 주제를 중복하여 제시하는 경우에도 학교 교육과정에

그대로 반영하는 비율이 높음

- 학교 현장에서의 범교과 학습 편성 및 운영의 우선적 고려 사항은 필수 의무 시수의 이행과 전 교과에서 담당하는 범교과 학습 주제 시수의 평균화로 해석됨
- 범교과 학습의 발전적 방안 역시 시수 문제 해결로 생각함

#### 4. 결론 및 제언

##### 가. 결론

- 2015 교육과정에서 정규 교과에서 우선 교육하도록 한 개선 사항이 학교 현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음
  - 필수 의무 시수 위주의 편성 및 운영 행태가 여전함
  - 구체적인 내용 요소나 지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수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해석됨
  - 교육과정 개정을 통한 현실화 방안 마련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현 구조 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나. 제언

- 범교과 학습 주제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함
- 범교과 학습 주제의 위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 차원에서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과 안내가 필요함



2021. 교육정책 현장연구회 연구보고서

---

# 초기 문해력 더딤 학생 지원을 위한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 적용 연구

글구멍

## 연구진

### 연구책임자

박의영 마전초등학교

### 공동연구자

성화영 장승포초등학교

정지윤 아주초등학교

김성탁 용소초등학교





# 초기 문해력 더딤 학생 지원을 위한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 적용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기 문해력은 초등 저학년 시기까지 완성되는 문해력으로 이후 학습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능력으로 성인기 문해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초기 문해력 더딤 학생은 조기에 발견하여 진단하고, 체계적인 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한 단기 집중 수업을 통해 저학년 시기에 반드시 더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다양한 정책과 시스템, 교재 등을 생산하고 현장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더딤 지원이 이루어지는 교실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 개인 역량에 따라 더딤 학생을 지원하는 지도 방법과 내용을 판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교사들은 초기 문해력 더딤 학생을 지원해 나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만 하고, 더딤 학생들은 더딤 요인에 알맞은 지도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체계적인 지도 방법과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초기 문해력 지도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또한 적용 결과 발견하고 성찰한 변화들을 통하여 시사점을 찾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2.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기 문해력 더딤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을 실행한다.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발생하는 변화에 대하여 연구한다. 학생의 초기 문해력 발달과 수준 변화, 심리적 변화를 관찰한다. 교사의 지도 과정과 수업 후 성찰을 분석하여 교사의 변화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 운영이 초기 문해력 더딤 학생 지도의 과정 전반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 연구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은 프로그램 적용 계획 및 실행의 전 과정과 이후 성찰 과정까지 함께 상호작용할 수밖에 없다. 읽기 발달의 과정을 관찰하고 이해하여 분석하고, 이후의 지도 방법을 계획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교사의 내면에서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과정이다. 즉,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맥락과 상호작용을 떠나서 이 연구를 분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 주제에는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실험

연구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3. 연구 결과 및 제언

첫째,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한 세 명의 교사는 공통적으로 초기 문해력 지도와 관련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도 모두 학급에서 정규 수업 과정에 참여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들은 학습에 흥미를 더욱 느끼게 되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막연한 판단이 아닌 이론적 근거에 기반한 판단을 하기 위해 기록과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경험하였다. 기록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나 분석 결과를 보면서 교사들은 각자 자신이 수업하고 있는 학생이 보이는 어려움이나 뛰어난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게 되었다.

셋째, 학생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라는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의 철학은 초기 문해력 더딤 학생이 학습 과정의 주인임을 알게 하였다.

넷째, 수준이 평정된 공통 교재를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교사들은 서로가 겪는 지도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이후의 지도 방법을 과학적으로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이 용이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한글 교육이나 초기 문해력에 관한 기초학력 지도 정책의 한계로 여겨졌던, 지도 방법이나 교재 선정에서 교사 개인의 역량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다섯째, 초기 문해력 더딤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수준이나 능력이 발달함을 발견하면 교사는 자신이 하고 있는 더딤 지원 수업에 대해 흥미와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 연구하고 싶은 요구를 스스로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자발적인 요구는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 적용 수업을 위해 꼭 필요한 수업 방법 이론과 문해력 이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께 연구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하는 전문적인 공동체로서의 교사로 만들어주었다.

초기 문해력 더딤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읽기 따라잡기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 이론을 연구하면서 초기 문해력 더딤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진 교사를 양성할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초기 문해력 더딤이 심한 학생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개별화 교재와 프로그램, 개별화 교육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더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반적인 교재 대신 개별화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개별화 교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셋째, 초기 문해력 더딤 학생에 대한 담임 교사의 집중 책임을 이양하여 초기 문해력 더딤 학생 지원을 함께할 다양한 구성원 양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21. 교육정책 학습연구년 연구보고서

---

# 학교조직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원 갈등 양상 분석

## 연구진

### 연구책임자

남은미 창원사파고등학교 교사

### 공동연구자

남영희 북면초등학교 교사

박현정 마산서중학교 교사

윤정은 양곡초등학교 교사



# 학교조직문화를 중심으로 한 교원 갈등 양상 분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 조직은 관료적 성격과 전문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학교 행정을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관료적인 성격을 갖지만, 수업과 학생 지도와 같은 교사의 본질적 활동에서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문화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공문이나 관리자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전달 위주의 관료적 성격이 강해 교원 간의 갈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한 학교 문화의 경직성은 교직 문화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원 간의 갈등으로는 세대 갈등, 관리자와 교사 간의 갈등,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 간의 갈등, 교과별 교사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교사 간의 갈등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가진 조직문화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더구나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거나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여 조용히 넘어가는 학교 분위기, 어차피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교사들의 경직된 침묵 문화 등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현재 학교조직문화의 특징과 교원 간 갈등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교육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교원 간의 갈등 양상 분석을 통해 학교조직문화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봄으로써 민주적인 학교 문화 정착,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형성, 나아가 학교문화혁신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문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정했다.

첫째, 교사는 학교조직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학교 갈등의 실상(교사들이 경험하는 갈등의 내용)과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조직문화와 갈등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가?



### 3. 연구 내용

첫째, 학교조직문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우리 도내 교원이 학교조직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한다.

둘째 성별, 경력, 학교급별, 보직 여부 등 변인에 따라 학교조직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학교 갈등의 실태는 현장성을 바탕으로 하되 학교 내 교원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넷째, 학교 갈등은 그 갈등을 실제로 체험하는 당사자인 교사를 중심으로 파악하되 그 내용과 유형을 함께 분석한다.

다섯째, 갈등이 증폭되는 조건을 학교조직문화와 관련하여 파악한다.

### 4. 연구 결과

#### 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학교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그런 편이다’ 이상의 응답 비율이 67% 이상으로 나타났고, 갈등 양상 실태 진단을 위한 전 문항에서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하의 응답 비율이 6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겉으로 보기에 교사들은 대체로 학교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갈등의 정도는 약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항이 많고, 각 문항에 대한 최대 최소값의 격차가 크며, 극단을 잘 선택하지 않는 교원문화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전체 평균만으로 의미를 단정짓기 어려우므로 변인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세부 내용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성별에 따른 학교조직문화 인식에는 다수의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비교적 남교사에 비해 여교사가 학교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갈등도 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조직을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으로 평가하고 갈등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셋째,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 학교조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넷째, 지역 변인을 살펴보면 대체로 경남 서부 지역이 경남 동부 지역보다 학교조직문화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갈등도 덜 느끼고 있었으나 교원수가 많은 경남 동부지역의 응답 비율이 낮아 정확한 비교는 어려워 보인다. 다섯째, 연령과 경력 변인에서는 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갈등도 덜 느꼈는데 이는 경력이 많을수록 학교 내에서 발언

권이 크고 업무를 적게 맡는 분위기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담임여부에 따른 학교조직문화와 갈등 정도는 대부분의 문항이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의 모든 교사가 담임을 맡는 초등학교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학교급별 담임여부 요인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본 결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담임과 비담임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학교로 갈수록 담임이 비담임에 비해 비교적 큰 차이로 학교조직문화를 비민주적, 비합리적으로 보고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직교사가 일반교사에 비해 학교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현임교 경력이 오래될수록 갈등이 축적돼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설문 문항과 갈등 양상 진단을 위한 설문 문항의 상관관계수는 10-(20)번 과 11번 문항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항에서 0.4~0.7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원 갈등의 원인을 3가지 묻는 질문의 1, 2, 3순위 모두에서 규제나 절차의 복잡성을 의미하는 과도한 행정업무 및 전시행정이 순위 내에 들어갔는데, 후순위에 있었던 공정하지 못한 업무분장 역시 행정과 관련된 카테고리 볼 수 있어 교사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업무처리와 관련된 행정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 나. 심층면담 분석 결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간의 차이가 컸다. 특히 관리자 측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관리자의 경영철학이 학교조직문화를 크게 좌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료교사 측면에서는 교사 간 관계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협력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중요 업무를 자발적으로는 맡지 않는 분위기라서 젊은 교사들에게 업무가 좀 더 많이 배분된다는 저경력 교사의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경력이 많은 교사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인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학교 내 교원 갈등이 존재한다고 답하였다. 두드러지는 갈등 유형으로는 관리자와 교사 간의 갈등이 많았고, 교사 간의 갈등으로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동학년 담임교사들 간의 갈등, 업무 분장, 시수 배정과 관련한 갈등을 지적하였다.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 간의 갈등이 있다는 응답은 고등학교에서만 나타나 초등보다는 중등에서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 간의 업무 강도나 피로도 등에서 차이를 두드러지게 인식하거나 서로 간의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에 따라 학교조직문화가 많이 좌우된다고 다수의 면담자들이 언급했고, 동료교사는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자율성의 확대가 개인

주의적 학교문화를 만들고 그로 인해 교원 간 협력을 저해하면서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의견도 눈여겨 볼만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기보다는 갈등이나 의견 대립을 피하려고 하는 학교문화, 나이 많은 교사에게 업무나 시수를 적게 주는 학교문화, 학교 내 각종 협의 기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문화가 교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 5. 결론

첫째, 학교 조직은 어느 한가지 조직문화로 단정짓기 어려웠다. 위계적 문화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갈등을 드러내고 있었고, 수업 및 연구 영역에서는 혁신문화를,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합리적 문화를, 업무 영역에서는 관계지향적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이에 어긋날 때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둘째, 교사들이 가장 강하게 느끼는 갈등 내용은 업무분장과 처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합리성, 업무처리 절차나 방법의 모호성으로 나타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연쇄적으로 연관되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 외에도 개인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변질되면서 오히려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학교조직문화와 갈등 양상은 거의 모든 문항에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강압적이거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경우 교사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거나 업무 배정이 불공평하고 문제 해결시 절차와 방법이 체계적이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학교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자는 학교 혁신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수행할 의지를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며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하고, 교사는 관리자의 결정을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면서 개별 교과와 학급에만 국한하지 말고 좀 더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둘째, 교사가 소신껏 교육관을 펼치기 위해서는 교육 활동 중 생기는 여러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만 돌리지 않고 학교가 교육적 차원에서 함께 책임지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교권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교사도 자신의 교육 철학을 자신 있게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행정업무 간소화가 필요하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는 없애고, 교무행정원에게도 보조자가 아닌 독립된 업무를 배정하여 교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행을 수정해야 한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수업혁신을 바탕으로 혁신적 학교조직 문화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업무 순환제의 도입, 승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사 갈등 중 상당 부분은 서로의 업무나 처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므로 업무순환제와 같은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승진을 위해 학교 계획을 조정하고 동료교사의 의견을 묵살하는 일부 교사의 부정적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승진제도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021. 교육정책 학습연구년 연구보고서

---

# 초등학교 보건실 이용자 지도과정 분석과 보건지도 모형 제시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주영 평산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자

이향미 경화초등학교 교사



# 초등학교 보건실 이용자 지도과정 분석과 보건지도 모형 제시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교에서 학생들은 아프면 보건실을 이용한다. 보건교사의 가장 전문적인 역할은 학생 보건 지도(간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보건실 이용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체제는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교육청은 보건실 시설의 설치와 마련을 보건실 이용자를 위한 지원으로 여기고 있고, 학교의 관리자나 교직원들은 보건실을 ‘특수한 영역’으로 여기고 보건 교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방치에 가깝다.

보건실에서 하루 20명의 학생을 보건 지도하는 것과 50명을 지도하는 것은 보건교사에게 매우 다른 상황이다. 심지어 100명 정도 보건실을 방문하는 경우 개개인에 대한 제대로 된 보건 지도가 어렵다.

보건교사는 교실에서의 보건 수업에 대한 교육과정과 수업모형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건실 이용자에 대한 보건지도 방법을 체계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 보건교사는 보건실 이용자 지도과정을 알고는 있지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건실 이용자 지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스스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실 이용자 보건 지도과정을 명료화하여 설명하고, 보건실 이용자의 보건 지도를 위해 투입하여야 하는 시간과 자원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실 이용자의 보건 지도과정을 살펴보고, 실제 보건실 이용자의 지도 현장 사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실 이용자 보건지도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교사가 보건실에서 학생을 보건 지도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보건지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를 적용하여 보건지도 결과를 평가한다.

셋째, 보건지도과정, 소요 시간, 필요한 자원을 명시한 지도안의 형태로 보건실 이용자 보건 지도 모형을 제시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보건교사의 보건지도과정을 분석하고 보건지도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시 보건교사가 수행하는 보건지도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근무한 25년 이상의 초등학교 보건교사 2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지도 과정을 서술·분석하였다.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 지도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보건 지도안을 바탕으로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보건실 이용자 보건 지도과정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제시된 보건 지도안과 개별 사례 적용의 결과를 토대로 보건지도 모형을 제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 가. 보건실 이용자 보건지도과정에 대한 분석

#### 1) 보건실 공간 내 전체 학생지도(필드 관리)와 개별 보건지도(트랙 운영)

<보건실에서 보건교사의 학생지도 형태>

	보건실 내 전체 학생에 대한 관리 지도 < 필드 관리 >	보건실 이용자 개별 보건지도 <트랙 운영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실에 입장하여 재실 유지 중인 자</li> <li>· 개별 보건지도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자</li> <li>· 건강문제를 가진 간호요구자의 동반자</li> <li>· 신체 측정 등 자율적으로 보건실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입장한 자</li> <li>· 보건실 침상에서 안정 중인 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요구를 가진 보건실 이용자 개인으로 진료의 자나 진료대, 또는 신체측정 기구 등에서 지도, 상담, 처치 중인 자</li> <li>· 보건교사가 학생건강 문제를 파악하여 개별 지도를 위해 보건실 방문을 요청한 경우</li> <li>· 학생이 건강문제와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며 스스로 보건실을 방문한 경우</li> <li>· 입장 순서, 응급상태 등에 따라 지도 순서 정함</li> </ul>
보건교사 지도 내용	보건실 내 위치한 학생 전체에 대한 파악, 관찰을 유지하면서, 보건교사가 개별학생을 지도하는데 방해 받지 않도록 관리 <유의점> 보건실내 입장하는 학생의 상태를 살펴서 응급으로 파악 될 경우, 개별 보건지도 순서를 변경해야 함 보건실 내에서 대기시 학생들의 행동과 표정 등은 학생상태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임	학생의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간호중재, 상담, 처치, 보건지도 함. <유의점> 진료 의자에 앉아서, 학생의 소속과 성명을 접수 등록하면서 개별 건강지도 시작. 보건실 이용자는 보건관리 기록 시스템(보건일지 등)에 건강문제, 처치, 조치 등을 기록하여야 함.

보건실에 입장한 학생이 너무 많을 경우, 보건교사가 개별적으로 보건지도 상담을 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함. 적절한 통제와 지도로 보건실 내 재실 학생 수를 조정한다. 보건실 이용자 규칙 등을 정하여 게시하고, 학급에 미리 안내한다.	학생 건강상태 진단을 위한 사정 내용에는 접수전 단계에서 보건실 문을 들어와서 진료의자에 앉을 때까지 관찰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보건실 내 위치한 전체 학생 관리와 개별학생 건강 지도는 서로 연관되어 있음.
--	---

## 2) 보건실 이용자 보건지도의 과정(개별적 지도 과정)

보건실을 방문하는 학생은 저마다 호소하는 건강문제가 다르고, 보건실을 방문하는 시점에 발생한 건강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보건교사는 매 시점 방문하는 간호요구자의 호소에 따른 개별적인 보건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 지도과정		주요 활동 및 판단 사항	비고	
사정 단계	접수 전 1차 탐색 과정	출입문 입장후 ~ 진료의자 착석 (다른 이용자 있을 경우는 대기시간 포함)	첫 대면에서 가장 중요한 응급상황에 관한 1차 판단이 이루어 짐.	
	접수 등록	진료의자에 착석하여 학반, 성명으로 접수 등록	학반과 성명을 묻는 것으로 개별적 보건 지도가 시작됨	
	주 호소 확인	보건실을 방문한 이유, 보건교사가 처치, 지도해야 할 건강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	학생의 주호소를 확인하고, 보건관리 시스템(보건일지)에 기록	
	건강문제 본 사정	학생의 주호소를 근거로 하여 건강문제가 무엇인지 찾는 과정	보건실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병리검사 등의 검진을 할 수 없음. 문진과 시진을 주로 한다.	
진단 및 판단 단계		1.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진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는가?	학생의 건강문제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증상, 또는 정보를 1 → 4 의 순으로 대입하여 반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전파 우려가 있는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가?		
		3. 응급상황은 아니나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진료가 필요한가?		
		4. 상담, 보건교육, 상비약 투여, 보건실 침상 안정 등의 조치 후 교내 일과 복귀 가능한가?		
처치 및 지도 단계		1. 위급 상황 조치	보건교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1~4의 지도 과정 중 하나가 선택된다. 4번 과정이 선택된 경우에도 재사정과 재진단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2. 일시적 격리/병원진료 지도		
		3. 병원진료 안내 및 조기구가		
		4. 간호중재 후 교실 복귀 지도		외과적/물리적 각종 처치
				상비약 투여 지도 보건실 침상 안정 상담 및 보건교육

## 나. 보건실 이용자 지도 사례 적용 분석과 평가(주호소: 머리가 아파요)

### 다. 보건실 이용자 보건지도안 모형 제시

보건실 이용자의 보건 지도과정의 분석 결과 모형의 제시는 다음과 같다.

보건지도 과정은 크게 사정 단계, 진단 및 판단 단계, 처치 및 지도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정 단계는 접수 전 1차 탐색과정, 접수 등록, 주 호소 확인, 본 사정의 과정으로 세분하였다. 접수 전 1차 탐색과정은 출입문 입장하여 대기 과정을 거치면서 진료 의자에 착석하는 과정으로서, 보건교사가 한눈에 속성 사정하여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고 지도순서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또 접수 등록은 학반과 성명을 묻는 것으로 개별적 보건지도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주된 호소 확인 단계는 보건실을 방문한 주된 이유를 확인하고, 본 사정 과정에서 본격적인 건강문제와 관련된 문진과 시진이 이루어진다.

둘째, 진단 및 판단 단계는 보건교사가 학생의 주 호소를 듣고 문진과 시진 등을 통해 사정을 하고, 학생건강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단계이다. 보건교사의 진단과 판단은 학생건강문제의 위험성과 위급성 진단으로 4개 등급의 구분 진단으로 단순화하였다. ① 위급상황조치가 필요한 등급, ② 감염성질환으로 격리와 병원진료가 필요한 등급, ③ 응급상황은 아니나 의료기관의 검진이 필요한 등급, 그리고 ④ 보건실에서의 적절한 처치와 지도를 통해 교실복귀가 가능한 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구분 진단하는 것으로 단순화하고 그룹화하였다.

셋째, 처치와 지도 단계는 진단과 판단과정에서 결정한 것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처치와 지도의 형태는 위험성과 위급성 진단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어진다. ① 응급상황 조치 (응급 처치와 이송) ② 일시적 격리와 병원진료 지도 ③ 병원진료 지도 및 조기귀가 조치 ④ 간호중재 후 교실 복귀 지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④항의 보건실에서 이루어지는 간호 중재를 ④-1 외과적 물리적 각종 처치 ④-2 상비약투여지도 ④-3 보건실 침상안정 ④-4 상담 및 보건교육으로 4가지로 분류하였다.

## 4. 결론

초등학교 보건실 이용자 지도과정 분석과 보건지도 모형을 제시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식화 되어진 보건실 이용자 보건지도 모형은 보건실에서의 보건지도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보건지도 과정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점,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진행하였다. 본 연구팀의 경험에 국한되어 일반화의 제한성이 있기에 보건

실 이용자 보건지도 모형에 대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나. 보건실 이용자 보건지도 과정을 중심으로 한 ‘학교보건 운영방향’의 설정이 요구된다.

다. 실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업무매뉴얼과 학교 보건현장의 실무를 반영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라. 잠재적인 위급성과 위험성을 가진 보건실 이용자의 보건지도 부실을 초래하는 교실에서의 보건 수업은 제고되어야 한다.



2021. 교육정책 학습연구년 연구보고서

---

# 2015 개정 초등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그림책 수록 양상 분석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경미 풍호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자

안혜란 감계초등학교 교사



# 2015 개정 초등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그림책 수록 양상 분석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는 어떤 그림책을 실어야 하는가?’ 이 의문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의해 그림책을 제재로서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다.

그림책이 국어 교과서 제재로 사용되기 위해 선정되면 효과적인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분량으로 재단되거나 형식과 내용을 변형하는 과정을 거친다. 원작 그림책이 교과서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삭제되기도 하고, 여러 장면을 편집하여 통합하기도 하며, 또는 일부 장면만 수록되기도 한다. 이렇게 변용을 거치는 것은 장·단점이 모두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 초등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 수록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초등 국어 교과서 내용 체계와 국어 자료를 분석하고 수록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교과서에 실린 그림책 제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적 가치를 가지기 위한 방향을 시사하고자 한다.

## II.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15 개정 초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의 수록 양상을 1-6학년 군 국어 교과서 및 국어활동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림책의 특성과 교육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 제재를 두 가지 측면(학습목표와의 관련성, 학년 수준 적합성)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학습목표를 도달하는 데 효과적이면서 그림책의 본래 가치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그림책의 개념과 교수·학습 매체로서의 그림책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그림책이 갖는 교육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그림책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를 분석하기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내용체계를 분석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어자료로서 그림책 제재가 가지는 의의를 생각해 보았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범위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토대로 개발된 1~6학년 국어 교과서이다. 분석 대상은 1~6학년 국어 교과서(국어-가, 국어-나), 국어활동(1~4학년)이고, 총 28권이다. 제재로서 활용된 문학 작품 유형 가운데 그림책을 대상으로 한한다.

### Ⅲ. 연구 결과

#### 1. 국어자료로서의 그림책 제재의 의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그림책을 제재로서 교과서에 수록하여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어과 교과서에는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각 단원별로 단원 성취기준이 있고 이를 도달하기 위해 단원 및 차시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국어자료로서 수록된 그림책을 목록화하여 교육목표 도달의 측면에서 그림책이 가지는 의의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국어 교과서 및 국어활동에 수록된 그림책 제재 권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그림책 수록 권수	22	21	10	16	2	3	74
분석 권수 (수록비율 8% 이상)	15	17	9	13	2	2	58

1학년 1학기의 경우 한글 해득을 위하여 그림책이 대부분 수록되었다. 1~2학년 수준에서는 기본생활 습관 형성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교훈적인 주제를 담은 그림책이 많이 수록된 것을 알 수 있다. 3~6학년에서는 언어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취기준을 도달하기에 적합한 제재로서 목적 지향적으로 그림책이 수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1-6학년 국어과 교과서에 수록된 다양한 그림책들은 전문이 실려 있는 경우보다 성취 기준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되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경우에는 표지만 제시되어 있고, 듣기 자료로 형태가 변형되어 수록된 경우도 있으며, 글과 그림의 구성을 변형시킨 경우도 있었다.

## 2. 2015 개정 초등 국어교과서 그림책 수록 양상 분석 결과

### 가) 학습 성취기준과의 관련성 분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성취기준과의 관련성	◎	○	△	◎	○	△	◎	○	△	◎	○	△	◎	○	△	◎	○	△	◎	○	△
권수	13	2	0	17	0	0	8	1	0	13	0	0	0	2	0	2	0	0	53	5	0

그림책을 교과서 제재로 수록하기 위한 1차적 목표가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다 보니 수록된 대부분의 그림책이 학습목표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책을 읽는 것이 목적이 되는 ‘문학’ 영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본 그림책의 전체를 수록하기보다 학습목표와의 관련성이 높은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하는 경향이 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과정의 내용 면에서도 주어진 수업 시간 동안 그림책의 부분을 활용하여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 나) 그림책 제재의 학년 수준 적합성 분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		
학년 수준 적합성	◎	○	△	◎	○	△	◎	○	△	◎	○	△	◎	○	△	◎	○	△	◎	○	△
권수	11	4	0	16	1	0	8	1	0	13	0	0	0	2	0	2	0	0	50	8	0

수록된 그림책 제재의 수준도 대부분 학년 수준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분석된 그림책의 경우 1~2학년에서는 학년 수준보다 낮은 책이 수록되었는데, 이는 문

자 해득의 시기임을 감안했을 때 수준보다 다소 낮은 책이 수록되는 것이 목표 도달 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3~6학년은 글 없는 그림책, 지식 그림책 등 다양한 종류의 그림책이 수록되었다. 학생들의 상식과 이해력이 높아진 만큼 시·공간 배경도 넓혀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도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야기의 주제나 시대적 배경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실생활과 밀접하지 않는 그림책이 수록된 경우 학년 수준에 맞지 않게 되어 제재로서 적절성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 그림책의 이해를 위해 추가적인 수업활동이 있어야 하므로 비효율적이거나 수업목표 달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 다) 그림책 제재 활용 양상 및 사례분석

### 1) 3학년 1학기 『리디아의 정원』

단원명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차시	6~7차시
단원 성취기준	[4국03-04]읽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4국02-03]글에서 낱말의 의미나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다. [04국04-02]낱말과 낱말의 의미 관계를 파악한다.		
단원 목표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쓸 수 있다.		
차시 목표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 쓰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리디아의 정원』의 시대적 배경은 1920년에서 1939년까지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된 경기 침체현상을 겪었던 경제 대공황 시기이다.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3학년 학생들이 경제 대공황 및 경제 불황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근대화 과정에서 직계가족 중심의 배타적 가족주의가 강해진 요즘 시대에 아버지의 실직으로 인해 자녀가 친척집에 보내진다는 설정도 3학년 학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없는 배경임에는 분명하다.

또한, ‘마음을 전하는 편지글을 쓰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습 활동에는 12개의 편지글 중 1개의 편지글만 발췌하여 수록하였다. 그 편지글을 보며 편지글의 형식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리디아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찾는 활동으로 편지글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익힌다. 이야기의 배경과 흐름은 그림 네 장면과 네 문장으로 요약되어 설명되어 있다. 그로 인해 이 그림책만이 가지는 분위기와 느낌은 전혀 전달되지 못하며, 편지글의 예시로서 수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차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 제재			
			
이사벨의 방	우체부 아저씨와 비밀 편지	세상 끝에 있는 너에게	숲 속의 편지들

## 2) 5학년 2학기 『니 꿈은 뭐이가?』

단원명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차시	7~8차시
단원 성취기준	[6국01-07]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지닌다. [6국03-02]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글을 쓴다.		
단원 목표	상대의 말에 공감하며 바르게 대화할 수 있다.		
차시 목표	이야기를 읽고 공감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니 꿈은 뭐이가?』의 시대적 배경은 일본이 조선 땅을 빼앗은 1910년 무렵부터 권기옥이 중국의 비행학교를 다니는 1930년 무렵까지 일제 강점기 시기이다.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나, 5학년 학생들은 이 시기에 사회과 역사 영역에서 일제 강점기를 배우기 이전으로 이 시대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성 차별이 거의 없어진 요즘 시대에 가정에서 벌어지는 남아 선호 사상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차별을 겪게 되는 이야기는 요즘 학생들이 공감하려면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읽고 공감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시된 학습활동으로는 주인공의 삶에 공감하며 친구와 대화를 나누어 보고, 자신의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뒤 서로의 꿈에 공감하며 친구들과 대화해 보도록 하고 있다. 주인공의 삶에 공감하고 꿈을 주제로 공감하며 대화를 나누기에는 학생들의 삶, 생활 경험과 좀 더 밀착된 제재가 필요하다.

또한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 제재는 원래 그림책의 글을 그대로 싣고 있지 않고 일부 삭제하였다. 그리고 그림책에서는 입말을 읊긴 듯 기술하면서 시처럼 줄 바꿈을 많이 하여 주인공에게 삶의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줄 바꿈을 많이 하지 않고 줄글처럼 실었다. 그래도 교과서에서 어미는 ‘다’의 형태로 바꾸어 쓰지는 않아 입말의 느낌은 살렸다.

본 차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 제재			
			
진짜 내 소원	실수왕 도시오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왜 우니?

#### IV. 결론

그림책이 국어 교과서의 제재로 수록되면서 본래 그림책의 전문이 수록되기보다 성취기준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되는 등 외적인 형태가 교과서에 맞게 변용되어 수록되었다. 그러나 학습목표 및 성취기준 도달 측면에서 보면 변용한 그림책 제재가 더욱 적합하거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림책을 학습목표 달성을 위해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성격이 강하다보니 선정할 때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와의 관련성에 따라 좀 더 엄밀한 기준으로 그림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과서 제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진다. 그리고 학습활동 구성 시에도 그림책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용하여 수록해야 한다. 그림책을 동화나 글과 같은 방법으로 학습활동이 구성되거나 그림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림책의 가치도 못 담고, 제재로서의 매력도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학년별로 수록된 그림책을 분석해 보면 1학년의 경우에는 한글해득과 기본생활 습관 형성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의 책이 많았다. 그에 연결되어 2학년에는 감정과 관련된 주제를 담은 그림책과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배려를 알려주는 그림책이 많았다. 저학년 단계

에서 바른 인성과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나의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속에서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민주시민 양성의 궤한다고 볼 수 있다. 3~6학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언어 기능을 기르기 위하여 도구적으로 그림책 제재를 활용하고 있다. 저학년에 비해 그림보다 글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그림책의 형식과 주제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기준에 따라 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의 그림책은 학습목표 도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주제나 형식 등이 학습목표 및 성취기준과의 관련성이 높았으며, 학년 수준에도 대부분 적절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에 따라 수록 적합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림책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과 그림책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재구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관련 그림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 제재를 두 가지 측면(학습목표와의 관련성, 학년 수준 적합성)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진행하면서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부합 여부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이 학습목표와 관련이 깊고, 학년 수준이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정의적인 관점에서 학습자들의 흥미와 호기심, 관심사에서 멀다면 수업자료로서 효과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학년에 걸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제재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추후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림책 원작을 그대로 수업에 활용하면 그림책의 주제나 특성, 작가의 의도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에 가장 용이하다. 그러나 국어 교과서라는 틀과 제한된 시간이라는 수업에서 제한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학습목표 도달을 위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그림책을 선정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의 일환이었으며, 본 연구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제작하는 분이나, 현장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1. 교육정책 학습연구년 연구보고서

---

# 학생중심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적용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윤환진 진해고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자

이경아 양곡중학교 교사





# 학생중심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적용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20년 전국의 많은 학교가 개학 연기, 등교 중지, 순차 등교 등을 실시하면서 불가피하게 ‘교실 수업을 대체’하는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학사를 운영하였다. 갑자기 시행된 온라인 수업은 ‘온포자’(온라인 수업을 포기한 자)를 양산하였고, 학생 간 학습/학력 격차를 더 심화시켰으며 심각한 학습 결손을 초래하였다. 등교 후에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앉은 채 거의 강의식 수업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학교는 ‘수업 시간 부족’ 과 ‘학습 결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디지털 시대에 교실 대면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결합한 ‘높은 수준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이 교실 수업 전체를 대체할 수 없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는 경우에도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속도에 맞게 개별적으로 학습하고, 학습 더딤 학생이 충분히 학습하기 위해서는 교실 수업 시간 이외에 추가로 학습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사의 대면 수업과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이다. 우리에게겐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제시(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7차 대화)하였지만 전통적인 수업의 다양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이미 외국에서 다양한 연구와 적용을 해오던 개념이다. 블렌디드 러닝은 단순히 2가지 수업 형태를 혼합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대면 수업과 학생의 온라인 학습의 내용이 ‘통합된’ 접근법이며, 전형적인 학교 시스템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실현하는 개별 맞춤형 학습, 역량 기반 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을 정리하고, 다양한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의 방식을 연구하여 몇 가지로 분류하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수업을 설계한 교사의 수업 분석 및 참여한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구할 것이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을 정리하고, 다양한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의 방식을

연구하여 몇 가지로 분류하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 보고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렌디드 러닝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이 있는가?

둘째, 다양한 유형의 블렌디드 러닝을 수업에 적용해 보았는가?

셋째, 블렌디드 러닝과 대면 수업과의 차이 및 효과는 어떤가?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중·고등학교 교사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 및 유치원의 경우 일반화하기 어렵다.

둘째, 본 연구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속의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따라서 대상 학교의 특수한 환경적 요소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학교에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블렌디드 러닝의 설문으로 얻어진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 방법

### 가.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실제 블렌디드 수업을 실시한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구진의 소속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이므로 부득이 초등의 경우는 제외했다. 수업 전 사전 협의회부터 실제 수업, 사후 협의회를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참여하여 분석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 설문 및 수업 참여 교사의 설문을 통해 협의회나 참관을 통해 알 수 없었던 부분의 연구를 더 진행했다.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블렌디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많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수업의 수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참관의 한계 등으로 참여 수업의 수가 한정적이라서 연구의 범위나 사례가 다소 협소하고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나. 연구 도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 및 참여도’와 관련한 질문을 하여 학생들의 참여 태도를 분석하고, ‘집중도’와 관련된 질문을 통하여 블렌디드 수업이 면대면 수업에 비해 수업 몰

입의 양상을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효과’ 부분에서 실제로 학생이 느끼는 수업의 다양한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 다.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블렌디드 수업을 적용해보고 블렌디드 수업의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블렌디드 수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오프라인 수업(대면 수업)만 하는 경우에 비교하여 온오프혼합 수업(대면비대면 혼합수업-블렌디드 수업) 참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진행 전에 다양한 선행 연구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설문 문항을 제작하였으며, 설문 조사는 Eureka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했으며 설문 조사의 분석 및 처리도 Eureka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첫째, 블렌디드 수업을 적용한 교사와 참관 교사가 협의회 및 성장평가지회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학생 설문 조사는 수업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 수업에 대한 집중 정도, 수업을 통한 교육적 효과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하여 빈도를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가. 블렌디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성별 및 학교급

블렌디드 수업에 참여한 성별은 남학생이 약 70.51%, 여학생이 29.49%로 남학생의 참여 비중이 더 높았다. 또한, 블렌디드 수업을 적용한 학교급은 중학교 소속 학생이 약 58.97%, 고등학교 소속 학생이 약 41.03%로 중학교 소속 학생 비율이 더 높았다. 블렌디드 수업 적용을 위해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비율이 잘 맞지 않는 것은 제한점이 있지만 연구 과정에 큰 문제점을 아니라고 판단된다.

#### 나. 블렌디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흥미와 참여도(오프라인 수업 대비)

블렌디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흥미와 참여도를 파악하는 문항은 도입부에 대한 학생의 관심(1-1), 수업 내용의 의문점에 대한 질문(1-2), 수업 중 학생들의 의사 소통(1-3),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태도(1-4) 등으로 내용으로 제작되었다. 설문 결과를 보면 도입부에 대한 학생의 관

심(1-1)은 긍정적인 답변<sup>1)</sup>의 결과가 약 94.87%로 높게 나왔다. 또한, 나머지 설문 결과도 수업 내용의 의문점에 대한 질문(1-2)이 약 94.87%, 수업 중 학생들의 의사 소통(1-3)이 약 94.23%,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태도(1-4)가 약 92.31%로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입부에 대한 관심(1-1), 의문점에 대한 질문(1-2), 수업에 임하는 태도(1-4)는 매우 적극적인 인 학생(60명 이상, 약 40% 전후-매우 그렇다)이 많았으며,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1-3)은 조금 빈도(52명, 약 33.33%)가 낮았다. 하지만, 모든 문항의 경우 적극적인 학생까지 포함되면 100명 이상으로 약 63~69%로 많은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다. 블렌디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집중도(오프라인 수업 대비)

블렌디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집중도를 파악하는 문항은 수업 중 학습 내용에 대한 파악(2-1), 수업에 대한 집중도(2-2), 수업 진행 과정에 대한 집중도(2-3), 학습 목표 및 학습 과제에 대한 이해(2-4) 등으로 내용으로 제작되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수업 중 학습 내용에 대한 파악(2-1)은 긍정적인 답변의 결과가 약 95.51%로 높게 나왔다. 또한, 나머지 설문 결과도 수업에 대한 집중도(2-2)가 약 92.31%, 수업 진행 과정에 대한 집중도(2-3)가 약 95.51%, 학습 목표 및 학습 과제에 대한 이해(2-4)가 약 96.15%로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내용 파악(2-1), 수업진행 파악(2-3), 학습 목표 및 과제 이해(2-4)는 매우 적극적인 학생(70명 전후, 약 43% 전후-매우 그렇다.)이 많았으며, 수업에 대한 집중도(2-2)는 조금 빈도(57명, 약 36.54%)가 낮았다. 하지만, 모든 문항의 경우 적극적인 학생까지 포함되면 110명 전후 약 70% 정도로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블렌디드 수업의 경우, 비대면 수업도 포함되어 학습 주제, 내용 및 진행과 비교하여 수업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라. 블렌디드 수업 적용 효과(오프라인 수업 대비)

블렌디드 수업 적용 효과를 파악하는 문항은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가(3-1), 온라인 수업 내용에 대한 흥미 및 이해(3-2), 온라인 수업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효과(3-3),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연결성(3-4), 수업 내용의 실생활 적용(3-5), 수업 내용에 대한 관심 증가(3-6) 등으로 내용으로 제작되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가(3-1)는 긍정적인 답변의 결과가 약 92.95%로 높게 나왔다. 또한, 나머지 설문 결과도 수업 내용의

1 본 연구에서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의 답변 총합을 긍정적인 답변으로 적용함.

의문점에 대한 온라인 수업 내용에 대한 흥미 및 이해(3-2)가 약 90.38%, 온라인 수업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효과(3-3)가 약 90.39%,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연결성(3-4)이 약 94.23%, 수업 내용의 실생활 적용(3-5)이 약 91.67%, 수업 내용에 대한 관심 증가(3-6)가 약 94.23%로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의 모든 항목에서 매우 적극적인 답변(매우 그렇다)을 한 학생이 35~40%, 적극적인 답변(그렇다)을 한 학생이 30%로 전후였다. 블렌디드 수업의 효과에 대하여 전체 학생 중 60~70% 정도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여 블렌디드 수업이 학생들에게 많은 학습 효과를 주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업 내용의 실생활 적용(3-5)과 관심 증가(3-6)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보다 낮게 나와서 수업 이후에 그 확장성에 대해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마. 수업 분석(교사)

교사의 수업 분석의 경우, 블렌디드 수업의 개념은 익숙하지 않아도 대부분 구글 클래스룸, 아이톡톡 외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전면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 수업 준비 시간과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필요성이 다소 적었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및 제언

학생 중심의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은 소수의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학생과 교사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수업을 받은 학생은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반면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소통 및 평가의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의견도 많았다. 학생은 평소 접하지 않던 수업에 대한 새로움과 공간적 편안함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어 보이며, 반면 교사는 수업 격차를 줄이기 위한 블렌디드 수업이 오히려 수업 결손을 방치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여기는 의견도 많았다. 블렌디드 수업의 장점과 효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업 설계와 수업 진행의 노하우를 쌓아서 공유한다면 더 발전하리라 믿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블렌디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갑자기 한꺼번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학생과 학교의 필요에 맞게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정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화의 물결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의 숙제인 학생 개별화 수업, 교육 격차 해소의 다양한 기법과 사례를 모아서 공유하는 경험을 쌓고, 일회적인 연구가 아니라 축적된 지식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수업 방법 제공을 통해 교사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외국의 기존 연구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해 보고, 보완점과 한계점을 알아내어 실천 가능한 지식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2021. 교육정책 학습연구년 연구보고서

---

#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경남형 학교평가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명원 밀양예림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자

서정인 삼정자초등학교 교사





#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경남형 학교평가 개선방안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시민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회복하고, 학교의 교육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학교자치가 교육계의 주요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자치는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학교평가는 학교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학교의 진단과 해법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는 선순환되는 학교평가를 통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경남의 학교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학교평가의 의미를 살리고 각 학교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학교평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학교 구성원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와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과 결과가 오롯이 학교평가에 담기지 않고, 형식적인 학교평가 및 평가보고서 제출이 다수이다. 경남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법적 보호장치인 조례조차 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자치문화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교평가 기제를 활용하여 학교자치 실현 및 학교교육의 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교자치 시대에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는 경남형 학교평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경남의 학교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현황분석을 통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경남형 학교평가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경남형 학교평가에 대한 교원 인식을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한다.

셋째, 학교자치실현을 위해 경남형 학교평가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경남형 학교평가와 학교자치 정책을 파악하고, 학교평가와 학교자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평가가 어떻게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지는

그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평가의 실시현황을 분석하였다. 경남의 학교자치와 경남형 학교평가 실태에 대한 교원의 인식조사를 위해 초·중·고·특수 학교별로 관리자, 부장교사, 일반교사, 그 외 기타(행정직)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2137명의 응답에 대해 분석하였다.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경남형 학교평가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경남형 학교평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4개교를 방문하여 7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 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학교자치와 경남형 학교평가 간의 관계가 일치하는 수준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자치와 학교평가가 연관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 2137명의 학교자치와 경남형 학교평가 영역의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가 모두 3.5 이상으로, 대체로 학교자치와 경남형 학교평가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학교자치영역의 민주적인 학교문화조성 부분과 학교평가 결과를 학교교육 개선의 활용도가 학교평가 영역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평가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업무, 형식적, 부담, 업무, 어렵다, 많다 등’과 같은 용어의 빈도수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학교평가가 1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 하는 업무와 같은 인식, 그리고 평가지표가 많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인식이 많았다.

직위가 높거나, 교사경력이 많을수록, 학교평가 업무 담당경험이 있는 교사일수록,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경남형 학교평가의 평가지표 및 내용, 학교평가 절차를 잘 알고 있으며, 학교평가 결과를 내년도 학교교육(업무)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는 부분과 학교평가 결과가 나의 역할과 업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평가 결과를 학교 교육(업무) 계획 수립 반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교에서 연 1회 이상 이루어지는 학교평가가 학교 운영의 전반에 대한 반성 및 피드백을 통해 내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남형 학교평가가 학교운영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함을 교원들이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3주체가 함께하는 학교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학교별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 부여가 확대되

었으며, 민주적인 학교문화와 의사소통과정, 학생자치, 교육활동에 학부모의 의견 반영,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긍정적인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경남형 학교평가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에 더 주력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 학교운영전반에 걸쳐서 비교육적 활동이나 행사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교직원들 모두에게 업무평가 및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교평가가 전반적인 학교운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교원들이 대부분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 교육의 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나아가게 하는 학교평가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경남형 학교평가의 문제점은 업무담당자 위주의 평가, 학교교육활동을 과장한 실적 위주의 평가, 학교평가에 대한 무관심 또는 부정적 시각, 학교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 및 개선 미흡, 교육공동체 참여 미흡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형식적인 학교평가, 학교와 학교의 교육활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평가지표, 학교평가 업무 과중, 학교평가가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 표출수단으로 악용되어 교사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점을 꼽았다.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경남형 학교평가의 개선방안은 학교평가에 대한 인식전환, 학교교육과정과 학교평가 일원화, 학교평가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확대, 학교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객관성 확보, 학교평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타의견으로는 학교평가지표 및 보고서 간소화, 학교평가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학교평가에서 학교조직진단 도구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었으며, 학교평가에 대한 업무경감과 학교평가 결과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학교평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나. 심층 면담 분석 결과

면담을 통해 경남형 학교평가에 대한 개념,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취지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경남형 학교평가의 방향과 취지에 맞게 유기적으로 잘 운영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학교업무로써 해내는 형식적인 활동이라는 생각과 맞물려 학교평가에 대한 회의감,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평가라는 말에 대해 가지는 교사의 생각은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 더 많았다. 학교평가의 필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경남형 학교평가 목적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교평가의 목적은 학교 본연의 기능인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현재의 학교평가는 그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학교평가의 과정도 학교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3곳 중 2곳의 학교가 학교평가의 계획단계부터 학교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학교평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담당자나 부장교사에게 업무가 과잉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학교평가라는 것을 하나의 형식화된 업무로 학교구성원들에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각자 영역 파트를 정해 쓰고 취합하는 보고서를 쓰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평가지표와 문항도 학교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쓰기보다는 제시된 문항에서 취사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평가에 취지와 목적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이 부족했고, 학교평가라는 것이 늘 상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특정 기간에 이루어지는 학교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평가라는 특성상 결과를 확인하고 우수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데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교평가가 끝났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출 뿐 학교 평가 후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는 학교평가 결과가 우수하지만 보이는 모습이었다. 학교평가가 끝나고 나면 학교평가에 관한 관심 자체는 접는 경우가 많아 평가 결과에도 무관심하고 따라서 학교평가 결과를 활용한 학교 교육 현장의 발전을 꾀하는 일 또한 일어나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 4. 결론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평가 개선방안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가. 수시로 실시하는 학교평가 시스템 마련

학교평가란 학교 구성원이 수시로 소통하며, 학교의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협의를 통해 개선하는 과정이 상시적이어야 한다. 학교평가는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학교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업무담당자가 분석하고 정리한 평가한 자료를 월별 교육과정 협의회나 교직원 다모임, 교직원 협의회, 학생자치회, 학부모 워크숍 등을 통해 그 결과를 소통하고 진단하여 개선점을 찾는 것 이어야 한다.

##### 나. 학교평가와 교육과정 운영평가의 일원화

전북의 사례처럼 학교평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단위학교 교육과정에 평가지표, 평가내용을 삽입하여 교육과정 운영평가 일원화하여 추진해야 한다.

##### 다. 민주적인 의사소통 시스템 구축과 규정 구축

구성원의 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학교자치와 학교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

소통 시스템의 구축과 규정이 필수적이다.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도출한 제도를 시스템으로 규정하고, 누구라도 제안할 수 있는 민주적 협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라. 학교평가에 대한 교원의 역량 제고

학교평가 담당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평가 관련 인식개선 연수(학교 자율 경영 체제 이해, 워크숍 형태 스쿨 퍼실리테이션을 이용한 학교평가 등)와 학교평가의 이해와 실천을 높이는 길라잡이 제작이 필요하다.

#### 마. 학교의 성장과 발전이 담긴 학교평가 보고서

학교평가의 보고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평가가 1년 동안의 성장을 기록하고 반영하는 과정형 평가인 것처럼 학교평가 역시 평가지표에 근거한 교육과정 운영의 과정과 성장을 바탕으로 정성, 정량평가 등을 통해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보고서 작성이 되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학교평가를 위해서 교육청, 지원청에서 학교평가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고 학교를 위해 학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바. 학교평가를 위한 학교조직진단 도구 및 온라인 학교평가 시스템 도입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경남형 학교평가를 위해 학교조직진단도구의 도입이 필요하다. 조직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조직의 현 상태와 당면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학교조직 진단에서 학생의 교육적 성장이라는 학교의 장기적인 목적과 구성원들의 이질적인 문화, 그리고 학교경영의 전문성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업무경감과 학교평가결과의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온라인 학교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 사. 학교자치문화발전 방안 모색

학교자치문화가 발전한 학교의 교원일수록 학교평가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자치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가 민주적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교직원 간 민주적인 토론문화가 잘 형성되며,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교원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021. 교육정책 학습연구년 연구보고서

---

# 학교자치 정착을 위한 경남 중등학교 사례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오도화 태봉고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자

문성숙 진주제일고등학교 교사





## 학교자치 정착을 위한 경남 중등학교 사례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교육을 살리고 국민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관계에 변화가 요구된다. 교육행정 기관은 관료주의적이고 하향적인 간섭을 줄이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구성원들이 참여 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의 구성원들은 학교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머 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내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학교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 중심의 학교를 세우기 위한 운영체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경남교육청의 교육 철학 4가지 중 ‘민주성’의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의 민주주의는 ‘민주적인 의사소통 체제의 제도화’,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주체적으로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공동체 조성’,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제도와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 가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찾아보기 는 어렵다. 경남교육청의 정책 방향 중,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보면 ‘모두가 주인 되는 학교 자치 활성화’ 라고 하여 학교자치 활성화 내용이 제시되 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 교자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나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학교자치에 관한 다양한 교육연구가들 의 견해를 살펴 나름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또 단위 학교의 구성원들이 효율적인 학교운 영체제를 갖추고 학교자치실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내 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우수 사 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자치가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가.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자치가 단위 학교에서 실현되는 구체적인 사례로 무엇이 있는가?

둘째, 학교자치를 통한 교육적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단위 학교에서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학교자치의 실천방안과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가?

### 나. 연구 내용

첫째, 학교자치의 개념을 정의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요소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학교자치는 학교민주주의, 교육자치, 학생자치 등의 용어와 혼재되어 있으며, 막연한 개념은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기준과 내용이 모호하다. 이에 선행연구 분석 및 교육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학교자치의 개념과 요소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자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경남의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자치를 잘 구현하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고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을 직접 만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선정 기준은 경남교육 주요정책(2-1-3. 모두가 주인 되는 학교자치 실현)에서 정의하는 학교자치의 주요내용인 학생자치회, 민주적 학교문화조성, 교직원회, 학부모회를 잘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였다.

셋째, 학교자치를 위한 단위학교에서의 실천방안 및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문헌연구, 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통해 분석한 학교자치 사례를 통해 학교자치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일반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자치를 통해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다. 연구 방법

#### 1) 이론 연구

학교자치 관련 원격 연수 수강, 학교자치 관련 보고서 및 선행 타시도 자료 분석을 통해 학교자치의 개념을 정의하고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요소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 2) 현장 연구

본 연구에서는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자문을 거친 후 경남에 있는 중등학교 중, 학교 자치 활성화 방안을 잘 실천하고 있는 5개 학교를 선정하여 면담을 통해 실천 사례를 조사하였다.(공립 대안고등학교 2개교, 공립중학교(행복학교) 3개교) 면담 대상은 학교 교육 주체(교사, 관리자, 학생, 학부모 등)를 다양하게 만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면담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면담 대상은 학교 관리자와 교사로 제한되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공통질문과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개별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공통질문은 1. 학교의 현황 및 특색, 2. 학교자치의 내용 중 잘되고 있는 사례로 구성하였으며, 개별질문은 각 학교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내용(학생자치, 학생생활규정 개정,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학부모회 참여)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 3. 학교자치 실천 사례 분석

### 가. 회복적 서클의 원리에 따른 합의제(남해 보물섬고등학교)

남해보물섬고등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학교자치를 실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전교생과 전교사가 함께 참여한 ‘전원합의제’의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수결에 의해 결론 내려지는 방식이 대부분일 텐데 충분한 토의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 전체가 동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전원합의제’는 보기 드문 사례일 것이다. 이 방식은 구성원 전체가 주어진 안건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한 높은 수준의 토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올해 개교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 방식의 성과를 선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이 방식이 잘 정착된다면 이상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을 구현한 사례가 될 것이다.

### 나.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양산중학교)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학교 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양산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학교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오랜 시간 지속된 관행들과 통제를 위한 일방적 규정들에 맞추어서 수동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교육공동체가 기존의 교육환경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각각 동일한 1표를 행사하고, 토론회, 공청회, 대자보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현·공유하며, 그 속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산 경험이며 학교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양산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의 과정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에 대한 동등성·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협업·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의 모습이 양산중학교의 사례에 잘 드러나 있다.

### 다. 민주적 학교문화조성과 배움중심수업을 통한 학교의 변화(양덕중학교)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했을 때 생기는 우려 중의 하나가 교육적 가치보다 편리함 추구가 우선되어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양덕중학교 사례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킨다. 민주성과 전문성을 함께 키워나갔을 때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전문적학습공동체 연수나 교직원회의를 통해 학교의 철학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교사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쉬운 길보다 힘들어도 보다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배움중심수업을 통해 교과 지식 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이나 협업능력을 함께 배운다. 수업이 지식을 주입하는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시간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자율성은 커졌지만 문제 행동은 줄어들어 생활지도가 편한 학교로 변화되었다.

단순히 제도적으로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그치지 않고,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성장시킴으로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하는 의식을 함께 갖추어 나갈 때 진정한 민주적 학교문화가 이루어진다. 그 결과 학교가 변화되고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다는 것을 양덕중학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 라. 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문화(태봉고등학교)

학교와 학부모는 서로가 서로를 부담스러워 해서 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다. 태봉고등학교의 사례는 학부모와 학교가 잘 소통될 때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학부모 연수를 통해 학교의 철학과 비전을 학부모들과 함께 공유하고 학부모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모여 학교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행사, 잘 조직되어 있는 학부모회의의 모습 등은 3주체 간의 소통 뿐 아니라 학부모들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보여준다. 이런 관계 형성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 서로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학교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나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을 태봉고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 마. 학교공간 재구조화 프로젝트를 통한 학생 자치 역량 강화(진주 제일중학교)

진주제일중학교의 학생 자치 역량 강화의 사례들을 통해 변화되는 학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되는 모습( 학교가 자신들이 낸 아이디어로 공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학교 자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사(학교)가 교육과정이나 수업을 자치와 연계시킴으로써 학생들은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서로(교육공동체)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이고 수동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교공간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들이 우선은 서로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공동체의식을 가져야함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전체의 인식이 변화되기까지는 그 과정의 힘듦이 존재하지만 자치 역량의 성장을 통해 더 깊고 넓은 영역으로의 동반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을 진주제일중학교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 4. 시사점 및 제언

가. 학생들의 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이벤트성 행사나 1회성 활동이 아닌 교육과정이나 수업 속에 자치활동을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수결에 의해 결론이 내려지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충분한 토의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 전체가 동의하는 의사결정 방식인 ‘전원합의제’를 모델로 생활 속 소통의 방법, 합리적 선택에 대한 고민, 생각의 공유에 대한 접근법 등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다. 다양한 연수와 전문적학습공동체, 교직원 회의, 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교사들의 인식 변화와 자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교자치와 관련된 체계적 연수프로그램, 현장의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네트워크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등을 교육청·학교차원에서 운영하고 확산시켜야한다.

라. 교육공동체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인권교육,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의 학교 민주주의 관련 다양한 교육이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필요하다.

마. 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모여 학교 문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토론할 수 있는 학교 문화와 다양한 접근방법(예를 들면 공청회, 온라인 간담회, 학부모협의회 등)이

제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만 한다.

바. 관리자들의 인식변화를 전제한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관리자들이 권위적인 의식을 가지고 교사와 학생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학교자치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사. 교육부로부터 권한이양이 되고,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로 권한이 이양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단위학교에서의 학교자치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공동체(학부모, 교사, 학생들)가 가장 쉽게 접근가능하고, 가장 관심 있는 학급·학년에서부터 학교자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급회의, 학년회의를 제도화하고, 학급 및 학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2021. 교육정책 학습연구년 연구보고서

---

#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의 교육과정 연계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5학년 교사와 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진

연구책임자

오세연 덕정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자

김선영 창동초등학교 교사





#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의 교육과정 연계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5학년 교사와 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학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같은 다양한 주체가 공존하는 공동체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우리 삶의 일상이며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교사를 포함한 어른들은 학생들이 삶에서 만나게 되는 갈등을 잘 관리하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개인적으로는 인간관계를 잘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사회적으로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라나도록 적절한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관리,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고 학생 주도적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회복적 또래조정’에 주목하였다. ‘회복적 또래조정’은 회복적 질문을 사용하여 친구들끼리 문제를 해결하여 갈등을 푸는 활동이다. 학교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의 갈등을 교육의 기회로 삼고 공동체적으로 접근하는 ‘회복적 정의’의 철학에 따라 다수의 학생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업에서 갈등 해결방법을 배울 기회를 가진다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한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한 뒤 질적 연구 양식의 하나인 사례연구의 방법으로 질문지와 면담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 경험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가.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나.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 참여자(교사, 학생)는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다.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 3. 연구 방법

#### 가.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학교 차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는 경남 김해시 소재 B 초등학교 5학년 5개 학급 학생 95명, 교사 5명이다. 또 회복적 생활교육을 학교 차원이 아닌 학급에서 실천하고 있는 T 초등학교 5학년 1개 학급 학생 25명, 교사 1명이다.

#### 나.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 설계

5학년 도덕, 국어,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또래조정과 연관되는 내용을 프로그램 내용에 반영하고 기존에 또래조정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여러 기관의 프로그램<sup>1)</sup>을 참고하여 갈등 기초, 갈등 기술, 갈등 조정을 주제로 18회기 30차시로 재구성하였다.

#### 다.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프로그램의 적용

B 초등학교 5학년 담임 교사, 인성 부장, 그 외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에 관심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또래조정 프로그램 연수를 월 2회씩 만나 전문적 학습공동체 성격으로 진행하였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연수를 받은 교사는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을 격주로 진행하고, 그다음 주 전문적 학습공동체 만남에서 학생들의 반응과 교사의 교육 경험을 나누었다.

#### 라. 설문 조사, 심층 면담 실시 및 분석

회복적 또래조정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교사의 교육경험 대한 결과 분석을 위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하면서 수집한 내용과 심층 면담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생 활동 경험 분석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 중 학생들이 남긴 기록물과 프로그램 과정에서 진행한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심층 면담에서 나눈 대화를 통해 의미를 분석하였다.

---

1 한국평화교육훈련원 (2015).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청소년 갈등전환 프로그램: 등글게 만나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13) 학생갈등 해결을 위한 또래조정자 훈련 교사용 지도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또래조정자 훈련 지도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솔리언 또래상담(초등용, 청소년용)

## 4. 연구 결과

### 가.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프로그램 설계를 위하여 5학년 도덕, 국어,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회복적 또래조정 프로그램 관련 핵심역량과 성취기준을 추출하였다. 자세한 교육과정 분석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수업안, 수업활동지, PPT로 이루어졌으며 18차시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 수업안 중 1차시만 본문에 넣고 나머지는 부록에 제시했다. 본 연구논문에는 활동지, PPT는 실지 않고 수업안만 제시했다.

### 나.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경험 분석

#### 1)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학생의 경험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나온 응답을 비슷한 응답끼리 묶어 핵심 용어로 범주화하였고 응답자 가운데 10명을 선정하여 좋은 점, 어려운 점, 삶에서의 적용 경험 등을 중심으로 면대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생 대상 심층 면담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키워드를 기술하고 적절한 인용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설문 응답과 학생 심층 면담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면에서 ‘의사소통력’, ‘갈등인식력(갈등해결력)’, ‘관계성 강화(공동체성)’, ‘학교폭력 예방’의 하위요소를 도출하였다.

#### 2)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교사의 경험

교사의 경험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기록, 설문 조사, 심층 면담 기록을 분석하여 학생과 마찬가지로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의 효과성과 활성화 방안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교사 대상의 설문을 통해서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의 의미와 효과성을 묻는 말의 응답에서 각각 ‘의사소통력’, ‘갈등인식력(갈등해결능력)’, ‘공동체성’, ‘교육과정 연계성’, ‘학교폭력 예방’, ‘교사 성장’이라는 하위 범주들을 찾아냈고,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 ‘학교·학년 단위의 철학 공유’,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한 교사 성장’, ‘회복적 또래조정 프로그램 관련 연수와 자료 지원’이라는 요소를 도출해 내었다. 심층 면담에서는 학생과 유사한 범주의 또래조정 활동의 효과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교사 입장에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 다.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교사대상 심층 면담 결과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시수 확보’, 2) ‘학교·학년 단위의 회복적 생활교육 철학 공유와 협력’, 3)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시간 확보’, 4)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 연수와 교재 지원’ 의 네 가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 5. 결론 및 제언

초등학교 5학년 교사와 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경험에 대한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급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교육과정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학년 도덕, 국어, 사회 교과와의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5학년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활동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교사들이 본 프로그램과 활동지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교육을 쉽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회복적 질문을 바탕으로 또래조정을 연습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회복적 정의를 배울 수 있다.

둘째,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의 경험을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은 의사소통력이 향상되고 학급 친구와 친밀감과 신뢰감이 높아져 관계성이 강화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대할 때 끊임없이 대화로 풀려는 갈등해결력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갈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갈등을 대화와 합의를 통한 해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험이 쌓여 학교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감정인식과 경청의 중요성을 경험하는 활동이 학급 공동체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갈등 인식과 해결력, 공동체성이 높아짐을 경험하였고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연수를 진행하면서 동료 교사 간 철학을 공유, 수업을 나누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을 경험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시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학교와 학년 단위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철학이 공유되는 것이 중요함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청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취지를 학교 현장에서 되살릴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갈등 해결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므로 이 프로젝트의 의미와 취지가 잘 담길 수 있는 교재와 연수가 뒷받침된다면 많은 학교에서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은 미래 사회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자기관리, 의사소통, 문제 해결, 공동체 역량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학급 단위의 활동이다.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이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학생 갈등해결교육에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수업과 생활교육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생활지도 방식을 변화시켜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수업 속에서 생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수업-생활교육 연계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둘째, 연간 학사일정 속에 흩어져 있는 생활교육 프로그램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이뤄질 수 있도록 학년별 특성에 맞는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개발되기를 바란다.

셋째, 학교와 학년 단위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철학이 공유되는 것이 중요함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와 교육청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취지를 학교 현장에서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의사소통력, 갈등 해결력, 공동체성을 기를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의미와 취지를 잘 담을 수 있는 교재개발과 연수의 개설이 뒷받침된다면 많은 학교에서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프로그램 중 조정기초, 조정기술만으로도 학급의 관계성, 의사소통력, 갈등인식력이 높아졌다. 그리고 조정실습은 교사와 학생에게 모두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회복적 또래조정 활동 중 앞의 두 영역(조정기초, 조정기술)을 프로젝트로 묶어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21. 교육정책 학습연구년 연구보고서

---

#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학교폭력사안의 교육적 접근 방안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하경남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자

강주리 함안고등학교 교사





#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학교폭력사안의 교육적 접근 방안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다양한 갈등 상황과 학교폭력 사안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학교 현장에서 현행 학교폭력 대책의 접근 방식은 관련 당사자들을 분리 조치하여 엄격하게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놓치는 한계를 보인다. 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칭함)의 법률 목적은 사라지고, 관계가 훼손된 채 제삼자의 결정으로 사안이 마무리되면서 학급과 학교 공동체는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로 회복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을 처리해야 할 ‘사건’이 아닌 관계회복이 되어야 할 ‘교육적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평화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등을 다루는 새로운 관점인 회복적 정의가 필요하며,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의 처벌만으로 이루어지는 정의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쪽과 입힌 쪽이 서로의 필요와 책임을 채우고 훼손된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을 목표로 공동체가 정의를 이루는 주체로 함께 참여하여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때 정의가 성취된다고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본 연구에서는 열 한 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만나 심층 면담을 통해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겪은 고충과 교육적 바람, 회복적 모델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문화로 자리 잡은 갈등해결 방식, 그리고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한 갈등조정을 경험하거나 직접 갈등조정을 실천한 사례와 효과 등에 관해 들어보고자 한다.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갈등조정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나아가 학교폭력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학교의 교육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사안처리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교육적 바람은 무엇인가?

둘째, 회복적 모델학교의 갈등해결 방식과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

셋째,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경험한 갈등조정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가?

### 3. 연구 방법

#### 가.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11명으로 학교 내에서 갈등 상황이나 학교폭력사안을 접하거나 학교 폭력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교사 3명, 회복적 모델학교 운영 담당자 3명, 갈등조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갈등조정자로서 대화를 통해 갈등해결의 경험을 가진 교사 3명, 그리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 장학사 1명과 전문상담사 1명이다.

#### 나.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로서 Clandinnin & Connelly(2000)이 제시한(노진아, 2009; 홍영숙, 2015) 현장에 들어가기(연구문제와 연구 참여자 선정), 현장텍스트 구성하기(참여관찰과 이야기식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 현장텍스트 작성하기(데이터 수집 분석과 녹취록 작성), 현장텍스트를 통해 연구텍스트 구성하기(녹취 기록 검토, 자료 분석과 해석, 주제 범주화 및 핵심 내러티브 구성), 연구텍스트 작성하기(내러티브 재구성, 경험의 의미 해석)의 다섯 절차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 다. 심층 면담 실시 및 분석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의 현장텍스트 구성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되, 참여자와 관련된 각종 문헌자료들도 함께 수집하여 면담내용을 보완하였다. 연구자가 준비한 질문을 사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해준 뒤 심층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면담을 수행하였다. 참여자별로 평균 1회당 1시간에서 2시간 가량의 2회 이상의 심층면담이 이루어졌고, 참여자들의 답변을 전사 및 분석하여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 4. 연구 결과

### 가. 학교폭력전담교사들의 내러티브

학교에서 학교폭력전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학교폭력사안이나 갈등상황을 다룰 때의 고충과 보람있던 경험, 그리고 학교폭력사안이나 갈등상황에 교육적 접근을 하기 위한 제안들을 들어보았다.

### 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들의 내러티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을 직접 담당하는 장학사와 전문상담사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회부되는 학교폭력사안의 특징과 처리 시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들어보았다.

### 다. 회복적 모델학교 교사들의 내러티브

회복적 모델학교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경험이 있는 교사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회복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와 일상에서 실천되고 있는 회복적 학교문화, 학교폭력사안처리나 갈등해결을 위한 학교별 특색있는 회복적 시스템, 그리고 회복적 모델학교 운영에 어려운 점을 알아보고 제안을 들어보았다.

### 라. 갈등조정 대화모임을 경험하거나 실천한 교사들의 내러티브

학교폭력전담교사로서 사안 처리에 있어서 갈등조정지원단을 통해 갈등조정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와 현재 갈등조정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사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갈등 조정을 신청하거나 지원한 계기와 갈등조정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어려움과 교육적 보람, 그리고 학교폭력사안처리시 절차상 갈등조정 과정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 5. 결론 및 제언

### 연구문제1. 학교폭력사안처리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교육적 바람

학교폭력사안처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첫째, 학교폭력전담교사로서 학교폭력 가이드북에 따른 정해진 시간 내 처리와 서류 작업, 학부모들의 감정적인 민원 대응으로 인한 피로감이 높고,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지도에 쏟아야 할 시간과 에너지까지도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에 소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도입된 학교장 자체 해결제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교사의 법적 안전성에 대한 불확실과 결말에 대한 책임 부담, 그리고 추가 업무에 대한 거부감으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다.

학교폭력사안의 **교육적 접근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무조건적인 피·가해학생의 분리 이전에 회복적 질문을 활용하여 서로의 상황과 마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안접수 초기부터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모임을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학교 단위에서 교육청 단위의 학교폭력사안처리의 전 과정에 걸쳐서 언제든지 적극적인 대화모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갈등상황을 풀기 위한 대화모임 외에도 전문 상담의 연계와 도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전담교사들의 역량 강화 및 사례 공유와 격려의 기회가 필요하다.

## 연구문제2. 회복적 모델학교의 갈등해결 방식과 교육적 효과

회복적 모델학교의 회복적 정의에 바탕을 둔 **갈등해결 방식**은 첫째, 학교 전체의 문화 차원에서 회복적 정의와 공동체 의식이 학교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폭력사안처리나 갈등해결의 방식으로 작동하는 회복적 시스템들이 있으며, 공동체의 동의에 기반을 두고 지역적 여건과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작동하면서 학교장자체해결제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었다.

회복적 모델학교의 갈등해결 방식을 통한 **교육적 효과**는 교육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수성과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의지를 높이며,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처벌 이상의 큰 교육적 의미와 감동을 주며, 이는 학교폭력사안 발생 빈도의 감소와 학교장자체해결제 비율의 증가로 체감되고 있었다.

## 연구문제3.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경험한 갈등조정 교육적 효과

회복적 대화모임을 통해 경험한 **갈등조정 교육적 효과**는 첫째, 갈등조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하여 분노와 상처를 길게 가져가지 않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갈등을 충분히 풀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갈등조정 대화모임을 통해 안전한 공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자신을 직면하게 되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며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관계 개선을 가져오게 된다. 셋째, 갈등조정 대화모임을 통해 **앞으로의 관계 개선과 재발 방지에 초**

점을 맞추어 스스로 약속을 세우고 이행하는 힘을 기르게 된다. 이는 학생의 변화와 성장, 공동체 회복이라는 더 큰 교육적 가치와 회복적 정의 문화의 장기적인 확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학교폭력사안의 교육적 접근을 위한 세 가지 제안

첫째 회복적 정의를 알지 못하는 일반 교사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업무지침 절차 내에서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및 학교폭력사안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된 ‘학교폭력관계회복프로그램도움자료’와 조금 더 요약하여 정리한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핸드북’(두 자료를 모두 통칭하여 이하 ‘도움자료’라고 칭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실습을 병행한 연수를 제안한다. 또한 일선교사들의 실천을 바탕으로 한 도움자료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며,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법적인 안전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과 도움자료를 하나의 자료로 제작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연구 제안으로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과 일상의 관계 형성을 위한 주제로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기회가 제공되는 정기적인 연수와 학부모와 학교폭력업무 담당자 및 담임교사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제안한다. 그리고 회복적 모델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회복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의 갈등조정지원단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방안과 안전한 시공간 확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갈등조정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폭력사안 처리에 있어 회복적 접근 컨설팅 요원 양성과 학교폭력 관계회복 지원 전문가 양성 및 교육지원청 내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전문기관, 지역 사법 등과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과 ‘경남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인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교육 등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육성보다는 사법적인 처리 절차에 더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률과 시행령 및 가이드북을 교육기관의 관점을 담아 학교폭력예방법의 교육적 목적에 맞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현행 ‘즉시 신고’, ‘즉시 분리’와 ‘긴급 조치’ 등에서 차질 놓칠 수 있는 당사자의 의지와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피해 회복, 문제해결능력을 함양시키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폭력사안처리시 절차상에 갈등조정과정을 필수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화해의 중용이 아니라 대화모임 과정을 통해 각 당사자가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21. 교육정책 학습연구년 연구보고서

---

#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 연구

- 김해 J초등학교 학생 사례비교, 사례분석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준성 진영금병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자

서희경 내덕중학교 교사





#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 연구

## - 김해 J초등학교 학생 사례비교, 사례분석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한국 사회는 점차 다문화 국가로 변화되고 있다. 2020년 현재 법무부의 통계(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21년 3월호)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0만명에 달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하여 전체 학생 수는 2018년도에 563만명에서 2020년도 536만명으로 27만명이 감소한 반면 다문화학생의 수는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20년에는 14만 명을 초과하게 되었다. 더불어 부모 모두 외국인인 가정에서 출생하여 중도입국한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의 경우, 2012년도에 4,288명에서 2020년도 24,453명으로 최근 8년 여간 5배 가까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kess 교육통계시스템,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일반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외국인 가정 학생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다문화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확대 요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모든 학생들의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학교에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이 보다 강화된 교육과정 편성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의 학습 및 정서 지원을 통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격차가 일어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며 세분화된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교육격차 발생에 대한 이론적 관점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 연구와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습 특성 연구 등의 교육 실태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하였다.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의 학력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학력 격차를 줄이고 학업성취도 향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김해 J초등학교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 42명 및 학부모 28명, 한국어 학급 지도 교사 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을 분

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학급 지도교사 및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 지도교사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연구 결과

#### 가.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의 설문 조사 결과 분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국어를 사용한다는 점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국인 친구와의 교우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학업 내용으로 저학년에서는 받아쓰기, 국어, 수학 등의 기초, 기본교육을 들 수 있었고, 고학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등의 언어교과, 도구교과, 기본 교과 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나.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부모의 설문 조사 결과 분석

학부모 대상 설문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부모의 한국어 활용 능력도 대부분이 초급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 대상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 과반수 이상인 54.7%(23명)의 학생이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두 문항 결과가 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연구자의 예상과는 다르게 소득 수준, 평균 돌봄 시간, 주 양육자, 가족 구성, 교육 관심도 및 참여도 등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한국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는 학부모의 학력 수준과 학생의 사교육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가정의 학부모의 경우 한국 가정에 비해 학력 수준이 다소 낮은 편이었고, 사교육 정도도 다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교육 실시 양상이 다소 양극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다. 한국어 학급 지도교사 및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 지도교사 대상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 결과 분석

##### (1) 한국어 학급 지도교사 및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 지도교사 대상 설문 조사

교사 대상 설문 조사에 참여한 통합학급 담임 교사는 모두 6명이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 보이

는 응답자 수는 교사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각각 맡고 있는 학생에 대한 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응답에 대한 결과는 교사가 학생을 바라보는 인식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1번 문항인 교우 관계에서는 ‘외국인 친구와만 관계가 좋음’ 항목이 50명 중에서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인, 외국인과 모두 관계가 좋음’ 항목이 19명으로 뒤를 이었고, ‘모두 관계가 좋지 않음’ 항목이 2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학생은 외국인끼리 사이가 좋다고 교사는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 태도는 ‘좋지 않음’ 항목이 21명으로 가장 높았고, ‘좋음’ 항목이 19명을 두 번째로 높았다. ‘매우 좋음’은 9명이었고, ‘매우 좋지 않음’은 1명으로 응답 되었다. 심층 면접 결과 한국인 학생과의 전반적인 수업 태도를 ‘좋음’ 정도를 인식하여 응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한국인 학생들과 비슷하거나 다소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다.

## (2) 한국어 학급 지도 교사 및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 지도 교사 대상 심층 면접 결과 분석

교사 대상 심층 면접 결과를 크게 통합학급 담임 교사와 한국어반 담당 교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통합학급 담임 교사의 응답 결과를 보면 기존의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교육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교사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교사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다만, 두 교사군의 공통점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었다.

첫 번째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시스템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교사의 경우 지금의 예산이나 행정 지원 시스템 내에서 그나마 한국어반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외국인 학생 대상 교육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존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교사의 경우, 기존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두 번째는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있어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한국어 교육에 치중한 교육 시스템은 최소한의 기초·기본 능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과 학습에 대한 부진이 계속 누적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한국어 활용 능력의 신장이 곧 학업성취도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교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 부진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교사들이 몰입형 예비학교 교육과정 운영, 언어권별 특화된 학교 설립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학습지도나 생활 지

도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 모두에게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학교 설립과 같은 거시적인 접근을 주장하는 교사의 경우에도 기존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종교 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밖 사회돌봄·교육 시스템을 적절히 인정하고 활용하여 협력한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광역화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주장도 있었다.

세 번째는 교과교육에 대한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 두 번째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대책은 특화 학교 설립, 분리 교육 등의 거시적인 접근법도 있었지만,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 등 현실적으로 충분히 실천 가능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어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며 교내 외국인 학생에 관한 정책 및 학생 관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교사의 응답도 통합학급 담임 교사들과 비슷한 맥락의 응답이 많았다. 한국어반 담당 교사 또한 기존의 시스템이 지나치게 한국어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교과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전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단발적인 행사들을 정리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중언어강사 채용, 예산에 의한 한국어반 수용 인원 제한과 같은 한국어반 지원 정책도 매우 제한적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의 고용만으로 외국인 학생 대상 가정통신문 번역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각 반별 학생 및 학부모의 상담 지원, 학습 지원 등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 말하였다.

#### 4. 결론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방안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활용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국인과의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학습 부진이 누적됨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교우 관계나 학습지도 면에서 학년별로 다른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을 독려하고, 부모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종 사교육 등 방과후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부모 교육 및 방과후 교육 지원 등의 부모의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시스템이 지나치게 한국어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교과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교과 교육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이나 몰입형 예비학교 교육과정 운영, 언어권별 특화된 학교 설립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1. 교육정책 학습연구년 연구보고서

---

# 중도입국다문화가정학생의 학습지원 현황 분석

-경상남도 교육청 정책 중심으로

## 연구진

### 연구책임자

조혜영 양산중앙중학교 교사

### 공동연구자

김명숙 무학초등학교 교사





#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지원 현황 분석

## -경상남도 교육청 정책 중심으로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양한 문화권을 배경으로 하는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다문화가정학생의 유형에 비해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은 특히 기초학력 및 학습부진의 문제가 크다. 이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습득하고 공교육 진입 후 교과 공부를 함께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지속가능한 교육활동 지원방안은 무엇일지 찾아보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 가.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국내 학습지원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 나.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과 관련된 경남교육청의 지원 체제와 프로그램 운영의 현황은 어떠한가?
- 다.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과 관련된 경남교육청의 지원 체제와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 3. 연구 방법

- 가. 문헌분석: 각종 다문화 교육 관련 기관의 정책 및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을 하여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에 학습 지원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 나. 설문지법: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과 그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각종 학습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 정도를 알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하여 정책 실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다. 심층면담: 심층 면담을 통해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과 교사의 정책 체감도와 실제 지원

현황, 현장의 실제적인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

#### 4. 연구 범위 및 제한점

가. 연구대상: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한정하며 경남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중 학습 지원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대상지역: 현재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김해, 양산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 5. 용어의 정의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중도입국한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 조선족, 중앙아시아 고려인 등 한국이 아닌 다른 문화와 언어권에서 성장한 학생이 한국에 중도 입국하여 살아가는 학생을 말한다. 비슷한 용어로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을 사용하는데 이는 부모의 국제 결혼으로 중도입국한 자녀와 외국인가정 학생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므로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해서 한국으로 중도입국한 학생을 포괄하지 못한다.

## II. 본론

### 1. 경남교육청의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학습 관련 지원 정책

#### 가. 공교육 진입 지원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공교육 진입을 위한 안내와 상담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이 맞춤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6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중언어강사 활용하여 학습 뿐 아니라 상담, 생활 면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한국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하고 있다.

#### 나. 다양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지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과 다문화 특별(한국어)학급 및 징검다리 과정, 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 지원 뿐 아니라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다. 경남교육청 다가치지원 센터 내실화 추구

‘다가치지원센터’는 경남교육청의 다문화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연계 네트워크이다. 지원 내용을 보면 실시간 통번역 콜센터, 다문화학생 대상 교육 상담활동, 통역 및 번역, 다문화학생 학교 폭력 예방교육 및 안전한 학교 생활, 다문화학생 교육자료 및 지역사회 다문화교육 지원 등 다문화교육 전반과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에서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리하여 다문화교육관련 사업 지원 체계 확립하고 다문화교육 활성화 확대하고자 한다.

## 2. 설문조사

### 가. 조사대상자의 특성

- 1) 김해, 양산 지역 초·중학교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 2) 김해, 양산 지역 초·중학교 한국어 학급이 있는 학교 교사와 한국어 학급이 없는 학교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 나.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1)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이 부족하다. 다문화 교육 지원 계획의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2)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수·학습 시 대상 학생의 한국어 수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리고 지도에 필요한 교재, 도움 사이트에 대한 정보 부족하여 학생에게 맞는 교수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대상 학생의 학습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교과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3) 한국어 교육 수업, 대학생 멘토링, 이중언어 강사 배치, 방과 후 수업, 지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연계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이는 지원 프로그램 자체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4)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이중언어강사 배치와 다문화 통합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방안을 가장 많이 꼽았다.
- 5) 다문화 지원 지역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학생들이 타지역까지 가서 한국

어나 교과 학습을 받는 것엔 어려움이 있고 학교에서도 교육적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 내 거점학교나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하여 강사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하기를 희망하였다.

### 3. 심층 면담

**가. 심층면담 대상자의 특성:** 한국어학급 전담교사, 한국어강사, 원적학급 담임교사, 일반(교과)교사

#### 나. 심층면담 결과 및 분석

- 1) 현장에서 사용하는 표준한국어 교재가 어렵고 활용도가 낮다.
- 2) 공교육 진입 적응을 위한 개별화 협의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 3) 이중언어 강사의 활용이 어렵다.
- 4) 한국어학급 운영 시 교사 대비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가 많아 개별화 교육이 어렵다.
- 5) 한국어 집중적인 몰입교육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가장 필요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 다문화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보충형 방과후 수업의 연속성, 맞춤형 개별교육 지원 확대,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들었다.

### 4.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학습 지원 실태 분석과 학교 현장과의 연계

- 가.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적절한 맞춤형 학습지원이 가능하다.
- 나. 다양한 지원 정책 안내와 학습 지원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다문화교육지원 계획서 제공이 필요하다.
- 다.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이 필요하다.
- 라.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 마. 이중언어강사 확대 배치와 보조교사 배치가 필요하다.
- 사. 교사의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아. 맞춤형 수업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언어별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 자. 다문화 교육센터의 관련 기관 네트워크 연결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 Ⅲ. 결론 및 제언

경남교육청의 다문화 교육정책이 현장 실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센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제안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21. 교육정책 학습연구년 연구보고서

---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생태 환경 교육이 학생들의 환경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인숙 마산동중학교 교사

공동연구자

홍도순 충렬여자고등학교 교사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생태 환경 교육이 학생들의 환경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COVID-19가 전 세계를 덮쳐 인류를 위협하는 시점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 이로 인해 환경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졌고, 급기야 2020년 7월 9일 17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 교육 강화’ 비상 선언식을 했다.

하지만 현재 환경 교과를 선택한 학교가 많지 않고, 중등에서는 동아리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생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바꾸기 어렵다. 환경에 대한 감수성은 환경 교과에서만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교과에서 수업의 소재를 생태 환경으로 하거나, 실제 핵심지식의 생태 환경 교육을 할 수 있고, 교과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시할 때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생태 환경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적용하여 수업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경남만 해도 기후위기 대응교육 실천교사단 약 170여명이 각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과시간과 비교과시간을 이용해 실천하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아직은 비교과 시간에 텃밭 가꾸기, 게릴라 가드닝, 환경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과시간에 진행되는 융합프로젝트도 있지만 보편화 되지 않아 교과융합 생태환경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환경 생태 교육이 교과와 융합 교육과정에서 이루어 질 때 학생들의 환경의식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교과 내 재구성뿐만 아니라 타 교과와의 상호 연결된 학습이 학생들의 습득한 지식을 통해 사고의 확장과 실천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교를 넘어 가정과 지역 사회가 연계한 환경교육의 실천이 요구 된다.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삶에서 적용해 보며 실천하고 몸소 생활에서 녹여낼 때 환경 감수성이 길러질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생태 환경 교육이 학생들의 환경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적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고려하여 생태 환경 교육이 환경감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교 현장에서 탐구해 보고자 한다. 중학교 과학 교과내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 융합 교육과정 재구성을 교사가 직접 수업에 적용해 본 이 전과 이후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환경감수성을 분석해 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환경감수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5개의 학생 그룹과 교사 3명이 함께 진행하였다. 생태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교과내’, ‘교과 융합’으로 나누어 수업을 설계하고, 그 후 각 차시별 간단한 수업 전개 질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적용한 집단은 마산여자중학교 1학년, 삼계중학교 2학년, 합포중학교 3학년 전체이고, 비적용 집단은 호계중학교 2학년, 마산동중학교 3학년 전체이다. 참여 교사는 모두 과학교사이고, 마산여자중학교는 7과목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환경 감수성 측정도구는 이재봉, 이두곤에 의해 2006년에 개발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환경 감수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환경교육 전문가들의 지도 조언을 바탕으로 환경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자연환경을 아끼며, 자연에서의 활동을 선호하고, 환경의 오염과 파괴에 대하여 민감하게 인식하며, 추가해서 자연 경관과 야생 동물과의 상생을 고려한 인공 환경의 조성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크게 5개의 범주로 나누었고, 이번 연구에서도 이 범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시기는 교육과정 적용 전 4월, 적용 후 10월에 측정하였고, 방식은 구글설문지 링크를 이용하였다.

## 3. 연구 결과

### 가. 교육과정 재구성 적용 그룹

		자연환경	자연활동	인공 환경	환경파괴	환경오염
삼계중 (2학년))	전	1.87	2.69	2.41	2.57	2.56
	후	1.93	2.70	2.55	2.73	2.75
마산여중 (1학년)	전	2.12	2.91	2.66	2.69	2.75
	후	1.88	2.63	2.38	2.60	2.64
합포중 (3학년)	전	1.75	2.61	2.30	2.66	2.52
	후	2.05	2.59	2.59	2.57	2.68
남학생	전	2.13	2.88	2.67	2.68	2.75
	후	2.11	2.75	2.77	2.83	2.77
여학생	전	1.86	2.70	2.40	2.61	2.57
	후	1.87	2.64	2.42	2.63	2.68
1학기 적용 전		1.95	2.76	2.48	2.63	2.60
2학기 적용 후		1.93	2.66	2.50	2.67	2.70

교육과정 재구성 전과 후의 학교별, 성별의 범주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삼계중 2학년의 경우 모든 범주에서 환경감수성 척도 점수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산여중 1학년의 경우 모든 범주에서 환경감수성 척도 점수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미가 있을 정도의 차이 값은 아니지만, 마산여중의 경우 생태환경학교로 지정되어 학교 전체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이 유의미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교과 융합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다양한 과목에서 실시하였고,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많았다. 이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합포중의 경우 일정한 경향성은 없고, 성별에 따라서도 일정한 경향성을 찾을 수 없다.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을 적용한 학생들의 ‘환경감수성’에 대한 사전, 사후 응답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2.484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2.491점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P\text{-value} > 0.05$ 이므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교육과정 재구성 적용에 대한 환경감수성 변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나. 교육과정 재구성 비적용 그룹

		자연환경	자연활동	인공 환경	환경파괴	환경오염
호계중 (2학년)	전	2.02	2.79	2.52	2.66	2.65
	후	2.24	2.80	2.52	2.72	2.84
마산동중 (3학년)	전	2.03	2.82	2.55	2.67	2.73
	후	2.08	2.71	2.43	2.72	2.63
남학생	전	2.05	2.80	2.57	2.67	2.71
	후	2.09	2.72	2.44	2.72	2.66
여학생	전	1.95	2.81	2.44	2.66	2.61
	후	2.35	2.83	2.50	2.72	2.79
1학기		2.02	2.80	2.53	2.67	2.68
2학기		2.12	2.73	2.45	2.72	2.68

시간이 지난 후 간접적 영향으로 환경감수성이 변화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비적용 그룹의 학교별 성별 환경감수성 점수를 비교하여 보았다. 전체적으로 자연환경과 환경파괴 부분에서 점수가 더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감수성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을 때 환경감수성에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을 적용하지 않은 학생들의 ‘환경감수성’에 대한 사전, 사후 응답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전조사에서는 평균이 2.54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2.541점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P\text{-value} > 0.05$ 이므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4월에서 10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감수성 변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4. 결론 및 제언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수업을 적용했을 때 환경감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 사이의 차이도 없고, 적용하기 전과 후에도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환경감수성이 높았고, 학년과 학교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교육과정 상에서 환경교육을 다루지 않았을 때, 간접적인 이유로 환경감수성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가설에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산여자중학교의 경우 생태 환경 학교로 전체 교육과정에서 환경문제를 다루게 되었을 때 다소 환경감수성이 높아지는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아쉬운 점을 분석해보면 첫째, 환경감수성 검사지가 2006년에 만들어진 것이 라 질문이 현재 상황과 많이 달랐다는 것이다. 이에 더 조사해본 결과 2021년에 개발된 공주 대학교 이재영 교수의 ‘기후환경문제와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라는 기후리터러시 조사서를 이용한다면 결과가 더 정확할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4월과 10월에 조사하였는데, 교육과정 재구성 적용 시기가 대체로 4~5월이어서 10월까지의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수업을 적용한 직후에도 조사를 했더라면 더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4월에 측정한 모집단의 수와 10월의 모집단 수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연구를 진행하는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 여러 교사들에게 부탁들 하다 보니 조사전과 후의 대상자가 많이 달라져서 정확한 조사가 힘들었다.

그럼에도 유의미한 하나의 결과가 있었다. 교육과정 재구성을 적용한 학생들에게서 자연환경 범주에 대한 환경감수성이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가 나온 후 실제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환경감수성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와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례, 그리고 환경감수성을 위한 교육에 대해 생각하는 것 등을 질문하였다.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환경문제를 받아들이는 것과 실천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보였고, 내면화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답하였다. 이에 단편적인 환경교육은 학생들의 변화와 환경실천을 이끌어 내기 힘들고, 교육과정 속에 잘 스며든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2021. 교육정책 학습연구년 연구보고서

---

#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보영 충무공초등학교 교사

공동연구자

정현정 갈전초등학교 교사



##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첫째,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지식, 인식 및 태도 변화를 분석한다.

둘째, 이를 통해 기관 주도 환경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제안점을 확인한다.

셋째, 학교 단위 혹은 교사 수준의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프로그램 분석

나.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다.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환경의식 및 태도 변화 분석

### 3. 기후위기 대응/생태교육 프로그램

기후위기 대응교육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약 20명(1개 반 기준)을 기준으로 총 4회, 8차시에 걸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 중점 내용은 기후변화의 현상과 원인 알기, 기후 변화로 변화된 생태계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알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기 등이다.

생태교육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약 20명(1개반 기준)을 기준으로 총 4회, 8차시에 걸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육 중점 내용은 생명과 생태계, 언제 피었을까?, 숲이 주는 혜택, 곤충의 생활알기, 생물다양성을 주제로 생물의 생태적 특성과 생활사, 식물의 개화시기, 숲과 나무 보전의 필요성, 곤충의 한살이, 생물종 특성 및 서식지 등이다. 1차시는 PPT 자료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사실, 지식, 이론을 익히고, 2차시는 관련 자연놀이 교구, 만들기 자료, 게임 등 실습 위주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 4.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학교 현장 적용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과 수준의 적절성, 학생들의 참여도와 상호작용 정도를 확인하였다. 기후위기 대응교육 3개교, 생태교육 2개교, 텃밭교육 2개교, 미세먼지교육 1개교 등 총 8개교, 1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적용 효과 및 정책 제언점 도출을 위한 강사, 담당 교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 5. 모니터링 결과 분석

- 가. 1회당 1차시는 이론 교육, 2차시는 배움을 정리하는 실습(만들기, 토론, 홍보 등)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나. 같은 교안과 교구이지만 강사의 역량에 따라 강의 수준 차이가 있음.
- 다. 학교 및 학급 특성이 다양하여 일률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음.
- 라. 4주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높음.
- 마. 한 학교 혹은 학급에 1회성으로 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학기 혹은 연간 단위로 지속적인 환경교육의 지원을 필요로 함.
- 바. 학교 및 담당자의 역량과 지원에 따라 교육 여건에 차이를 보임.

이상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이지만 강사의 강의 능력에 따른 학생 참여도 및 교육효과의 차이가 크므로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학생, 교사 만족도가 높으므로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일상 속에서 교사에 의한 지속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친환경 교구재가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 6.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환경 지식, 인식 및 태도 변화 분석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하 실험 집단)의 환경 지식, 인식 및 환경태도 가치 변화를 사전, 사후 설문 분석 및 면담을 통해 결과를 정리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논의점,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으로 프

로그램 참여 예정인 학생 264명(이하 실험 집단)을 사전 설문지를 통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초등학생 200명(이하 통제 집단)을 선정하여 동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일 조사지로 사전, 사후 2번에 걸쳐 설문을 하여 환경 태도 및 감수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7. 측정도구

### 가. 검사 문항 수정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개발된 CHEAKS 검사지<sup>심리학자인 Maloney와 Ward가 1975년에 개발</sup>에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환경 요소 인지 확인 문항 2개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이 CHEAKS 검사지는 환경 관련 태도 측정 36문항을 국내 실정에 맞게 번역 타당화를 실시하여 구성한 검사지로 환경교육 분야에서의 태도 변화 측정에 활용되고 있다. 이 중 원 검사지의 ‘학습동기’와 ‘학교 성적’의 항목은 본 연구의 목적과 특별한 관계가 없으므로 검사 문항에서 제외하였다.

## 8. 사전 설문 분석

### 가. 조사 대상

구분	명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참여 초등학생 (이하 실험 집단)	264명
찾아가는 생태환경교실 비참여 초등학생 (이하 통제 집단)	200명

실험 집단은 경상남도 내 읍·면·동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부터 도심의 대규모 학교에 재학하는 4~6학년 264명의 학생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성별로 분류하면 남학생 124명(47%), 여학생 140명(53%)이고, 6학년이 133명(51%), 5학년이 32명(12%), 4학년이 99명(37%)을 차지한다. 온라인을 통한 사전 설문 참여자는 117명, 오프라인 설문지를 통한 사전 설문 참여자는 147명으로 총 264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통제 집단은 신도시 중심에 있는 재학생 1400여명 규모의 대규모 학교 6학년 학생 20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남학생 100명(50%), 여학생 100명(50%)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 9. 사전 설문 실시

본 조사 항목 분석을 통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언어적, 행동적, 정서적 관여 3가지 영역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실험 집단이라고 해서 환경적 소양이나 태도가 특별히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설문을 통해 본 프로그램 참여 후 학생의 환경 지식, 인식 및 태도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 10. 사후 설문 분석

구분		
사전 설문	온라인 사전 설문 참여자	117명
	오프라인 사전 설문 참여자	147명
사후 설문	온라인 사후설문 참여자	26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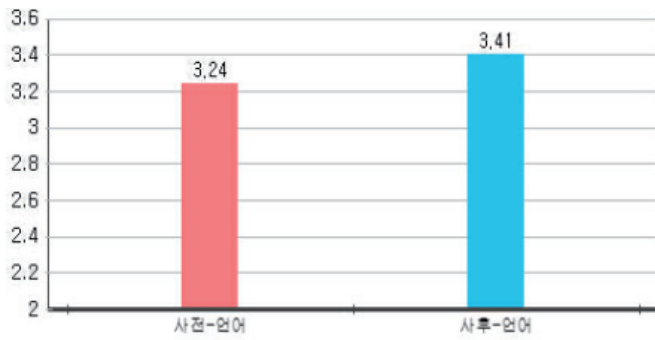
### 11. 사후 설문 결과

실험집단의 2021. 찾아가는 환경교실 프로그램 참여 전후 환경 태도의 변화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언어적 관여

	평균	빈도	표준편차	T	유의확률 (P-value)
사전-언어	3.241	264	0.520	-3.916	0.000
사후-언어	3.405	264	0.536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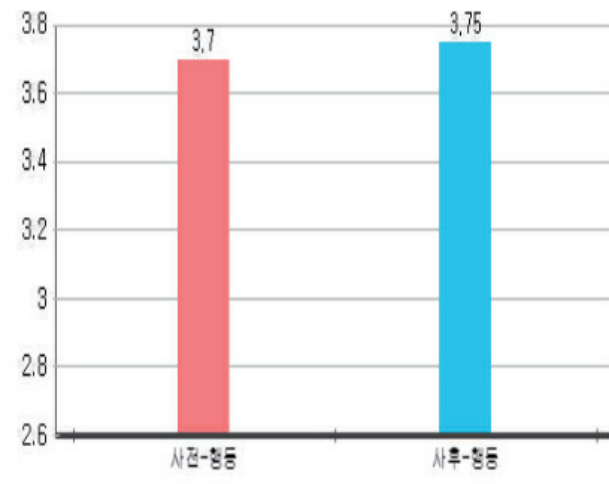
언어적 관여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유도 263에서 t값이 -3.916, 유의확률이 .0으로 p<.05이다. P-value < 0.05 : T값이 유의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

다. 따라서 정서적 관여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05에서 2021. 찾아가는 환경 교실 프로그램 적용은 학생의 태도 변화 중 언어적 관여에서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분석할 수 있다.

(나) 행동적 관여

	평균	빈도	표준편차	T	유의확률 (P-value)
사전-행동	3.697	264	0.610	-1.028	0.305
사후-행동	3.749	264	0.652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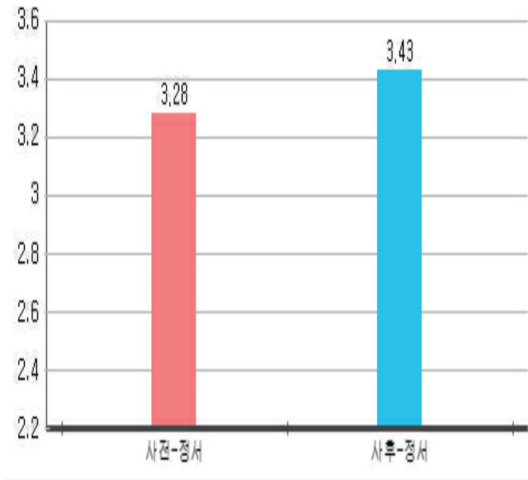
행동적 관여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유도 263에서 t값이 -1.028, 유의확률이 .305으로  $p > .05$ 이다. 즉 '사전과 사후 점수의 평균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어 행동적 변화는 없다고 분석할 수 있다.  $P\text{-value} > 0.05$ 일 때 T값이 유의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행동적 관여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

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05에서 2021. 찾아가는 환경 교실 프로그램 적용은 학생의 태도 변화 중 행동적 관여에서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볼 수 없었다.

(다) 정서적 관여

	평균	빈도	표준편차	T	유의확률 (P-value)
사전-정서	3.282	264	0.488	-3.652	0.000
사후-정서	3.427	264	0.516		

\*\*p<0.05



정서적 관여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자유도 263에서 t 값이 -3.652, 유의확률이 .0으로  $p < .05$ 이다.  $P\text{-value} < 0.05$  : T값이 유의하여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서적 관여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유의수준 .05에서 2021. 찾아가는 환경 교실 프로그램 적용은 학생의 태도 변화 중 정서적 관여에서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분석 할 수 있다.

## 12. 결론

첫째, 도교육청과 사회기관과의 연계, 협력하여 운영한 기후위기 대응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유의미하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경상남도교육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요구와 제안점을 파악하였다.

셋째, 프로그램 강사와 학교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강사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학교 교사에 대한 생태환경교육 연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13. 제언

첫째,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교육의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한정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교육을 위한 기회와 예산, 인력 지원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기회와 예산 지원, 학교와 전문기관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2021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 요약보고서

---

발행일 2021년 12월 23일 인쇄  
2021년 12월 23일 발행

발행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직무대리 장종용

기획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소장 차재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정대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유병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오영범

연구지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사무운영주사 유창호

발행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51141)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로 111번길 20  
누리집: <https://gerii.gne.go.kr>  
전화: (055)269-0777  
전송: (055)269-0789

인쇄 꽃피는 열두달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http://ebook-lib.gne.go.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 16권

## 요약보고서

<https://gerii.gne.go.kr>

